

나의 교유록(交遊錄)

육마당집 만딸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은 내게 있어서도 역시 부모님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세월을 지내 오며 숭한 인물들을 겪어왔건만, 추억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언제나 아버님(金商善), 어머님(金順伊) 그리고 할머니님을 모시고 있다.

1917년 11월 10일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 2가에서 태어난 나는 곧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교동으로 이사를 갔다. 네 자매의 만딸로 태어난 나는 일제 통치의 그림자가 덮여 있던 무렵이긴 했어도 가정적으로는 아무런 그늘을 못 느끼고 성장할 수 있었으니, 이제 와 생각해 보면 모두가 부모님의 숨은 손길이 있었던 때문인 것 같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육마당집’ 이라고 불리는 큰 집들이 즐비했는데, 우리 집도 그 중 하나였다. 집이 커서 마당이 여섯 개나 딸려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 기억에도 옛날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사랑 따로, 아버지 사랑 따로 해서 사랑만 두 채에다, 대문, 중문, 셋문 해서 문도 많고 뜰도 많아 꽤 복잡했었다. 당시 아버지는 집 근처에다 ‘조선약업상회(朝鮮藥業商會)’ 라는 간판을 내걸고 약국을 경영하고 계셨다. 약국이라고 하지만 요즘의 약국과는 달리 일종의 한약재 무역상으로서, 멀리 중국, 일본, 소련 등지에서 온 진기한 약재들이 많았었다.

가뜩이나 층층시하(層層侍下) 큰 살림에 약국 치다꺼리까지, 그 부담은 결국 어머니 한 분에게 돌아갔다. 할아버지가 손님 청하시길 즐겨 사랑엔 언제나 식객(食客)들이 북적거리고 약국 종업원들도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뒷시중으로 행주치마 벗을 날이 없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육체적인 과로 외에 삼대독자 집안에 들어와 딸만 내리 넷을 낳으셨으니 심리적인 부담

은 또 오죽했을까. 아버지는 손(孫)이 끊길 지경에 이르자, 본의는 아니었을 테지만 소실을 하나 둘 맞으시기 시작했다. 결국엔 동경 유학생 출신의 인텔리 여성에게서 소원대로 아들까지 얻으셨지만, 그 동안의 어머니는 ‘부덕(婦德)’이란 미명 아래 싫은 내색 한 번 할 수 없었으니,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여자의 일생’이란 것에 대한 회의에 잠기곤 한다. 이렇게 일에 힘싸인 어머니 대신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나를 시집갈 때까지 안방에서 데리고 주무셨다.

보통학교(동덕학교) 시절의 나는 요즘 말로 ‘과잉보호’ 속에서 지냈다고나 할까. 비 오는 날이면 인력거로 통학했고, 귀가가 조금만 늦어져도 혹 전차에 치이지나 않았을까 하여 집안 어른들이 온통 거리로 찾아 나섰다. 옷차림은 또 얼마나 유별났던지, 열 살이 채 안 된 어린애였는데도 종아리를 드러낼 수 없다 하여

통치마 밑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고 꼭 버선을 신어야 했다. 제일 질색인 것은 여름에 해동저(海東苧)로 지은 모시옷을 입는 것이었다. 흰히 속이 들여다보이는데다, 풀을 먹여서 바지 위에 받쳐 입은 치마가 우산 편 것처럼 뻗치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 생일보다 기다려지는 건 ‘원족(遠足, 소풍) 날’이었다. 남들처럼 양말에 사뿐한 운동화 차림이 돼 볼 수 있는 건 이날 하루뿐이었기 때문이다. 또 원족 전날 밤이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야시장에 따라 나서던 기쁨도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는다. 밤거리 종로바닥 여



1. 장교동 집에서 할머니(가운데)와 함께. 1920년대 중반경. 김정숙(金貞淑, 맨 왼쪽)은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별 어려움 없이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2. 동덕여학교 사학년 때 전교생이 교정에 모여 찍은 기념사진.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숙, 1926.

기저기에 수북이 쌓인 과일, 과자 등은 구경만 해도 가슴 벅찬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금방 내 것이 돼 버렸으니 말이다.

이렇게 '부잣집 어리광쟁이'로 지낸 나의 보통학교 시절에도 잊을 수 없는 은사가 꼭 세 분 계시다. 우선 동덕학교(東德學校)의 교장으로 계셨던 조동식(趙東植) 선생님. 그분은 민족운동가로, 또 교육자로 당시 널리 알려졌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덕분에 이 '어리광쟁이'에게도 어렴풋이나마 민족의식이란 게 싹틀 수 있었던 것 같다.

조 선생님 못지 않게 민족운동에 열을 쏟았던 분으로 교감을 맡았던 권태희 선생님이 기억에 새롭다. 한동안 모습을 뵈 수 없더니 어느 날인가 '빡빡머리'로 나타나시는 게 아닌가. 일경(日警)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나신 선생님은 한결 초췌해 보였고, 어린 마음에도 뭔가 불끈하는 경험을 남겨 놓으셨다.

삼 년 동안 담임으로 계셨던 김규창 선생님은 자애롭기보다는 엄격한 편이었지만, 철저한 진학지도가 훗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따로 과외 수업비를 낸 것도 아니건만, 졸업반 학생들 각자에게 알맞은 상급학



3. 숙명여고보 시절,
학교 온실에서 원예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
맨 앞이 김정숙.
1930년대초경.

교를 정해 주시고 방과후에 과외 수업을 그토록 열심히 하셨던 것이다. 나도 이제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보통학교 시절의 이들 세 분 선생님의 행적은 교육자의 길을 걷는 나에게 아직도 많은 가르침이 되어 주곤 한다. 잡부금이다 사례금이다를 모르던 시절, 사심(私心) 없이 오직 교육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애쓰던 그 모습은 오랜 세월을 두고 내 가슴에 살아 있다.

숙명여고보 입학

내가 숙명여고보(淑明女高普)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분히 소녀적인 취향에 이끌린 결과였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해야 했을 때, 나는 별 주저 없이 '교복이 예쁜' 숙명을 선택했다. 숙명의 교복이라면 원래는 자주 치마에 흰 저고리였던 것이, 내가 입학하던 무렵부터 스마트한 세일러복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모양내기 좋아하는 한 소녀를 피어 들었던 것이다.

보통학교서부터 숙명까지 나를 동반해 준 친구로는, 지금 외국어대 강사로 재직 중인 김학수(金鶴壽)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르기로는 내 모양새나 다름없었지만, 공부 잘하고 글재주도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나의 성장과정을 죽 지켜 보아 온 친구로서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4. 숙명여고보 오학년 때 스마트한 세일러복 차림의 모습. 1934년 봄.



5. 숙명여고보 삼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가운데가 김정숙. 1932. 2. 이 시절 우태유, 류계완, 안갑년, 정충량 등 잊을 수 없는 벗들과의 인연을 맺었다.



6. 숙명여고보 졸업 직전 한강 스케이팅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정숙. 1935. 1. 집안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좋아하여 스케이팅 타기를 즐겼다.

숙명 시절 예술가 기질을 엿보이던 친구로 우태유(禹泰有)가 있다. 교내에서 유일하게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림에도 재질을 나타냈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하나 친구로 갖게 되는가 했더니 애석하게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가 버려 모든 재주를 가사에만 돌리고 말았다.

시골 냄새를 물씬 풍기며 전라도에서 갓 전학해 올 무렵의 류계완(柳桂完)의 모습도 잊혀지질 않는다. 부리부리한 큰 눈에 몽툭하게 잘라낸 빨간색이 도는 머리칼은 주위 소녀들과는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하나의 침입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중에 일본 유학 다녀온 뒤론 거꾸로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멋쟁이로 돼 버렸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돌기 좋아하는 그 성격에 어떻게 가사과를 전공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일본에서 요리를 연구하고 돌아온 뒤 YWCA에 요리강습을 최초로 개설한 것도 그였지만, 요즘은 건강상 연세대 강의와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장직도 그만두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형편이다.

공부보다는 노는 쪽을 즐긴 탓인지 내 주위엔 항상 친구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안갑년(安甲年)을 빼놓고 나의 여고시절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그와는 떨어질 수 없는 친구로, 하루도 안 보면 못 견디는 사이였다. 나보다 두어 살 손위였던 그는, 마냥 철부지였던 나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어릴 적부터 주님께 일생을 내맡기기로 결심을 굳히고는 수녀로서의 장래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하게 디더 나가고 있던 터였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잘 통하는 사이라고 자부했지만, 종교 문제에 대해서만은 서로 입을 다물었다. '구제할 길 없는 아이'라고 판단했던지 나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같은 건 애당초 포기한 눈치였기 때문이다.

졸업하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내가 결혼할 무렵에야 나를 다시 찾아온 그의 팔엔 옷감이 한아름 안겨 있었다. "나는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니 이런 것 하나도 소용없다"며 가져온 것을 모두 내게 건네 주었다.

여고시절 단짝이던 두 친구 중 한 사람은 속세에 남아 결혼을 서두르고, 또 한 사람은 속세를 이제 막 등지려 하고... 갈림길에 다다르고 보니 갖가지 감회가 출렁였지만 조용히 각자의 갈 길을 축복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뒷날 재회의

기대에 부풀어 안 수녀를 면회 갔을 때는 뜻밖의 냉정한 대접에 무참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수련 중의 수녀는 함부로 외부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는 규칙을 뒤늦게 알고 난 뒤에야 겨우 섭섭한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계성여고(啓星女高) 교장으로, 성모병원 간호수녀원장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에 충실해 온 안 수녀를 대할 때, 이제는 옛 친구로서의 우정 같은 것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존경심이 앞선다.

숙명 시절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은 장선규(張善奎)다. 그는 미인이라기보다는 멋쟁이요, 잡기(雜技)에 능한 플레이걸이었다. 너무 일찍부터 연애를 시작해 공부는 제쳐놓다시피 했지만, 어떤 면에선 나의 성향과 맞아떨어져 공부하는 곳만 아니라면 어디든 같이 쏘다녔다.

동창 중 가정교사를 해 가며 어렵게 공부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로는 정충량(鄭忠良)을 꼽을 수 있다. 억척스럽다 하여 친구들 사이에 '함경도 포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함경도 출신이어서 모두들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난다. 『경향신문』 기자로, 이화여대 교수로, 주부클럽연합회장으로 팔방미인의 역량을 과시하던 그는 요즘 모교의 교장직을 맡아 정력을 쏟고 있다.

수표예배당

내게 친구를 주고 낭만을 주었던 숙명 시절은, 또한 훌륭한 스승을 내게 여러 번 만나게 해주었다.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이기에 더욱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 그 당시 사제지간은 오늘의 세대가 미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간의 사랑이 깊었다.

우선 나의 담임을 맡았던 김현실(金縣實) 선생님은 요리 과목을 담당했던 분이다.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지만, 엄격한 표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상 작전의 하나임이 분명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뵈고 보면 딱 분을 대하는 듯 따사롭기만 했던 선생님은, 동창 모임인 '숙녀회(淑女會)' 회장직에도 오래 계셨다.

영친왕(英親王)의 어머니 되시는 엄비(嚴妃)가 창설한 숙명여고의 당시 교장은



7. 수표예배당에서 성탄절 기념 성극 공연을 마치고,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정숙. 1934년경.



8. 수표예배당 시절 찬양대 대원들과 함께. 두번째 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숙, 네번째가 찬양대 대장 이영세 선생, 다섯번째가 훗날의 남편 김은우. 1934. 12.
수표예배당은 남편 김은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돌봐 준 은인 이영세 선생을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곳이다.

이정숙(李貞淑) 선생님이었다. 워낙 과묵한 분으로서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 반듯한 체격에 새하얀 한복 차림의 귀부인스런 풍모는 무언중 숙명의 여성상(女性像)을 상징하는 듯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새겨 주었다. 뒷날 조각가로 성장한 이 제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선생의 흉상(胸像)은 지금 도곡동 숙명여고 교내에 모셔져 있다.

일본인 교사 중 잊지 못할 분은 노무라(野村) 교감이다. 일제는 미웠지만 노무라 선생 개인에 대해서만은 조금의 적의도 느낄 수 없었을 만큼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했던 선생은, 민족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와 사제지간으로 굳게 뭉칠 수 있었다. 해방 후 옛 제자들을 잊지 못해 한국에 한 번 나오셨었다는데, 그때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내가 수표예배당엘 나가기 시작한 것은 여고 삼학년 때로 기억된다. 유교 가정에서 자란 소녀에게 급작스레 신심(信心)이 생겼을 리 없다. 단지 장안에서도 유명한 구식 집안에 태어나 갓히다시피 자라 온 지난날에 대한 반발에서라고나 할까. 신선한 바깥 공기를 쉴 수만 있다면 예배당도 좋고 어디라도 좋았다. 이렇게 바람 쉴 겸 시작했던 예배당행이 내 인생의 일대 전기(轉機)를 준비하고 있을 줄이야... 그 예배당에서 지금의 남편 김은우(金恩雨) 선생을 만났고, 당시의 목사님은 그의 부친 김종우(金鍾宇) 선생으로 나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다.

이 두 분을 빼놓는다면, 당시 예배당에서 인연을 맺게 된 잊지 못할 분으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세(李永世) 씨를 들 수 있다. 일본 제국음악학교(帝國音樂學校) 출신으로 우리나라 바이올린 연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생은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도 선배로서, 친구로서 귀중한 분이다. 수표예배당 시절의 이 선생은 찬양대(성가대) 대장으로서 음악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찬양대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나는 음악 실력 또한 제일 달렸으나 보다. 이 선생의 특별 배려로 일주일에 두어 번씩 그분 덕에서 보충수업을 받곤 하던 기억이 난다. 요즘까지도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달려와 자신의 일처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선생이다.

뒷문으로 몰래 출입해 가며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지만, 어느 날인가 내가 예배당 나간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다. 유교 집안에 예수쟁이라니... 처음에 집안 어른들의 진노(震怒)는 대단했다. 그러나 기정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집안의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또한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예배당 나가야 할 날에 집에서 뒹굴기라도 하면 오히려 “결국 그것도 꾸준히 못하는구먼”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예배당 출입 외에도 스케이트장으로, 수영장으로 꽤나 분주한 속에서 여고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나를 밖으로 불러낸 건 신앙심도 아니요, 스포츠에 대한 관심 또한 아니었던 것 같다.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 보고 싶은 청춘의 바람기 같은 것이었다고나 해야 할는지... 사내로 태어났으면 난봉 깨나 피웠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시던 할머니의 말씀도 그러고 보면 일리는 있었던 것 같다.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져 본 채 일생을 풍류객으로만 살았던 할아버지의 성격을 내가 일부나마 이어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학년 졸업반 때의 금강산 여행도 큰 추억거리의 하나다. 금강산이 생전 처음일뿐더러 서울 문 밖을 나가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금강산의 절경보다도 모처럼 얻은 자유의 시간이 더더욱 내게는 귀했던 것만 같다.

이화여전 시절 친구들

여고 졸업반에 접어들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구식 집안의 과잉보호의식과 맞부딪쳐야 했다. 노무라 선생은 일본 유학을 권유했고 나 역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지만, 수학여행 보내기조차 꺼리는 집안에서 외국 유학을 허락할 리 없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는 허용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딸자식을 전문학교까지 보낸다는 것만 해도 당시 집안 어른들로서는 대단한 양보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이화여전(梨花女專)이었다. 돌이켜 보면 완고했던 것은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숙명 동창



9. 이화여전 입학년 때 김자경(오른쪽)과 함께. 1935.
이화여전을 입학하면서부터 알게 된 김자경과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지속했다.



10. 김자경의 자녀와 함께 뉴욕에서,
맨 왼쪽이 김정숙. 1955. 4.

중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정충량과 나 단 둘뿐이었으니까. 그리고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때 내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행을 감행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어찌 보면 뒷날 미술을 하기 위해 나는 그때 한국에 남았던 것만 같다.

내가 이화여전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수표예배당 선교사 미스 베이커(Miss Baker)는 내게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했다. 피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처녀 하나가 이번에 역시 이화여전에 입학하게 되었다며 내 앞에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오늘의 저명한 성악가이며 민간 오페라 운동의 선구자인 김자경(金慈璟)이다. 가사과였던 나와 과(科)는 서로 달랐지만, 이렇게 입학 전부터 사귀게 된 자경이는 오늘까지 교분을 지속해 오고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벗 중 한 사람이다. 이화여전 시절 교내에서 처음으로 단발을 시도할 정도로 대담한 일면을 가지기도 했던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주위를 밝게 하는 그



11. 이화여전 이학년 때, 어느 눈 오는 날 교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뒷줄 왼쪽이 김정숙. 1936년 겨울. 김자경, 손인실, 이원숙, 조경희 등이 모두 이화여전 시절 사귀 친구들이다.

명랑함으로 친구들의 인기를 한몸에 모았었다.

그녀와 단짝이던 시절 나는 기숙사에 있는 그녀에게 고사떡을 갖다 주기 위해 밤길을 무릅쓴 일이 있다. 기숙사에 당도하고 보니 마침 묵학(默學) 시간이어서 전 사생(舍生)이 식당에 모여 공부 중이었다. 그러나 몰래 빠져 나온 자경이와 나는 그녀의 방에 숨어 떡 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몰래 먹는 떡 맛이란 어찌나 기막히던지... 그때 불시에 사감 선생이 들이닥쳐 두 사람은 중죄인으로 다스려졌지만, 친구와 고락(苦樂)을 함께 나누며 그 무엇보다 우정을 앞세우던, 순수했던 그

시절은 지금도 그림기만 하다. 묘한 인연으로 그때 그 무서웠던 사감 선생은 나중에 자경이의 계모가 되었다.

YWCA를 이끌고 있는 손인실(孫仁實)도 이화여전 이래의 오랜 친구다. 당시엔 북경(北京)에서 전학해 온 이색적인 학생으로 모두의 흥미를 끌었지만, 한국 말이 서툰 대신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있던 '앞선 인물'이었다. 스케이트 선수로 활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재주를 보였으며, 사람 좋기로도 그를 따를 인물이 별로 없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鄭京和)의 어머니 이원숙(李元淑) 역시 나와는 가사과 동창이다. 학교시절부터 밭살스러울 정도로 부지런을 떨더니, 결혼하고는 그 극성을 자녀 교육에 옮겨서 굴지의 음악가 남매들을 키워 놓은 사람이다. 당시 리포트를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것도 그요, 재봉 숙제도 하나만 내면 될 것을 둘씩, 셋씩 갖다 바치곤 했다. 그녀야말로 원산(元山) 출신의 또순이 중의 또순이었다.



12. 이화여전 재학시절 선배들의 졸업식 때. 오른쪽 치마저고리 입은 학생들 중 맨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정숙. 1930년대 중반.



13. 이화여전 일학년 때 승가사(僧伽寺)에서의 소풍 기념사진. 두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정숙.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숙이 친언니처럼 따르던 이태영(李兌榮) 씨. 1935.

여류 문인으로 자란 조경희(趙敬姬)는 당시 문과반 학생이었다. 통학길 친구였던 그녀와는 매일처럼 서소문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가슴속의 많은 얘기를 주고받곤 했다. 동창은 아니었지만 삼 년 선배였던 이태영(李兌榮) 여사의 학교 때 모습도 눈에 선하다. 잘생긴 용모에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녀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정일형(鄭一亨) 박사와의 열애(熱愛)로도 화제를 뿌렸다.

석학 박종홍(朴鍾鴻) 선생도 당시엔 서른 전후 한창의 나이로 교단에 서셨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학생들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먼 산에 시선을 돌린 채 강의하시던 모습이다.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어느 곁에 눈에 익혀 두었던지 자신이 가르친 제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기억해 주시는 점이였다. 젊고 잘생기고 또 멋쟁이였던 박 선생은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했다. 명강의 보다는 미남인가의 여부를 중시했던 것이 그때 여학생들이었는데, 경박하다는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여학생다운 일면이 아니었을까.

박 선생 외에도 이희승(李熙昇) 선생, 소설가 이태준(李泰俊) 등 훌륭한 강사진 아래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좀더 열심히 공부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연애시절

내가 지금의 남편인 김은우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수표예배당 시절의 일이지만, 정확히 얘기해서는 그가 배재(培材) 졸업반, 내가 숙명 삼학년 때였다. 그러니까 그가 학교로는 이 년 선배였지만 나이로는 일 년 위였다. 처음엔 그가 목사님 아들인 줄도 몰랐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공같이 땡땡했던 그는 명랑하고 우스갯소리 잘하는 호걸 타입이었다. 내겐 유난히 호의로 대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친절 역시 그의 성격이려니 하고만 여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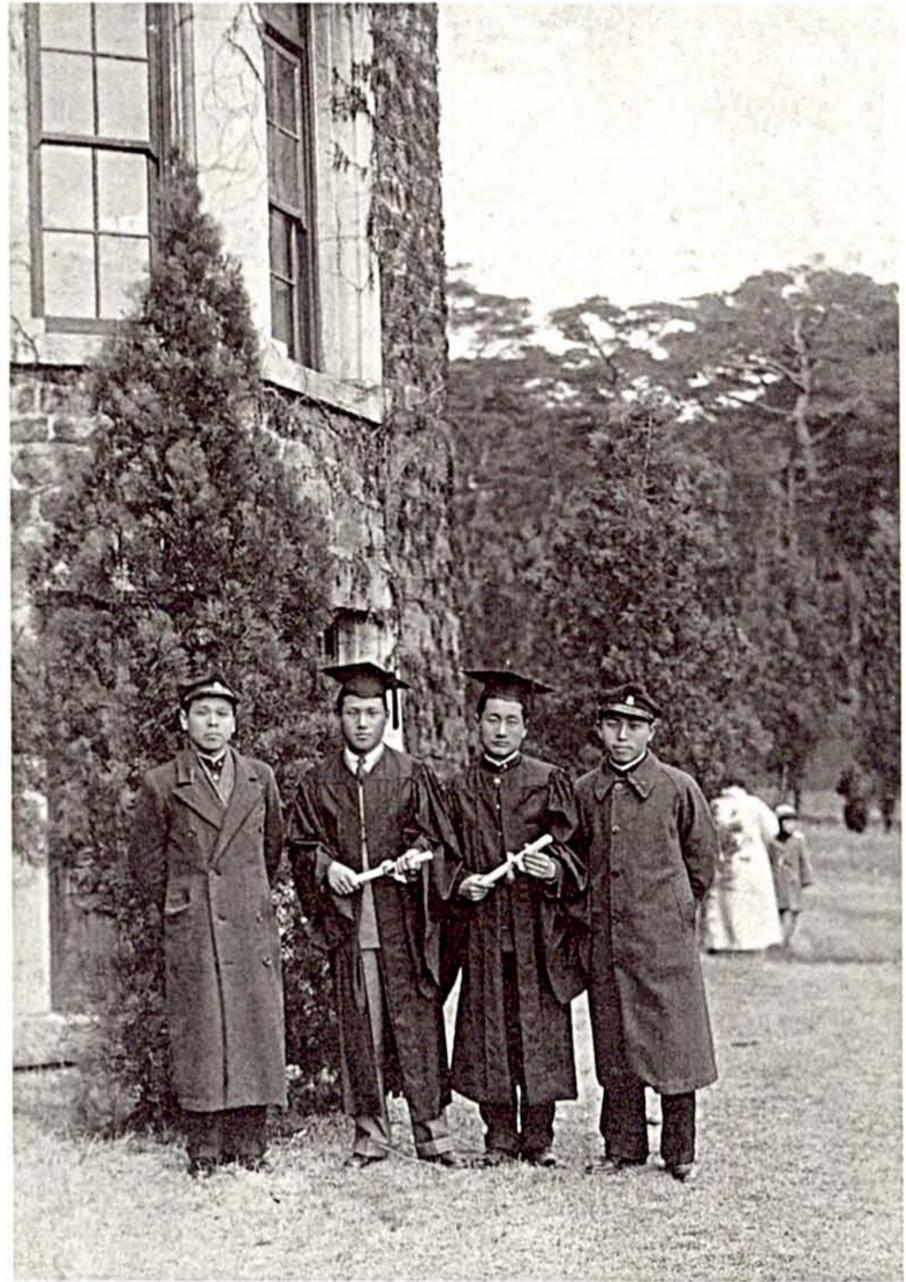
어느 날인가 삼청공원 스케이트장에서였다. 친구들 따라 스케이트장에 가고 싶었으나, 집에서 허락할 리는 없고 해서 이종오빠의 스케이트를 빌려 몰래 집을

빠져 나온 길이었다. 남자 스케이트화를 신고 보니 너무 커 끈으로 칭칭 동여매고는 엉거주춤서 있을 때였다. 하필 그때 저쪽에서 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창피해서 얼굴은 달아올랐지만 땅 위도 아니고 얼음판에서는 어떻게 피해 볼 도리도 없었다. “흥보지 마세요.” 궁지에 몰려 그에게 처음 건네 본 말이였다.

며칠 뒤 예배당에서 다시 만난 그는 내게 숙명여고 교가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남의 여학교 교가가 갑자기 궁금해졌을 리는 없을 테고, 아마도 꽤나

화제가 궁했던가 보다. 노트 종이에 대강대강 적어 준 교가를 받아 간 그는 그 답례인지 다음날 배재 교가를 한 부 가져왔다. 자로 그린 듯한 오선지 하며 활자처럼 또박또박 씌어진 가사 하며, 처음엔 인쇄물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그 교가 때문에 밤샘까지 했다는 사연은 뒷날에야 고백했다.

같은 예배당 같은 찬양대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데 별 불편은 없었지만, 집에 오는 길엔 골목길로만 다녀야 했다. 부부 사이라도 세 발자국 이상 떨어져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 만일 젊은 남녀가 만인이 보는 거리에서 붙어 다녔다가는 철면피로 몰리기 십상이었다. 예배당을 빼놓고 제이의 데이트 장소로는 당시 총무로 2가에 명치제과라는 다과점이 있었다. 학생을 상대로 차와 케이크를 팔던 명치제과는 오늘의 기준에서 본다면 건전하기 짝이 없는 만남의 장소였지만, 그때는 그곳 드나들기도 왜 그리 두렵던지... 비겁해서 그랬던지



14.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김은우(맨 오른쪽). 1935년경.

부끄럼이 많아 그랬던지, 그를 만날 때는 대부분 친구 하나씩을 옆에 달고 다녔다. 그때 동반해 준 친구가 숙명 동창인 장선규, 우태유, 안갑년 등이었다. 그중 안갑년은 수녀가 되고 난 뒤에 이화여대에 입학, 김은우 씨의 교육학 강의를 듣게 되었으니, 인연이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무엇인가 보다.

내가 일본 유학을 단념하고 이화여전에 입학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결과였지만 그 저변에는 김은우 씨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따라서 숙명 시절에 이어 나의 이화여전 시절은 그와의 연애로 점철됐을 뿐, 유감스럽게도 학구적인 방면으로 쏟아졌던 추억 같은 건 별로 없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결혼하게 되는 바람에 졸업도 못하고 전문학교 시절을 삼학년에도 중하차해 버리고 만 것이다.

배재고보를 졸업한 그는 요즘처럼 이화여전과 나란히 붙어 있던 연희전문(延禧專門)에 입학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소문 간이역에서 같은 기차를 타고 통학길에도 동반해서 다녔다. 당시 이대와 연대는 수업시간이 서로 비슷해서 서소문 신촌 간의 열차는 연대생과 이대생들만의 통학열차나 다름없었다. 집안에선 친척오빠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한 남녀유별 속에서 자랐건만, 그런 내가 연애에 앞장서다니... 그리고 보면 교육만으로 한 인간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인간에겐 각자 개성이란 것이 있으니까. 어릴 적부터의 과보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리지 않고 이만큼 내 뜻대로의 인생을 살게 된 것 또한 나의 개성이 아니었을까.

그와의 연애시절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하나로 가슴에 새겨져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학창시절을 너무 연애에만 열중한 나머지 좀더 폭넓은 체험을 해 두지 않은 것은 못내 후회스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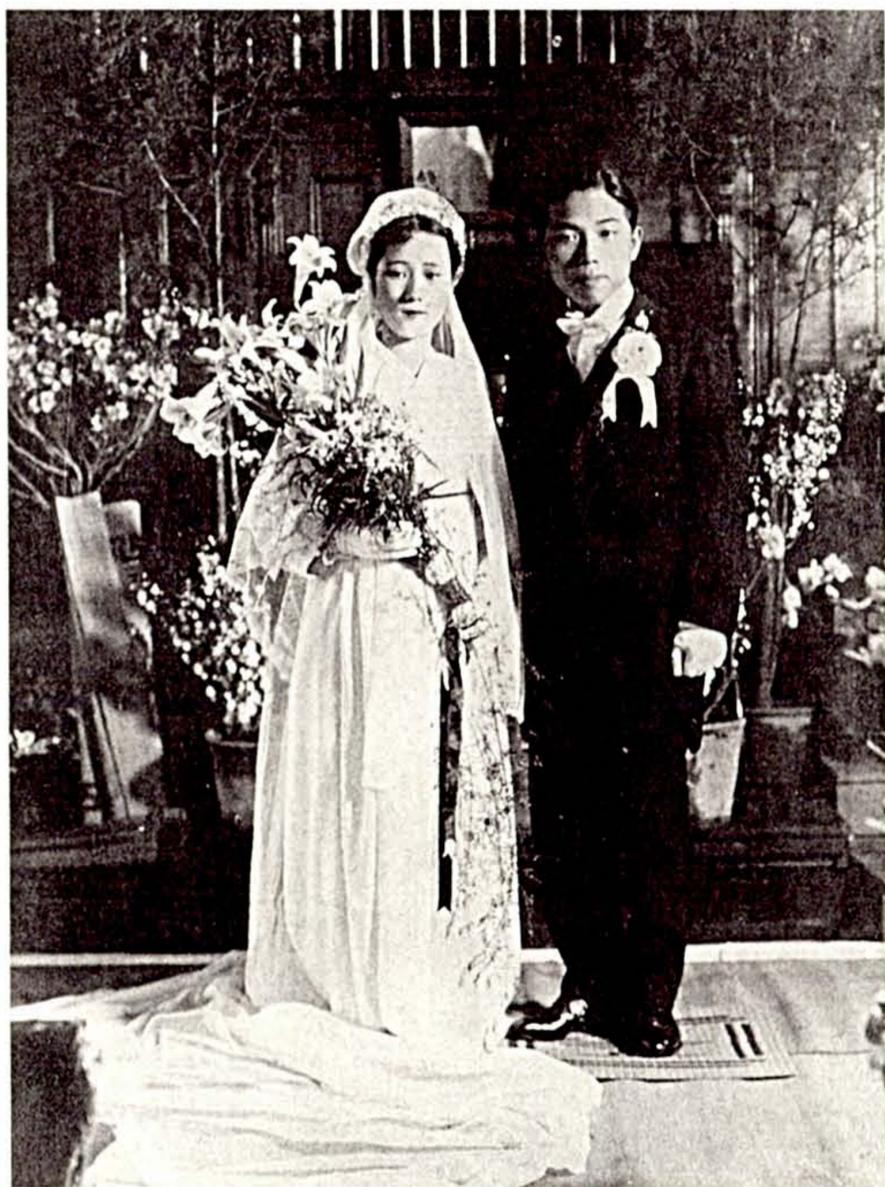
금강산 여행

내 인생에서 첫번째 만난 남자인 김은우 씨와의 로맨스가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엔 몇 고비의 가슴 죄는 순간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집 쪽이었다. 기독교 가정이었던 김은우 씨 댁은 놀랄 정도로 개방적이었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화여전 이학년 때였나 보다. 예배당에서 금강산으로 수양회를 떠나기로 돼 있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집안의 반대를 예상하고 초조해진 나는 같은 교회 전도부인에게 원조를 청했다.

그 부인의 보증으로 겨우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던 나는 모처럼의 해방감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때 김은우 씨가 동행 중의 한 사람이었기에 즐거움은 배로 커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며칠 안 돼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아버님께서 느닷없이 동생을 앞세우고 수양회 장소에 나타나신 것이다. 다 큰 딸자식을 밖에 내놓고 불안해 하시는 심정 모를 바는 아니나, 이렇게 심산유곡에까지 감시차 행차하실 줄은 몰랐다. 당황했던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감시받아야 할 장본인 김은우 씨 역시 몸둘 바를 모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때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그에게 충고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인사도 올릴 겸 장인 되실 어른과 한번 부딪쳐 보라는 것이었다. 충고에 따라 아버지가 머물고 계신 여관을 찾아간 김은우 씨는 다짜고짜로 절부터 올리고는 자기소개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때 아버지께서 무표정한 채로 “딸자식 하나 버렸군” 한마디만 하시더라나.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에 아랑곳없이 조석으로 찾아 뵈고 문안을 올렸더니, 내내 표정이 없던 분이 일주일째 되던 날엔 ‘빙긔’ 하고 웃음을 보이셨다는 것이다. 작전이 바로 성공한 셈이었다. 원래 말이 없



15. 정동교회에서 김영섭(金永燮) 목사의 주례와 김메리 선생의 웨딩 마치로 진행된 김은우와의 결혼식. 1937. 5. 1.

는 분으로 못마땅한 일은 한숨으로나 표시하시던 아버지가 웃음을 내보였다면 반승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었다. 유교 가정과 기독교 가정이 결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일 수 없었기에 완전승낙이 떨어지기까지엔 시일이 필요했다. 결국 개방적인 시대 쪽에서 한 걸음 양보해야 했나 보다. 정식 청혼차 시아버지께서 먼저 우리 집을 방문해 오신 것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두루마기에 갓을 쓰시고 한껏 외관을 정제하여 사랑에서 손님을 맞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께서 뒷날 나의 손윗동서를 앞세우고 와서 할머니를 만나 뵙고 돌아가셨다. 며칠 뒤엔 그 답례로 아버지께서 시댁을 찾아가시고 할머니께서도 뒤따라 다녀오셨다. 그것이 아마도 옛날 격식이었던가 보다. 이렇듯 복잡한 절차를 밟아 약혼이 이루어진 후엔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었다. 어떤 일이건 일단 허락한 일에 대해선 성의있게 뒤를 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집안 어른들이었기 때문이다.

약혼 이듬해인, 내가 이화여전 삼학년 때였다. 큰시아주버니가 되는 김용우(金用雨) 씨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떠나시게 됐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맏아들과 맏며느리를 떠나 보내고 쓸쓸해지신 시아버님이 새 며느리를 맞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나로서는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할 겨를 없이 삼학년에 이화여전을 도중하차해 버리고 만 것이다. 1937년 5월 1일 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하루아침에 학생 신분에서 한 사람의 아내요, 며느리로 변신해 버린 나는, 시아버님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정동교회 목사 사택에서 풋내기 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못내 한이 되어 내 가슴에 남았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언제가 되든 대학은 꼭 졸업하도록 돕겠다는 약속으로 나를 달랬었는데, 비록 십여 년 후에나마 그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졌다. 이미 세 아이를 둔 중년 부인으로서 나는 다시 대학(홍익대) 문을 두드렸고, 미술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새로 출발됐던 것이다.

신혼시절

나의 신혼시절은 정동교회 목사 사택에서 시작됐다. 방이 없어 광을 개조해 쓰는 형편이었으나, 그 정도의 물질적인 불편쯤 불편으로 느끼지도 않을 만큼 젊음과 행복에 넘쳤던 시절이었다. 목사 며느리라는 새로운 입장에 놓이게 된 나는 여전히 찬양대원으로 나오는 옛 친구들을 맞으며 야릇한 감회에 젖곤 했다.

일 년 뒤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할을 맞게 됐다. 장남 인회(仁會)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연희전문을 졸업한 남편이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의 신혼도 중단돼야 했다. 시간을 붙들 어매도 모자랄 신혼기를 도중에 끊어야 하는 심정은 귀중한 무엇을 도둑맞은 듯 허전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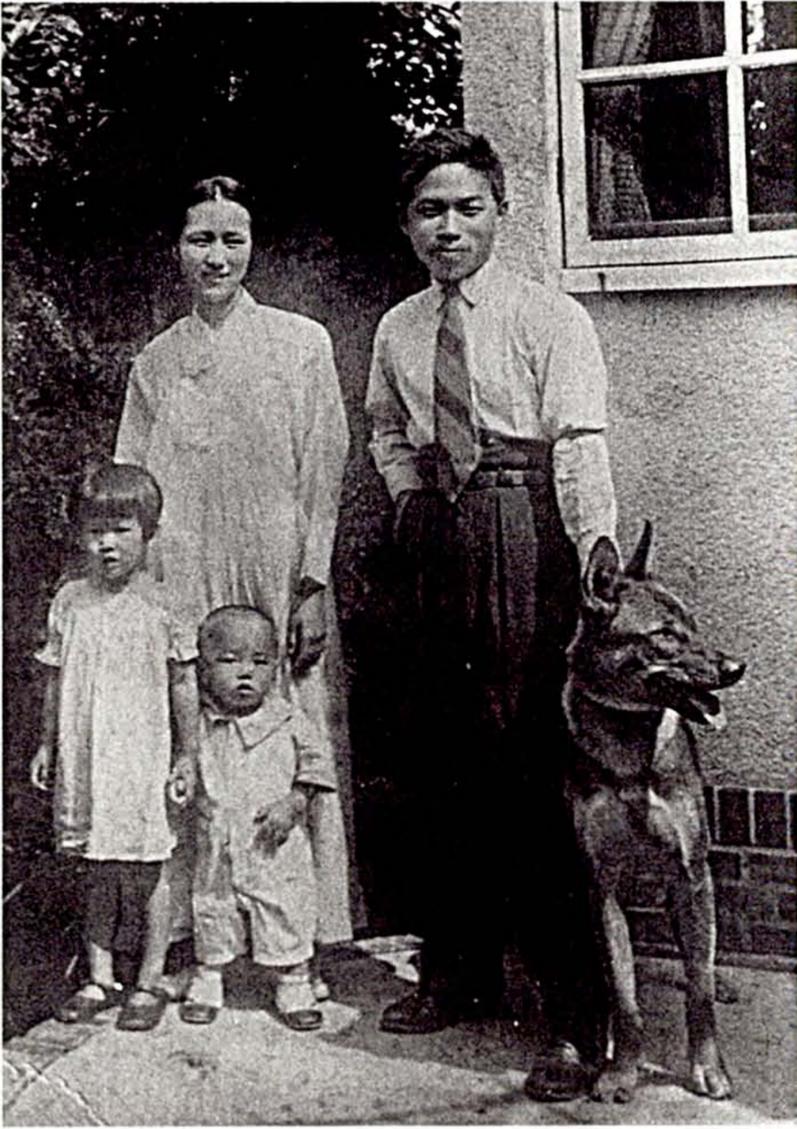
남편이 릿쿄 대학(立教大學) 철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오 년의 세월을 나는 어머니의 길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아이나 기르며 지내는 정적(靜的)인 생활은 내 성격에 견디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또 길에서 다정히 걸어가는 젊은 남녀만 보면 어찌나 부럽던지... 내 곁에선 항상 아이들이 위안이 되어 주었지만, 그들이 남편 몫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다려지는 건 일 년에 두 차례의 방학뿐이었다. 방학이 시작하기 무섭게 남편은 내게로 달려오곤 했다.

남편이 유학 떠나던 해 여름방학 때였나 보다. 피서 갔다가 패혈증(敗血症)을 얻은 시아버님이 그 해 가을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다. 나의 인생 항로에서 등대 같은 존재였던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한국감리교회의 초대감독이었던 시아버님 김종우(金鍾宇) 목사는 시아버지 며



16. 정동교회 목사 사택에서의 새색시 김정숙의 모습. 1937년경.



*My dear three darlings
1940. 9/26
mother's birth day*



17. 신혼시절, 남편
김은우(오른쪽), 조카딸
순희(順會, 왼쪽, 김은우의 형
김용우 씨의 장녀), 맏아들
인회(仁會, 가운데)와 함께. 1939년경.



당시 남편은 일본 유학을 떠났고,
일 년에 두 번인 방학 때에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다.

18. 김정숙의 (음력) 생일을 맞아
두 자녀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앞줄 사내아이가 맏아들 인회,
무릎 위의 여자 아이가
딸 혜영(惠英). 1940. 9. 26.

19. 다복했던 수표동 시절.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맏아들 인회, 딸 혜영, 남편 김은우,
막내아들 철회(哲會). 1947년경.

20. 시아버지 묘소에서
남편 김은우(가운데), 이영세
선생(왼쪽), 아들 인회(앞줄)와
함께. 1944년경.

느리의 관계를 떠나서도 마음으로 늘 존경했던 분이다. 완전한 기독교인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오늘의 내가 이만큼이나마 신앙심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목사 시아버님 덕택이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발을 들여놓았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나도 모르는 새 이끌려 들어가 오늘까지 자연스레 머물러 남게 된 건 시아버님의 영적인 힘에 이끌린 결과로 생각된다.

1944년 릿쿄 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남편은, 중앙보육학교(中央保育學校)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징용 대상에 올라 함경북도 광산촌으로 가게 됐다. 때마침 거리에 나갔던 나는 남편과 연희전문 동창이며 당시 『경성일보』 기자였던 강영수(姜永壽) 씨를 만났다. 남편의 처지를 듣고 난 그는, 다음날로 선뜻 남편을 경성일보사에 채용시켜 줌으로써 징용을 면할 수 있게 해준 잊지 못할 은인이다. 그때 기억이 남아서인지 요즘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분께 먼저 달려가고 싶어진다.

1945년은 ‘광복의 해’로 온 겨레가 감격의 물결에 휩쓸렸던 한 해였지만, 나 개인으로는 지우고만 싶은 한 해였다. 그 해 봄, 네 살짜리 둘째아들이 발진티푸스를 앓다 하루아침에 내 곁을 떠나 버린 것이다. 그때 상심한 나머지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나를 걱정해 주고 장례를 주선해 준 것은 수포 예비당 시절 이래의 은인 이영세 씨였다. 오랜 친구란 이다지도 든든하고 소중한 것인가. 지난날의 신세를 갚을 새 없이 어느새 또 새 빛이 쌓이고 말았다.

세월이 약이라곤 하지만 둘째가 남긴 상처는 좀처럼 쾌유되질 못하다가, 막내 철회(哲會)가 새로 태어난 뒤 새 생명에 사랑을 쏟음으로써 조금씩 아물어 갔다. 그 막내를 웬만큼 키워 놓고 난 뒤 나는 취직을 결심했다. 취직을 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압박이 심했던 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나의 성격상의 문제였다. 평범한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 바야흐로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다고나 할까.

군정하(軍政下)였던 당시, 하지(Jr. Hodge) 장군의 고문으로 있었던 이묘묵(李卯默) 씨의 주선으로 미 공보원(USIS) 도서관에 쉽게 취직할 수는 있었으나, 그때의 직장은 내게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맡게 된 일은 사서직이어서 쓰고 기록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틀에 박힌 것, 사무적인 것은 도대체 내 생리하곤 맞질 않았다. 시간관념도 희박하고 직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내가 그곳에서 육 개월이나 버텨낸 게 신기할 정도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꼭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나를 가정에서 불러내고 다시 직장에서도 불러내서는, 마침내 오늘의 미숙하는 나를 만들어낸 것 같다.

마담 조각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부 개화했다는 사람들 사이엔 영어열(英語熱)이 대단했다.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 있지 않기 위해서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필수 수단이었지만, 내 경우엔 또 다른 계산이 있어서였다. 결혼하고 애들 셋씩이나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한구석엔 늘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당장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지만 준비단계로서 우선 영어 공부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당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를 통해 회화를 익혀 갔다. 나는 교회의 영어 성경반에 열심히 나갔을 뿐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의식적으로 미국인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자 애썼다. 그때 나처럼 영어열에 불탔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굿 라이프 소사이어티(Good Life Society)’라는 것이 있었다. 현 법무부 장관 이종원(李鐘元) 씨도 그때 고려대 학생으로 이 모임에 드나들었고, 한국외국어대 초대학장 박술음(朴術音) 씨, 세계 여선교회 회장 김옥라(金玉羅) 씨, 영문학자 나영균(羅英均) 씨 등의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당시 멤버였다. 영어를 익히려는 것이 물론 일차 목표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 ‘굿 라이프 소사이어티’라는 명칭이 나타내 주듯이, 인생을 엔조이(enjoy)하는 기술을 함께 터득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사교(社交) 또한 중요시됐다.

이 그룹 미팅을 이끌어 간 인물은 일제시대부터의 선교사이며 연세대 영문학

교수로도 오래 있었던 어네스트 피셔(Ernest Fisher) 씨였다. 그는 선교사로서는 파격적인 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격식에 얽매이질 않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선교사 냄새를 피우지 않는 트인 인물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신앙심에 있어선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았으니, 그분이야말로 '굿 라이프 소사이어티'의 리더답게 인생을 아는 멋쟁이였다. 맘에 드는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지 아니면 종교와 가정을 양립시키기가 번거로웠던지 끝내 독신을 지켰던 그는, 이제는 은퇴해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과 한국인을 못 잊는가 보다. 몇 해에 한 번씩 노구(老耇)를 이끌고 한국에 나와서는 옛 제자들과 '굿 라이프 소사이어티' 시절을 추억하곤 한다.

육이오 직전까지 계속됐던 이 모임을 통해 나는 영어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닦을 수 있었다. 학교시절 배운 영어라야 일본식 영어였던 만큼 수박 겉 핥기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1949년은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해이다. 버르고 버르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젠 삼남매 아이들도 웬만큼 자랐고 어머니로서의 의무도 어느 정도 치러냈다고 생각한 나는, 평생 한이었던 대학 문을 다시 두드린 것이다. 처음부터 미술을 고집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하느라 중단해 버린 학업을 마저 마쳐야겠다는 일념이 앞섰고, 평범한 가정생활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야심을 어떤 식으로든 발산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려다 보니 자연 해결됐다. 인형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뭐든지 손으로 하는 일에 취미가 있었던 나는 별 주저 없이 미술과를 선택했다. 미술이 그런 단순한 손재주만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지만.

마침 그때는 홍익대 내에 미술학부가 창설될 무렵이어서 미술학부장으로 있던 윤희중(尹孝重) 선생을 남편이 찾아 나섰다. 결혼하면서 대학은 꼭 졸업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남편이 잊지 않고 이행해 준 것이다.

막상 학교에 들어가 보니 학생들은 모두 나보다 손아래였고 누님뻘의 나에겐 '마담 조각'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

는 의식이 무의식 중 작용했던지, 나는 일요일도 없이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힘드는 줄 몰랐다. 오랜 세월 방황 끝에 뒤늦게야 '나의 길'을 발견해낸 서른세 살의 만학도에게, 공부는 부담이기는커녕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는 스승

조각가로서의 나의 첫 스승은 윤희중 선생이다. 내가 홍대에 입학할 당시 미술학부장으로 계셨던 선생은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출신의 초창기 조각인으로서, 내가 조각이란 예술에 눈뜨게 되기까지 기초를 닦아 주신 분이다. 우리나라의 조각가 중 최초로 이탈리아에 다녀온 것도 그분이요, 처음으로 마리노 마리니(Marino Marini)를 흉내낸(이렇게 말해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작품을 선보인 것도 바로 그분이다.

윤희 선생과는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 왔지만, 내가 그분과 붙어 다닌 데는 인간적인 끌림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이제 갓 발을 들여놓은 풋내기로서 미술계의 움직임엔 어두울 수밖에 없었지만, 한창 야심에 차 있던 나는 윤희 선생을 통해 단숨에 많은 것을 알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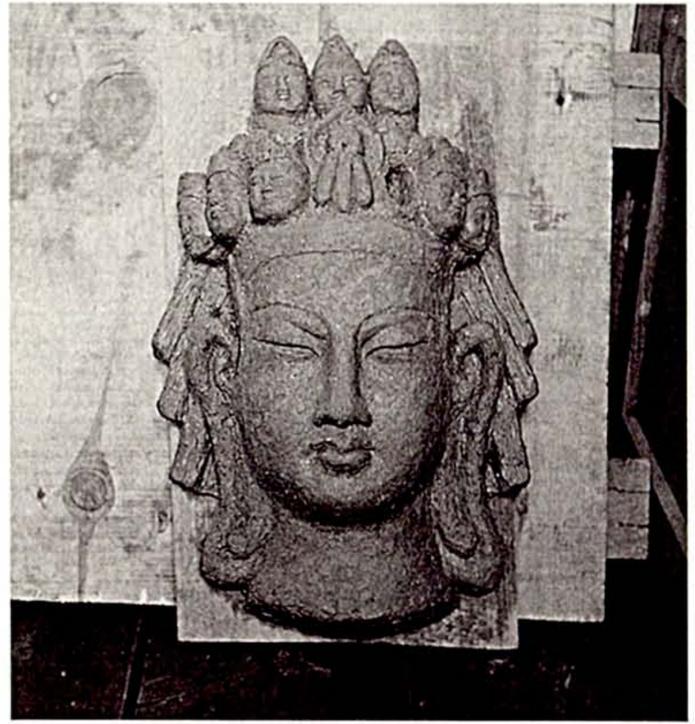
또 미술계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를 잡기 위해선 윤희 선생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도상봉(都相鳳), 고희동(高羲東) 선생 같은 한국 화단의 원로들을 윤희 선생이 아니었다면 내가 감히 만나 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수화(樹話) 김환기(金煥基)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부산 피난시절이었다. 홍대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 육이오가 터지면서 수업은 부산에서 계속됐다. 그때 강사로 계셨던 선생은 키도 훗칠했지만, 얼굴도 길고 다리도 길고 뭐든지 길었던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베레모가 인상적이었던 김 선생과 함께 떠오르는 것은 졸업한 수학여행 때의 추억이다. 버스가 목적지인 경주(慶州)에 닿은 것은 한밤중이었던 것 같다. 불국사(佛國寺)까지 들어가는 길은 컴컴하기만 한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그 구성진 가락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꿈결인 듯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어스름 달밤에 길 가는 나그네가 누구든지 한 잔 들

이킬 수 있게 명석 위에 차려졌던 그때 그 술상만큼 운치있는 술상은 이후 다시는 대해 보지 못했다. 그때 그 고색창연한 한옥도 멋들어졌지만, 그 집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구수한 가락과 함께 달빛 속에서 들이켜던 동동주의 맛은 두고두고 미각을 자극하곤 한다.

이튿날 새벽엔 석굴암(石窟庵)을 올랐다. 나는 준비했던 흙으로 십일면관음상(十一面觀音像)의 그 유명한 얼굴을 가슴 두근거리며 스케치해 나갔다. 자세한 디테



21. 홍익대 재학시절, 수학여행 때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을 현장에서 스케치해 온 점토 원형, 1952. 습작인데도 정교함과 균형미가 엿보인다.

일을 놓지 않고 큼직큼직 아우트라인(outline)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신선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작품이었고 수학여행의 추억이 서려 한층 애착이 가는 작품 중의 하나였지만, 아깝게도 나중에 불타 버리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엔 버스가 중간에 고장이 나 버렸다. 언제 고쳐질지 몰라 일행은 일단 여관에 들긴 했는데 아무에게도 돈이 남아 있질 않았다. 모두들 당황했지만 특히 수화 선생은 더했다. 팔뚝시계를 돈 대신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고 난 선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거꾸로 물고 불을 붙이시는 게 아닌가.

피난시절 같이 고생했던 동료로는 박석호(朴錫浩) 씨를 들 수 있다. 막 피난을 내려가서 학교도 열기 전 우리는 모두들 영도(影島) 다리 건너 대한도자기회사에 다녔다. 거기서 점시에 그림을 그려 팔기도 하고 필요한 흙을 얻어 쓰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때면 같이 카드 그림도 그려 가며 어렵게 살았는데, 세월 흐르다 보니 이젠 그도 나도 모두 '중견' 소리를 듣는 형편이 됐다.

지금은 홍대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김원(金源) 선생의 새파랗게 젊을 적 모습도 눈에 선하다. 당시 미술해부학 강의를 맡으셨던 선생은 실력 면에서보다는 멋쟁이로서 이름을 날렸다. 양복 바지에 칼같이 줄을 세운 신사를 보면 모두들 김원 선생 같다고들 했으니까.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는 데 있어 남편만큼 절대적인 후원자는 둘도 없었던 것 같다. 피난의 와중에서도 내가 작품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에 아틀리에를 손수 만들어 줄 정도의 열렬한 외조를 해주었다.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함께 나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여자가 가정 밖에서의 세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가족들의 외조는 필수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내가 무언가 하나의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절반의 몫은 이들의 공이 아닐 수 없다.

각별한 친구들

부산 피난시절은 슬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얼룩진 추억들을 남겨 놓았지만, 내게 있어선 그렇게 어두웠던 시기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의 사귄 속에서 자신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었던 '결실의 시기'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때 북새통 속에서 알게 된 천경자(千鏡子) 씨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느덧 지기(知己) 중의 한 사람이 돼 버렸지만, 당시엔 미술 인구가 별로 없는 데다 여자라면 더욱 귀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끼리는 서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東京女子美術專門學校)를 마치고 당시 이미 본격적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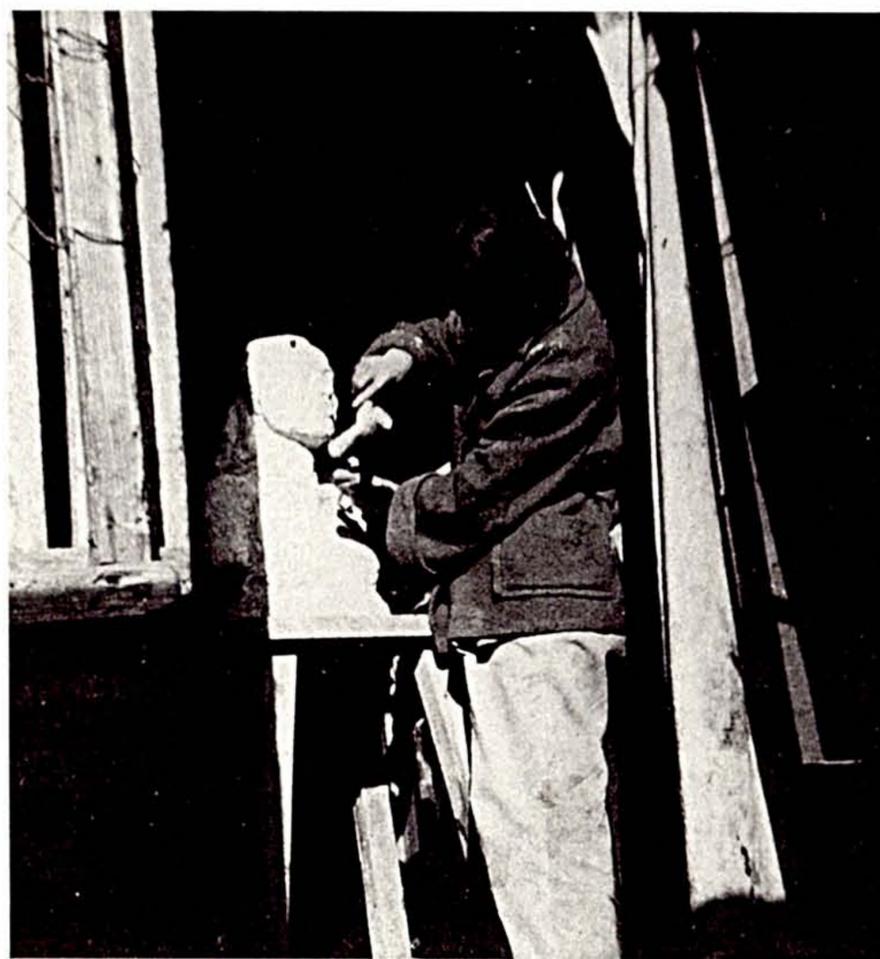
22. 칠보·금속 공예가 김기련(金琦連) 씨의 귀국 개인전에서. 맨 오른쪽이 천경자 씨, 그 옆이 김정숙. 1968. 천경자 씨는 부산 피난시절 알게 되어, 이후 오랜 기간 사귀어 온 지기(知己)이다.

에 들어가 있던 그는, 마침 부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 무엇에 홀렸던지 우리는 첫 대면 이후 부산 시절 내내 거의 매일이다시피 붙어 다녔다. 내가 보기엔 그는 원래부터 예술가로 타고난 사람이라 여겨진다. 그의 미술에 대한 천분(天分)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생각하는 바나 행동하는 바가 그렇고, 또한 그의 글을 봐도 분명해지는 사실이다.

당시에 그는 김남중(金南中) 씨와 열애 중이었는데, 그의 순수한 연애는 또 한 번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부 예술가연하는 무리 중엔 문란한 사생활을 예술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인 양 변명해 넘기는 예가 비일비재했고 보면,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더욱 귀해 보였는지 모르겠다.

둘이 다 퍼먹는 술은 아니었지만 그는 술친구로도 더없이 좋

은 상대였다. 술잔을 앞에 놓고 앉아 숨김없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털어놓는 친구 앞에서는 나 또한 마음을 열어 젖히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그가 자서전 쓰는 걸 봐도 그렇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겪은 일을 조금의 가식도 없이 그대로 적어 놓았는지... 가끔 가다 머리를 이상스레 자르고 나타나서는 “너무 속이



23. 환도 후 서울에서 「코리안 리퍼블릭」의 직원들과, 당시 이사장이었던 변영로 선생(맨 왼쪽)과 함께. 1950년대 중반경. 부산 피난시절 알게 된 수주 변영로 선생과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분을 갖게 된다.

24. 육이오 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간 홍익대 재학시절 작업 장면. 1953.

어려운 시절에도 김정숙은 조각가로서의 꿈을 잃지 않았다.



25. 환도 직후 돈암동 자택에서의 모습. 1954. 1.

상해 잘라 버렸지. 이제 좀 후련한 것 같아” 하고 말할 때는 알 듯 모를 듯 묘한 친구로 느껴지기도 한다. 소탈하고 솔직한 사람이지만 까다롭기로 따져도 또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 예술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이고 자기 주장 또한 지나치게 강한 편이다. 다행히 그의 경우엔 그런 문제점들을 능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부산 시절 문화인들이 모이는 다방으로는 광복동의 청동 다방과 피가로 다방이 있었다. 그때 그곳에서 뵈게 된 분 중엔 김말봉(金末峰), 오상순(吳相淳), 변영로(卞榮魯) 선생 등 원로 문인들이 많았다. 특히 오 선생 주위엔 언제나 선생을 따르는 문학청년들이 들끓었다. 선생은 언제나 무일푼으로 다니셨지만 청년들의 염출(捻出)로 담배와 술은 끊일 새가 없었다. 내가 술을 처음 배운 것도 아마 오 선생의 일행들과 함께 몰려다니던 그 시절이었나 보다. 공초(空超) 오상순 선생이 ‘줄담배’로 유명했었다면, 수주(樹州) 변영로 선생은 ‘부대술’로 이름 내야 할 분이다. 모임이 있었다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술병을 입에서 떼지 않는 분이었으니, 사모님계선 일생을 술 뒷바라지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최정희(崔貞熙) 씨, 박화성(朴花城) 씨 등의 여류 문인들도 모두 피난시절 이래의 구우(舊友)들이다. 박화성 씨는 연로했던 관계로 친구라기보다는 어른으로 모셔 왔지만, 평범해 보이는 외모 속에 깊은 내면을 감추고 계신 분으로 내게 은연중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던 최정희 씨와도 이제는 길이 서로 달라진 탓인지 적조해져 가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환도(還都) 후엔 문화의 중심이 모나리자 다방과 동방 살롱으로 옮겨졌다. 질

서가 채 잡히지 않았던 시절, 문화 전반에 걸친 정보의 센터 구실을 한 것이 바로 그 두 개의 다방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들러서는 하루종일 살다시피 하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그때 동방 살롱 단골의 한 사람이었던 이화여전 친구 조경희(趙敬姬)는 나의 첫 작품 〈회상〉을 신문에 내 주고 또 나의 서툰 수필까지 실어 주어 가면서 나를 조금씩이나마 세상에 소개하려 애써 주던 기억이 난다.

남편을 미국 유학 떠나 보내고 혼자 쓸쓸히 남아 있던 내게 동방 살롱 친구들의 훈훈한 인정은 커다란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모나리자 다방

모나리자 다방 하면 떠오르는 얼굴 중의 하나가 바로 원로 시인 모운숙(毛允淑) 선생이다. 동방 살롱과 함께 환도 후 예술인들의 총사무실 구실을 했던 모나리자 단골 중의 한 사람인 모 선생은, 이화여전 선배이기도 해서 내게는 ‘운숙 언니’라는 호칭이 한결 자연스럽다.

타고난 사교가(社交家)였던 운숙 언니 집에서는 줄 잇듯 파티가 잦았는데, 때마다 언니는 잊지 않고 나를 청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명성으로만 접하던 각계 인사들과 손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김광섭(金光燮) 선생, 이현구(李軒求) 선생 등은 모두 언니 집에서 자주 뵈던 분들이다. 이미 부산 피난시절부터 언니 집엔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송도(松島)의 언니 집은 정취도 그만이었지만, 드나드는 인사들 또한 주위의 빼어난 풍광에 못지 않은 당대의 풍류객들이었다.

언젠가 현제명(玄濟明), 이은상(李殷相), 이흥렬(李興烈) 선생 등과 자리를 같이했을 때다. 술에 취하고 친구에 취하고 또 자연에 취하며 취흥은 무르익어만 갔다. 그때 흥에 못 이긴 현제명 선생의 입에선 자작곡(自作曲)의 노래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바닷바람에 흠어지던 그 노랫소리와 그때의 낭만은 나를 자꾸 옛 추억 속으로만 줄달음치게 한다.

운숙 언니의 리더십이야 크게는 펜 클럽(Pen Club)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두드러졌지만, 작게는 친구들과 사이의 계 모임에서도 심분 발휘됐다. 서로 좀더 자

주 만나자고 조직된 당시 친목계 멤버로는 전숙희(田淑禧), 조애실(趙愛實) 씨 등 문인들이 주류였다. 아무튼 어딜 가든 무언가를 하나 이루어 놓고야 마는 언니를 보고 있노라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초인(超人)을 눈앞에 보는 듯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애실 씨도 원래 모나리자의 멤버였다. 어느 날 다방에 웬 여자가 군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게 그렇게 멋쟁이로 보일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종군(從軍) 작가 조애실이었다. 남자처럼 활달한 성격, 어느 구석에 그런 재주를 감추었던지, 바느질이고 음식 솜씨고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궁기(窮氣)가 흐르기는커녕, 개성껏 모양을 낼 줄 알았던 그의 센스는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현실과 담을 쌓고 고고한 시인으로 지내기에 너무나 행동적이었던 그녀는, 양복을 지어 팔기도 하고 손수 도라지를 구워 장사에도 나서더니, 육십 객이 다 된 요즘엔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외에도 손소희(孫素熙), 김남조(金南祚), 홍윤숙(洪允淑), 박경리(朴景利) 씨 등은 모두 환도 후의 불안정했던 시절 친근했던 이름들이다. 이제 모두들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난 지금에 와선, 오히려 어수선했던 그 시절 한데 어울려 다니던 때의 정분이 그리기만 하다.

돌아간 분이지만 우향(雨鄉) 박래현(朴來賢) 씨도 환도 후의 교유록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다.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선생에 대한 헌신적인 내조는 알려진 대로지만, 그분 생시 성북동 댁을 드나들면서 느낀 것은 ‘우향 없이 운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운보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나, 내 보기엔 우향 쪽이 보다 현대에 어필하는 화가가 아니었나 싶다. 운보도 물론 다재다능하고 박력과 실력을 겸비한 대가(大家)임에 틀림없지만, 나로서는 색감이라든지 구도라든지 같은 여성인 우향 쪽에 더 끌리는 것 같다. 화단에 모던(modern)과 추상(抽象)의 새 물결을 일으킬 정도로 앞서 있었던 우향이었지만, 자신은 항상 뒷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했다. 남편을 앞세우기 위해선 자신의 야심쯤은 쉽게 저버리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한 여성으로서의 우향은 화가로서 못

지 않게 출중했던 존재로 내 기억에 남아 있다.

미 공보원 도서관에 이은 나의 두번째 직장은 현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의 전신인 『코리안 리퍼블릭(Korean Republic)』이었다. 환도 후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아마 일 년 넘게 다녔나 보다. 남편은 혼자 미국 유학을 떠나고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이라 모교인 숙명여고 교사로도 출강하면서 이중으로 뛰었다.

영자지(英字紙)였던 『코리안 리퍼블릭』에서의 나의 직책은 광고 모집원으로서, 지난 피난시절 이래 여기저기 안면을 넓혀 둔 덕분에 맡은 일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치러낼 수 있었으나, 갑작스런 미국행으로 제이의 직장생활 또한 중단되고 말았다.

미국 유학

나의 첫번째 미국행은 1955년 한미재단(韓美財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재단측에선 분야별로 이곳 예술가 세 명을 뽑아 유학길을 열어 주었는데, 작품사진 보낸 것이 다행히도 심사에 통과되어 미술 쪽에선 내가 가기로 된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막상 떠나게 되고 보니 아이들 일이 자꾸 걸려 마음은 어두워져만 갔다. 아무리 예술이 좋다 한들 아이들보다야 중할까.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등한히 해도 좋은 것일까. 회의와 번민의 나날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밖에서 뛰어 놀던 막내가 다리를 부러뜨렸다. 떠나기 바로 십여 일 전이었다. 바야흐로 갈등은 극에 이르렀고, 한편으로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은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들은 쉽게 나았고 곤경 속의 나를 건져 주었던 것이다. 그때 녀석은 국민학교 이학년이었던가, 내가 배 소식을 기다릴 때는 옆에서 “어서 떠나셔야 할 텐데” 하며 어른스레 같이 걱정해 주던 녀석이 바로 막내였지만, 정작 내일 모레로 출발 날짜를 받고 나니 도로 어린애로 돼 버리는 것이었다. 밤이면 내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는 가슴을 더듬으며 “엄마가 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하고 매달리던 녀석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던지, 그때의 그 용기랄지 독기랄지는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다.

부산에서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일단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기는 했으나,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나는 종착역에 닿을 때까지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어찌나 서럽게 울어댔던지 옆에 앉았던 아저씨 한 분은 영문도 모르는 채 나를 동정해 마지않는 눈치였다. “무슨 일인지 대단히 슬픈가 본데, 하지만 이제 그만 울고 이거나 드시소” 하며 꿀도 내밀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권해 왔지만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부산역에서 나를 맞아 준 것은 서울에서부터 알았던 조순복(趙淳福) 소령이었다. 배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그는 나를 자기 애인 집에 묵게 해주었고, 밤이면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끌고 다니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나의 슬픔이



26. YWCA 회원들과 전방 위문 갔을 때의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숙, 다섯번째가 김정숙이 언니처럼 따르던 시인 모윤숙(毛允淑). 여섯번째가 이화여전 동창 이달남(李達男). 1954. 6. 이달남과 모윤숙은 김정숙이 유학 떠날 때 서울역에 나와 환송을 해주기도 했다.

잠시나마 잊혀질 수 있도록 애써 준 고마운 분이다.

조 소령이 아니었더라면 나의 첫 도미(渡美) 길은 손 흔들어 주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여행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조 소령은 애인과 함께 항구까지 따라 나와서는 몇 사람 몫의 따뜻한 배웅을 해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먼 뱃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저것 마음 써 주던 그 자상함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다.

부산에 도착하고도 배를 타기까지는 며칠을 기다려야 했는데, 배는 내가 오르고 난 뒤에도 출발할 생각을 안했다. 알고 보니 내가 탄 배는 화물선으로, 선객(船客)이라야 특별손님인 나 하나뿐이었고, 배는 짐을 싣고 일체의 지상 사무를 마친 다음에야 떠난다는 것이었다. 결국 배 위에서 이틀을 기다린 뒤에야 선체(船體)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일 놀랐던 것은 손을 흔들어 주던 조 소령도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는 감회에 젖은 채 자리에 들러 했을 때다. 웬 시커먼 남자 하나가 내 방안으로 불쑥 들어서게 아닌가. 가뜩이나 불안하던 차에 처음엔 괴한의 습격을 받은 줄로만 알았다. 알고 보니 침입자는 다름 아닌 그 배의 선장이었고, 기항지에서 마셨던 술이 지나쳐 자기 방을 못 찾고 내 방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이튿날 선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긴 했지만 간밤의 쇼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생전 처음 배 여행이라 계속되는 멀미에 곤욕을 치러야 했지만, 뱃사람들의 독특한 생활습관을 관찰하는 가운데 지루함도 차차 잊혀져 갔다. 배 위에서는 육지에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가 지배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배가 일본의 요코하마(橫濱) 항에 닿았을 때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떼의 여자들이 우르르 배 주위로 몰려드는 것이었다. 이른바 현지처(現地妻)들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원들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면서도 배 위로 올라오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술을 배에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여자를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은 깨뜨려서는 안 될 철칙 중의 철칙이었던 것이다. 물론 배를 떠나서는 얼마든지 여자와 즐길 수도 있고 마음껏 술을 퍼 마셔도 좋았지만.

스테파트 교수

미국서 나의 첫 배움터가 된 곳은 미시시피(Mississippi) 주립대학이었다. 미시시피는 남부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방의 하나로 이름나 있는 곳이지만, 내가 유학할 당시엔 인종차별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백인과 흑인의 화장실이 다른 것 정도는 예사였다. 극장엘 가건 버스를 타건, 어디엘 가거나 서로의 좌석은 위·아래층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칠 기회조차 없을 정도였다. 흑인에 대한 편견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세워 온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인만의 학교가 따로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엔 청소 등의 굵은 일은 모두 흑인들 차지로 돼 버렸다.

이렇게 인종적인 편견이 강한 반면, 남부 사람들은 정적(情的)이고 더할 수 없이 친절할 사람들이기도 했다. 때문에 한번 친구가 됐다 하면 다정하기 이를 데



27. 미시시피 주립대학 유학시절
레오 스테파트 교수와 함께, 1955.
레오 스테파트 교수는 김정숙에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준 소중한 은사였다.

없는 것이 또한 남부 사람들인 것이다. 더구나 미시시피 대학의 첫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나에게 대한 동료들의 관심은 지극했었다. 미국 생활이 생소하기만 한 나에게 마음으로, 몸으로 친절을 베풀어 가며 향수를 달래 주던 이들이 다름 아닌 흑백(黑白) 문제에서는 무자비했던 남부인들이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겠지만. 미시시피에서 나의 첫 스승은 레오 스테파트(Leo Steppat) 교수였는데, 그는 단순한 스승에 그치지 않고 조각의 길을 걷고 있는 내게 오늘까지 꾸준한 길잡이 노릇을 해주고 있는 분이다.

유학 초기부터 이미 '나는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내게, 그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란 어떠한가 할지를 무언중 보여주었다. 가르침이란, 그리고 배움이란 스승의 모방이나 흉내에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미술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는 각자 개성의 세계를 표현해내는 데 있는 것이니까 스승이란 그 길잡이로서만 중요하다는 것이 그때 스테파트의 생각이었고 또한 오늘의 나의 소신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 빈(Wien) 출신으로 망명작가였던 그는 분위기부터가 미국인과는 전혀 달랐다. 미국에 옮겨 와서도 주위의 물질주의에 휩쓸리는 일 없이 외면으로 보아 검소하고 내면으로 진지하기만 한 자신의 세계를 지켜 나가던 분이다. 특히 망명객의 처지였던 그와 육이오의 상처를 안고 멀리서 건너온 나는 같은 이방인(異邦人)의 처지에서 사적(私的)으로도 친밀해져 갔다. 같이 쇼핑이라도 나갈 때면 키가 작은 동양인에겐 풍성한 스타일은 금물이라는 조언과 함께 나의 체형에 어울림직한 옷을 골라 주느라 몇 시간씩 상점을 전전하던 자상한 분이기도 했다.

한 학기 동안에도 내내 개인교수하듯 내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름방학 중에도 특별지도를 자청해 주는 게 아닌가. 이유인즉 나를 지도해 본 결과 곁에서 조금만 보살펴 주면 대성할 수 있는 그릇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과찬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불안 속에 첫발을 내디뎠던 당시의 내게 있어선 그 한마디 말씀만큼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은 다시 없었던 것 같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위스콘신(Wisconsin) 대학으로 가게 된 선생은 나도 자기 학교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스승도 귀하지만 내게 있어 미술이 보다 궁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제대로 공부하려면 크랜브룩(Cranbrook) 대학 이상으로 좋은 곳은 없다는 판단이 섰다. 직접 크랜브룩을 방문해 본 뒤로 마음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단시일 내에 많은 것을 배워 돌아가야 했던 나로선 기왕이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분위기에서 공부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소원대로 크랜브룩에 입학하려 할 때 나는 또 한 번 스테파트 선생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때 크랜브룩 대학이 정원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일개 동양인을 선뜻 받아들여 준 것은 다름 아닌 선생의 나에게 대한 과분할 정도의 추천서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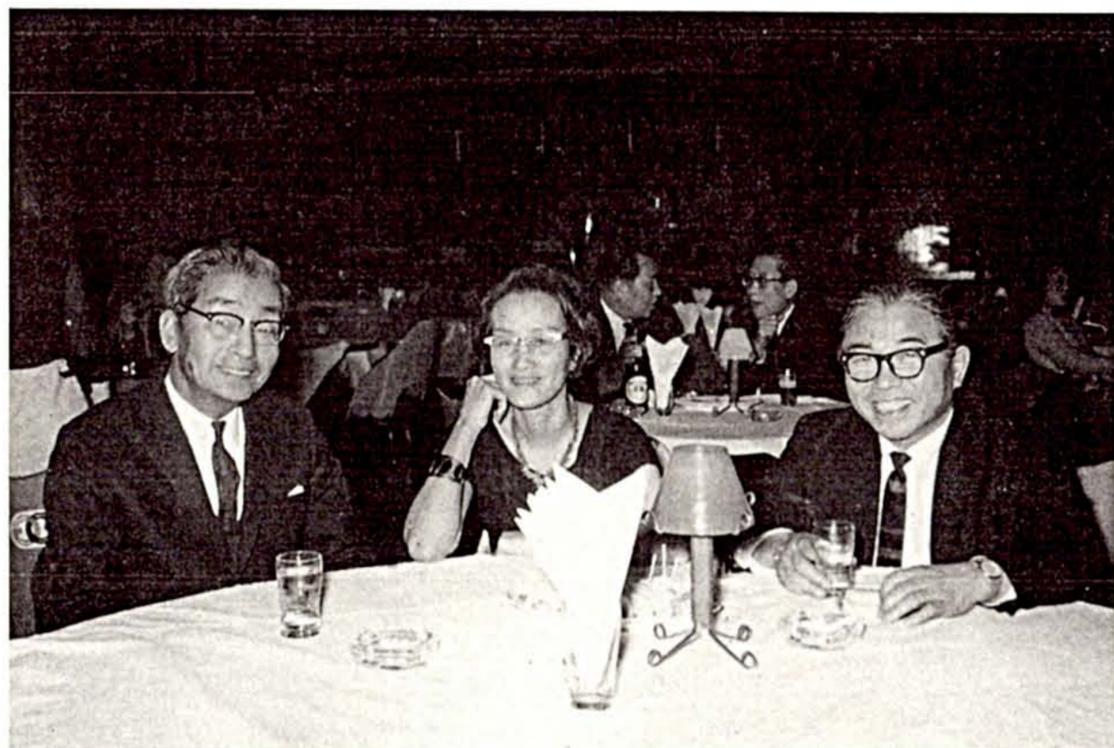
그렇게 서로 학교가 달라지고 난 뒤론 별 교신이 없다가 1967년 국무성 초청으로 다시 도미했을 때였다. 어딜 가든지 그곳 미술관부터 죽 한번 돌아보는 습성이 붙어 있던 나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을 들렀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딘지 낯익은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옛 은사 스테파트 선생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과 작가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무심코 들여다보던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작가 이름 옆에 출생 연월일과 함께 사망 연월일이 적혀 있는 게 아닌가. 내 일에 바빠 안부조차 소홀히 했던 사이 선생은 어느덧 고인(故人)이 돼 버렸던 것이다.

객지의 두 은인

내가 미국서 공부하는 동안 외로울 때면 달려가고 싶어지던 곳은 김메리 아주머니 덕이었다. 메리 아주머니는 내 어머니의 사촌동생 되는 분이지만, 그보다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불러 보았을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시작되는 동요의 작곡자라면 소개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젊어서 미국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주머니는 내가 이화여전 다닐 무렵엔 같은 학교의 음악과 과장으로 계셨었다. 한편 정동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맡아 내 결혼식 때 웨딩마치를 쳐 준 것도 바로 아주머니였다.

미국 사는 한국 교포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게 된 아주머니가 다시 미국에 건너간 것은 좀더 공부하려는 욕심에서였다. 육이오가 터지면서 '일시적인 유학'이라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곳에 발이 묶여 버리고 말았지만, 미국에 건너간 뒤로 두 남매의 어머니로서 생물학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학위까지 따 내기에 이르렀다. 객지생활에 전공인 피아노만 갖고는 생활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아주머니는 새 학위로 곧장 병원에 취직했던 것이다.

28. 남편과 함께 임병직
대사(맨 왼쪽)와의 만찬.
그랜드 호텔에서.
1960년대말경.
임병직 유엔 대사는
유학시절 김정숙의 후원자
역할을 해준 분이였다.



나도 의욕이 강한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주머니를 따를 수는 없을 것 같다. ‘피아노’ ‘음악교육’ ‘생물학’ 해서 학위를 세 개씩이나 갖고 있는 분이 기도 하지만, 병원을 정년퇴직한 뒤에는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의 나이도 잊은 채 세계 곳곳을 누비고 계시니 말이다. 하여간 나는 틈만 나면 아주머니 댁으로 가는 버스를 잡아탔다. 외로울 때나 지쳐 있을 때는 더더욱 아주머니의 존재가 절실하게 느껴지곤 했다. 언제나 활기에 넘쳐 있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는 듯했기 때문이다.

유학시절 나의 ‘뺨’ 이랄까 후원자랄까를 맡아 보살펴 준 분으론 유엔 대사 임병직(林炳稷) 씨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을 위해 대사로 와 있던 그는 오래 전부터 집안으로 아는 분이였지만, 미국 시절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임 대사가 외국인을 대접할 때면 으레 나도 끼어 들고, 고국에서 손님이 올 때도 같이들 어울렸다.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임 대사 덕분에 나의 미국 생활은 아버지를 곁에 모신 듯 든든한 가운데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임 대사의 특청으로 나는 첫 여름방학 동안 한미재단 이사장이었던 라스크(Lask) 박사의 흉상 제작에 들어갔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의 편집고문까지 겸했던 당대의 실력자 라스크는 나중에 보답으로 내게 미술책을 여러 권 보내 왔었다. 그때 라스크의 흉상 제작을 곁에서 코치해 주던 스테파트 선생

의 얘기가 생각난다. “내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돈 버느라 이런 짓 참 많이 했지” 하며 회상에 잠기던 그를 보며, ‘순수예술의 길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렵긴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곤 씩씩해졌었다.

운이 좋아 세상에 일찍 알려진 몇몇 특수층을 제하곤 예나 이제나 작품만 갖고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돈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끝내 순수예술을 지켜 온 선생은 더욱 귀한 존재로만 보였다.

한국서 대학만 간신히 마치고는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간 내가 현대미술이란 뭔지, 추상이란 도대체 뭔지 차차 눈뜨게 된 것은 미시시피 대학의 스테파트 선생을 통해서였지만, 현대미술의 세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배움터였던 크랜브룩 대학을 통해서였다. 내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배운 것이라면 오로지 흙으로 빚어 석고로 뜨는 방법뿐이었다. 그 이상의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 였던 내게 크랜브룩은 조각의 다양한 세계를 활짝 열어 보여주었던 것이다.

석조, 목조에서부터 용접, 테라초(terrazzo) 등에 이르는 갖가지 새로운 테크닉은 요술처럼 나를 매료시켰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익히고 싶은 욕심에 밤잠을 잇곤 했다. 특히 산소용접은 어찌나 신기해 보였던지, 일 년을 용접에만 매달리다 보니 나중엔 시력이 툭 떨어질 정도였다.

크랜브룩 시절

크랜브룩 대학이 내게 소중한게 느껴진다면, 그 첫째가는 이유는 딕 토마스(D. Thomas) 선생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작가로보다는 교수로 더 유명했던 선생 밑에서 나는 금속공예를 처음 배웠다.

금속공예는 부전공에 불과했지만 선생의 살뜰한 지도 밑에서 나는 전공에 못지 않는 정열을 쏟곤 했다. 초보자인 내가 하루라도 빨리 깨칠 수 있도록 옆에 지켜 서 손잡고 가르치다시피 하던 그 열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나태해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분의 교수법에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직접 작품에 들어가질 않고 쇠를 두들기는 방법에서부터 온도 맞추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고 또 다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것이 철저해지기 전에는 결코 작품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선생의 교수법만큼 훌륭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오랜 세월 손 놓고 지내온 터이지만 그때 배운 기술은 지금도 필요하면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생생하니 말이다. 아직도 선생이 교편을 잡고 계시기에 미국에 들를 때면 나도 모르는 새 발길은 크랜브룩 쪽으로 돌려지곤 한다. 얼마 전 뵈었을 때 흰머리가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내 말에 아예 백발인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는 바람에 같이 서글픈 웃음을 지어야 했다.

크랜브룩 시절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다. 쓸쓸할 때면 호숫가에 혼자 나가 백조를 바라보다가는 외로움이 복받치면 벌렁 드러누워 울기도 했다. 그때 만든 작품엔 그 감정들이 그대로 담겨서인지 애정표현이 많은 편이다. 돌 조각 작품인 〈키스〉, 두고 온 아이들이 모델이 된 〈모자상(母子像)〉 등은 모두 그때의 작품들이다.

당시 기숙사 옆방을 쓰던 이스라엘 출신의 여학생 파타미(Partami)는 나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던 친구로 기억에 남아 있다. 혼자 떨어져 객지생활하기는 나와 마찬가지로였지만, 외로움 같은 걸 내색하는 법 없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갔다.

고향에서 국민학교 선생으로 있다 돈 모아 유학 왔다는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쪼들리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인가 수중의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두 도둑맞고 난 뒤의 그녀에게 당황의 빛이란 없었다. 잃은 돈은 이미 잃은 돈일 뿐이라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녀를 보며 이스라엘 사람은 역시 다르다고 생각했다.

작품에 임하는 태도도 서로 달랐다. 하다가 부수고 또 하다가 부수고...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하나의 작품도 완성해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에 만족 못하는 예술가로서의 진지한 자세가 엿보이는 듯도 했다.

반면 뭔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었던 나는 자연 작품이 많은 편이었지만, 다작(多作)과 과작(寡作) 중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

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자신이 없다.

나처럼 가정주부의 몸으로 미술을 공부하던 마누엘(Manuel)과 줄리(Jully)는 같은 입장 탓인지 호흡이 잘 맞던 친구들이다. 특히 스페인 출신의 마누엘은 여러 가지 재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원래 마누엘의 인생은 발레리나로 출발해 할리우드(Hollywood)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었으나, 갑자기 다리를 다친 뒤로 미술 쪽의 공부를 새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의 집에 초대받던 날 나는 진짜 스페인 춤이란 어떤 것인지를 눈앞에서 보았다. 혼이 들어간 듯한 정열적인 그녀의 춤을 보며 스페인 춤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했고, 지난날 그녀의 무희(舞姬)로서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워낙 다재다능했던 그녀는 손금을 보는 데도 능한 편이었다. 인간의 운명이 손금에 좌우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녀가 그때 봐 준 손금이 너무도 나의 걸어온 길과 일치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는다. 언제든지 내 뒤엔 나를 지켜주는 남성들이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 남성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얘기다. 내가 뒤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남편 덕이 아닐 수 없고, 애정 문제를 떠나서도 내 주위엔 언제나 나를 보살펴 주는 누군가가 있어 왔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벽안(碧眼)의 친구들

크랜브룩 대학 시절 이른바 '보이 프랜드'가 하나 생겼다. 이름은 스티브 주니어(Steeves Jr.). 대학 과학관의 연구원이었던 그는 특수사진 전문가이기도 했다. 미국에 건너온 뒤론 공부 속에서 갇힌 새처럼 지내 온 나에게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맛보여 준 것은 바로 스티브였다.

맥주집으로 댄스파티로, 그가 잡아 끄는 대로 따라다니며 모처럼 공부에서 놓여 나 망중한(忙中閑)을 즐기곤 했다. 미국 남자들은 대개 친절하다고는 하지만, 스티브의 나에 대한 친절은 각별해서 메리 아주머니로부터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네가 결혼 안했더라면 당장 청혼했겠다”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였다.

그는 체격도 좋고 얼굴도 그만하면 수준급이었지만, 군(軍)에 있을 때 마비를 앓

아 다리를 약간 절었다. 다리의 불편을 커버하기 위해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그는 사교춤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이 한국에서 온 촌뜨기도 덕분에 생전 처음 춤이란 걸 추어 보았다.

그가 사교 댄스 전람회라는 델 데리고 갔을 때였다. 사방이 거울로 된 방에서 자신의 춤을 봐 가면서 한 커플씩 시범을 보이던 광경은 어찌나 희한하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관객으로만 그치려니 따분한 생각이 들어, 나도 스티브와 커플이 되어 춤추는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친하면서도 자신의 집안 얘기는 통비치질 않았고 차림새도 허름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부호(大富豪)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그의 집에 초대받고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정문을 지나 자동차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영화에서나 보던 대저택이 나타난 것이다. 하녀를 빼곤 그 큰 집에서 스티브는 어머니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었다. 스티브에겐 왜 평소 여자가 따르질 않는지 그의 집엘 가 보고 나선 조금 이해될 듯도 했다. 물론 괴짜스러운 그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제아무리 부호의 아들이라도 어머니 치마폭에 싸여 지내는 남자에 대해선 미국 여성들은 장래 남편감으로 절대 '노(no)' 였던 것이다.

1976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과부 어머니는 이미 죽고 그는 저택의 주인이



29. 다시 만나게 된 크랜브룩 시절의 친구 스티브와 함께 그의 저택 현관 앞에서. 1976.

30. 크랜브룩 시절 많은 도움을 주었던 루스 캐스웰(왼쪽)과 칼 밀레스(Carl. Milles)의 제자인 클라인(S. Kline, 오른쪽)과 함께. 1956. 1.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독신이였다. 그의 관심은 이제 사라져 가는 희귀한 새들을 보호하는 일에 돌려져 상속재산은 일종의 사회사업에 쓰이고 있었다.

스티브와 함께 ‘친절했던 여인’으로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루스 캐스웰(Ruth Caswell)이다. 회화과 학생이었던 루스가 자기 집에 묵도록 해주는 바람에 나는 하숙방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변호사였던 루스네 집에 살면서 ‘스위트 홈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을 끝낸 가장은 부리나케 집으로 오고 가족끼리만의 단란한 저녁시간이 시작된다. 음악회엘 가거나 영화관엘 가거나 가족이 같이 엔조이한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학교까지 아이들을 차로 바래다주고 저녁이면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고맙게도 루스와 그의 언니 로즈마리(Rosemary)와 함께 나는 친딸처럼 그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손님도 잘 안 청할 정도로 가족중심적인 미국 가정에서 일 년 동안이나 나를 한 식구로 받아 준 것은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었다. 미안한 생각에 부엌일이라도 거들라치면 “너는 먼 곳에서부터 이 나라까지 공부하러 온 학생이 아니냐. 여기 있는 동안은 공부만 하라”며 루스의 부모는 나를 방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루스네 집 사람들의 무제한 친절에 익숙해 있다가 염치 없는 사람이 된 일이 있다. 언젠가 나무재료가 필요해서 금속공예과 학생(이름은 잊었다)에게 차 태워 주기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는 선뜻 응낙해 주었고 같이 쇼핑을 나갔었다. 이튿날이었다. 그가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인즉 “내가 너 때문에 시간을 쓰고 가솔린을 썼는데 뭘로든지 나한테 보답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는 ‘뭘로든지’ 라고 했지만 결국 돈을 내라는 얘기였다. 아차 싶었다. 웬만한 친구끼리라면 가솔린 값은 나누어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나만 몰랐었고, ‘고맙다’는 한마디로 계산이 다 된 줄 알고 있었으니... 뒤늦게나마 가솔린 값의 반액을 돌려주면서 미국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친하면서도 타산은 타산대로 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었던 것이다.

귀국

유학생할은 나에게 외국인과의 폭넓은 교제 기회를 터 주었을 뿐 아니라 옛 친구와 재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뜻깊었던 것은 수표예배당 시절의 친구 한표욱(韓豹瑬) 씨와의 해후였다. 학생 때 만나고 이십 년 만에야 다시 만난 그는 어느덧 워싱턴 주재 참사관(參事官)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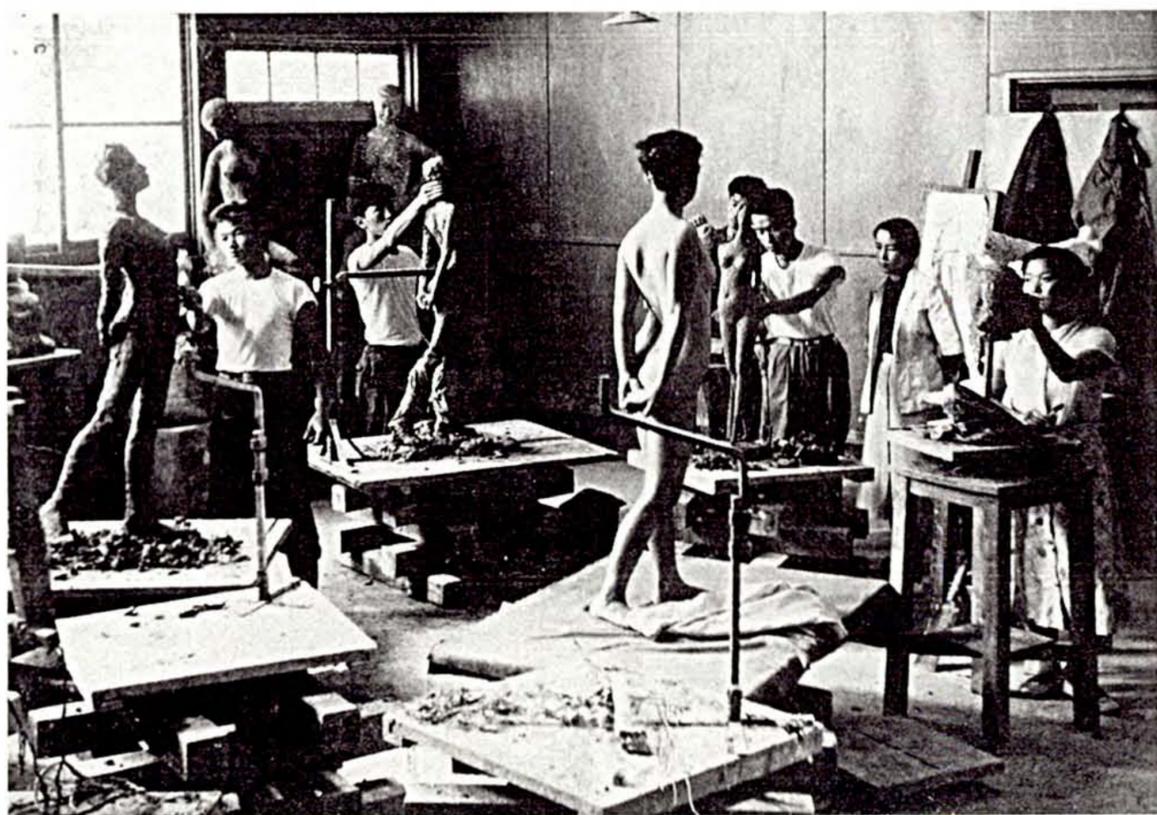
예배당 시절엔 그가 장차 교수가 될 줄만 알았다. 내가 찬양대에서 활동하는 동안 영어 성경반에 미치다시피 열중했던 그에겐 영문학 교수 이상의 천직(天職)은 없을 듯싶었기 때문이다. 가느다란 몸매에 연희전문의 검색 교복을 걸치고 손에는 언제나 영어책이 들려 있던 모습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

수표예배당 하면 그가 연상될 정도로 서로 밀접해진 것은 예배당 시절 같이 연극을 했고 더구나 극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때 성탄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공연되던 연극 중 「기다리던 메시아」 「저 언덕을 넘어서」는 바로 그와 나란히 주역을 맡았던 작품으로,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마음은 그 추억 속을 헤매곤 한다.

어느새 한미재단측과 약속했던 기한이 되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1956년 가을이었다. 돌이켜 보면 유학생할은 불과 일 년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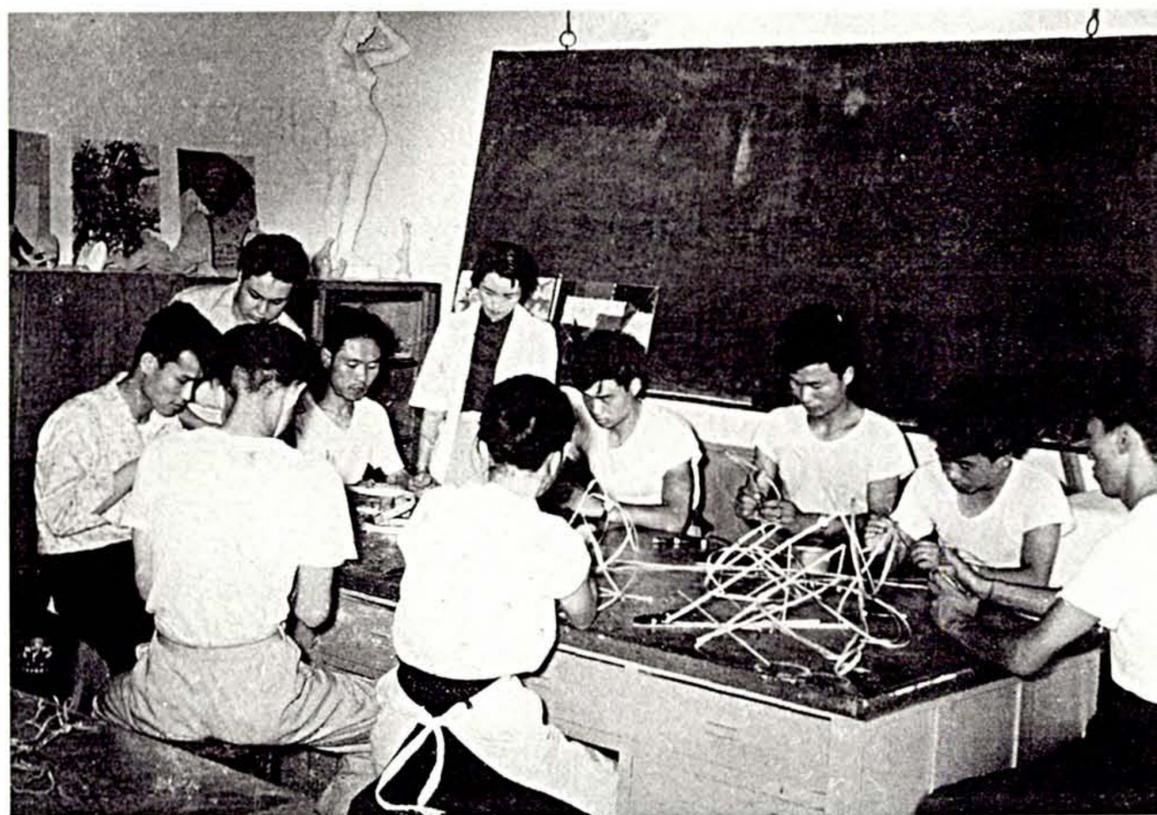


31. 미국 유학 중 재회한 옛 친구 한표욱 참사관(가운데)과 함께. 1955-1956년경.



32. 홍익대 조각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습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정숙, 1957.

김정숙은 홍익대 교수로 이십칠 년간 재직하면서 박종배, 정관모(鄭官謨), 박석원(朴石元), 한진섭(韓鎭燮) 등 뛰어난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다.



33. 홍익대 교수로 취임하여 신설한 '철사조각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맨 뒤쪽 칠판 앞에서 있는 사람이 김정숙, 1958.

유학 후 김정숙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철조각과 산소용접조각을 보급시키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내 일생에 그때처럼 공부에 미쳤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그때 나를 채찍질한 것은 만학도로서의 초조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국가에서 대표로 뽑혀 와 공부하고 있다'는 책임의식과 함께 '앞선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잠시도 한눈팔지 못하도록 했다. '많이 배워 후배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 또한 나를 가일층 탐욕스런 학생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내 나라에 막상 돌아와 보니 내가 떠나던 때와 달라진 것이라곤 없었다. 여전히 흙조각에만 매달려 용접조각이나 철조각이란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귀국 즉시로 내가 한 일은 홍익대에 용접시설부터 신설하는 것이었다.

34. 제자 박종배의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품인
〈역사의 원〉과 나란히 서서.
1965.



35. 남편과 함께 제자
박종배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왼쪽부터 김정숙, 박종배와
그의 부인 신영민(申泳敏) 씨,
남편 김은우. 1968.
박종배는 김정숙이
팔 년이나 곁에 데리고
지도하며 아꼈던 제자였다.



그때 내게서 전수받은 용접조각으로 「국전」에서 당당 대통령상을 따낸 제자가 바로 〈역사의 원(源)〉이란 작품으로 수상한 박종배(朴鍾培)였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안겨 준 자랑스런 제자가 아닐 수 없다. 내 집에서 팔 년을 같이 기거하는 동안 예술에 정진하는 그의 건실한 자세는 장차 대가가 될 소지를 엿보게 해주었는데, 역시 오늘날 착실한 중견급으로 자란 것이다. 얼마 전 그의 개인전을 보고는, 테크닉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또 한 단계 원숙해진 그의 작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를 것 같으면 나는 꽤나 엄했던 스승이라고 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꼭 매끈한 작품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

의 것'이 나올 때까지 다그쳐 댔고 정성에 빈틈이 보이거나 하다 만 것 같은 작품은 지금까지도 내 성격상 결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종우(李鍾禹) 화백은 내가 귀국 후 홍대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분이다. 한국인 화가로는 최초로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던 이 화백은, 화단에서는 거목(巨木)으로 군림해 왔지만 가까이서 뵈고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기만 했다. 언젠가 예술원 파티가 끝난 뒤 선생을 내 차로 모시고 스카이 웨이를 한 바퀴 돈 일이 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선생은 어찌나 유쾌해 하시던지. “아, 기분 좋다”를 되뇌시던 선생은 다름 아닌 소풍 나온 어린이였다. 선생과 함께 법주사(法住寺)로 수학여행 갔던 것은 1959년이었나 보다. 워낙 술을 좋아하셨던 선생은, 여행 떠나던 날 기차에서부터 시작한 술이 돌아오는 길에까지 계속 될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새벽이면 속리산을 획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은 밤새 거나해 있던 선생이었다. 물론 낮에도 젊은 학생들을 제치고 훌훌 날듯 산을 오르셨지만.

황해도 사리원(沙里院)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동경 유학이다 파리 유학이다 해서 톱 클래스의 인생을 살아오다 지난 2월 타계하신 선생은, 의사 아들 덕분에 노후에도 돈 걱정 없이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니 미술가 치고는 드물게 평탄한 일생을 사신 분이라 하겠다.

두번째 미국 유학

1958년 여름 나는 두번째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 입학했던 학교가 클리블랜드(Cleveland) 미술전문학교요, 새 전공과목은 산업디자인이었다. 미국 국제협조처(ICA) 원조로 이루어진 나의 두번째 유학은 공적인 성격이 짙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나 저제나 조각하는 사람일 뿐 산업공예는 기질상 내키지 않았지만, 홍익대에서 앞으로 과를 신설하는 데 있어 길잡이가 되기 위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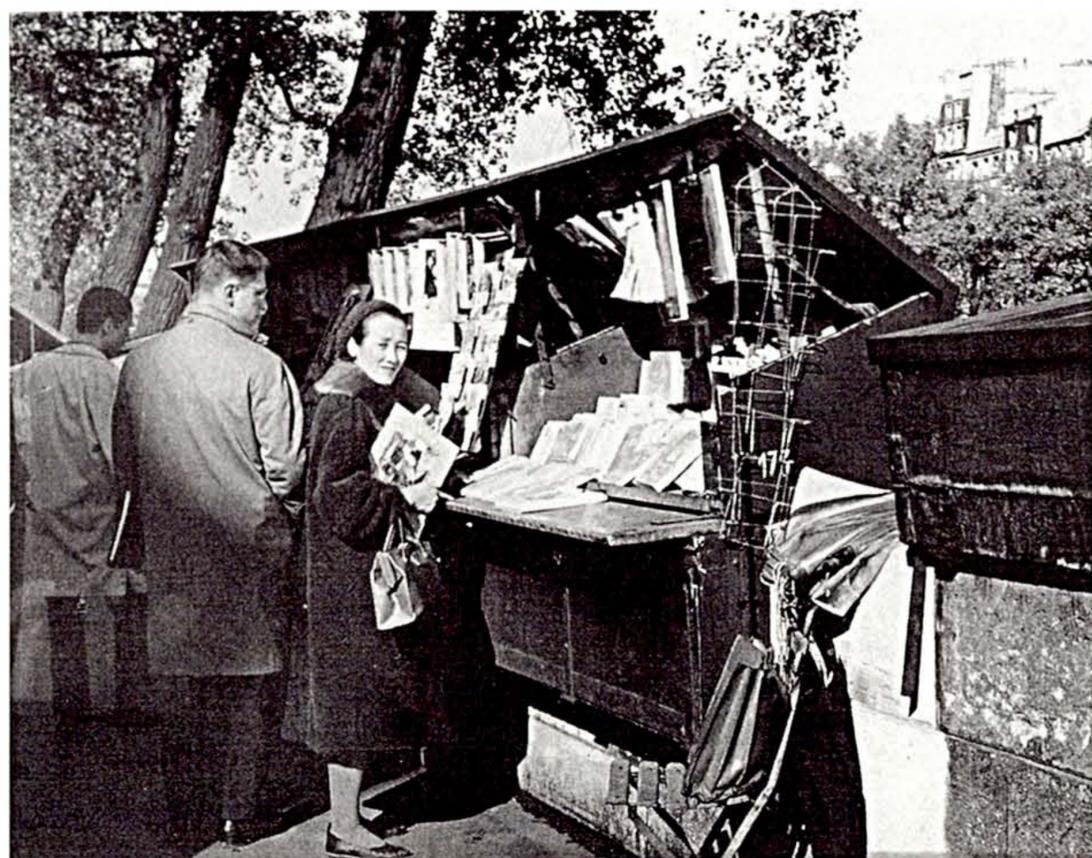
이처럼 공예과 신설의 사명이 내 두 어깨에 지워져 있는 이상 다른 학생들처럼 유유자적해 가며 공부할 수는 없었다. 무리인 줄 알면서도 밤 클래스까지 학

점을 신청했던 것은 단시일 내에 많은 것을 배우려는 욕심에서였다. “너같이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목을 해낼 수 있겠느냐”며 주위에서는 걱정들을 해주었지만, 나는 각고(刻苦)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걱정이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클리블랜드 시절엔 전공이 설었던 탓인지 각별한 사제관계는 맺어 놓지 못했지만, 산업공예과의 과장으로 있던 슈레이킹 고스트 교수만은 빼놓고 지나갈 수 없다. 노경(老境)의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수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필요한 도구나 재료를 골라 줄 때는 꼭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지던 분이다. 내가 학교를 떠나 온 뒤론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클리블랜드에서 날아드는 한 장의 카드를 통해 다감(多感)한 선생의 마음을 되읽곤 한다.

공예계의 개척자 유강렬(劉康烈) 선생을 내가 미국서 만난 것은 뉴욕에서 「세계 무역전람회」가 열리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내가 묵던 곳은 뉴욕 YMCA 호텔이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웬 한국 사람이 다녀갔다고 한다. 남기고 간 연락처를 보니 다녀간 사람이 유 선생임을 알 수 있었고, 이튿날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록펠러(Rockefeller) 재단 초청으로 로체스터(Rochester) 미술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선생은 이화여대에 적을 두고 계신 상태였지만, 나를 찾아오신 걸 보면 앞으로 홍대에서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유 선생 같은 분을 마침 찾아 헤매던 참이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나야 다시 조각과로 물러났을 테고 공예과는 책임자를 찾아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제 발로 나 있는 곳까지 와 줄 줄이야.

이렇게 서로 의향의 일치만을 일단 확인한 뒤 선생을 공예 책임자로 본격 추대하는 작업은 귀국 후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홍대 공예과 과장으로 부임한 뒤의 선생은 제 물을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셨다. 또한 제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가난한 주머니를 기울이는, 남다른 정(情)의 소유자였던 그는, 제자들의 개인전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개인전은 미처 가져 볼 새도 없을 정도였다. 남을 도와주고도 모르는 체, 숨은 일을 많이 하고도 공(功)을 내세우는 법이 없이 선생은 오직 군자(君子)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갈



36.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3차 국제미술협회 총회 참석 후, 유럽 여행 중 파리 세느강가의 한 책가게에서. 1960.

따름이었다.

십오 세 소년기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했던 그는, 일본 체류가 길었음에도 일본 태(態)는 찾아볼 수 없이 언제까지나 억센 함경도 사투리 그대로여서 고집스런 일면을 느끼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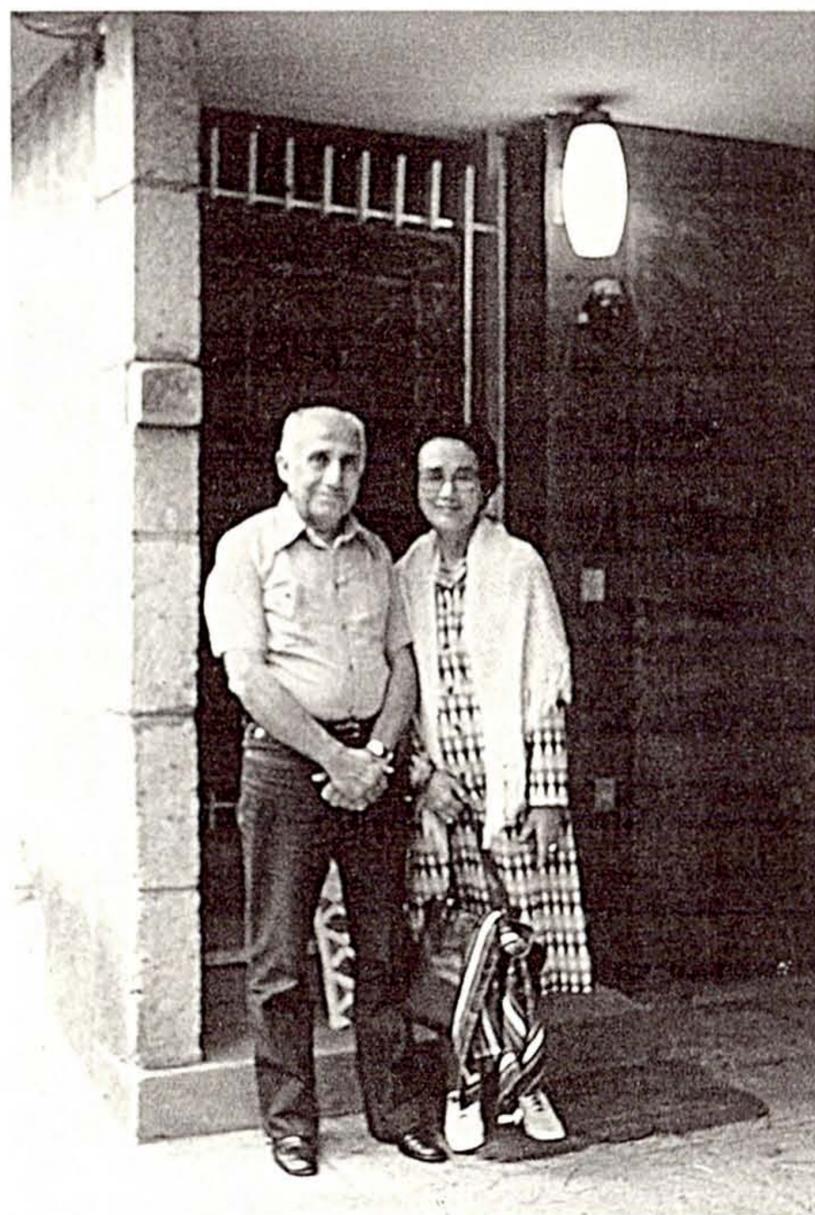
미술하는 사람 중엔 괴짜도 많지만 그도 빠지지 않는 괴짜의 한 사람이요, 말은 없어도 할 것 다 하는 사람이었다. 한겨울 얼굴이 검게 타 웬일이냐고 물으면 스키를 좀 다녀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소리도 소문도 없이 해치우던 선생은 1976년 심장마비로 타계하기까지 염색 태피스트리(tapestry) 판화 부문에서 허다한佳作(佳作)을 남겨 놓았지만, 그의 훌륭한 작품은 바로 그의 남달랐던 인품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싶다.

1960년은 빈에서 열린 국제조형미술협회 3차 총회에 내가 정대표(正代表)로 참가했던 해이지만, 더욱 뜻깊었던 것은 총회가 끝난 뒤의 유럽 일주였다. 특히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인 양 곳곳에 진기한 미술품들이 널려 있어 나를 시종 흥분 속에 몰아 넣었다. 더구나 현대조각의 두 거장(巨匠) 그레코(E. Greco)와 파치니(P. Fazzini)와의 해후는 조각도인 내게 있어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었다.

이탈리아 여행

1960년 내가 유럽을 돌면서 첫번째로 로마를 끼워 넣은 것은 그레코와 파치니를 만나 보겠다는 심산에서였다. 그레코와 파치니는 마리노 마리니와 함께 삼거두(三巨頭)를 이루어 이탈리아의 현대조각을 오늘까지 붙들어 온 사람으로, 조각도인 내게는 간접적이거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왔던 터였다.

그레코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홍대 윤희중 선생의 강의를 통해서였는데, 대사관을 통한 끈질긴 교섭 끝에 그의 집에서 첫 대면을 가질 수 있었다. 사진을 통해 익혀 온 탓인지 아틀리에를 메운 그의 작품은 구면인 듯 조금도 낮설지 않았다. 신체의 일부를 길게 잡아 늘이는가 하면 허리 같은 데는 실로 동여맨 듯 잘룩잘룩 처리하면서 헤어스타일은 일본식으로 치켜 올리듯 하는 것이 그의 독특한 수법이었지만, 이렇게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생생한 인체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의 재주는 과연 놀라운 데가 있었다.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밀라노(Milano) 성당에 들어갈 부조(浮彫) 작품을 제작 중이었다. 서로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조각이라는 공통의 언어에 힘입어 우리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37. 파치니와 함께 그의 작업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1979. 1.

38. 한국에서의 개인전 교섭차 그레코를 만나고 헤어지기 전에 그의 집 앞에서. 1979.

한국에서의 그의 개인전 교섭을 위해 1979년 두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그는 몹시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 곧 모스크바(Moskva)에서 자신의 작품전이 열리게 된다는 잔뜩 들떠 있던 그는, 말리지 않았더라면 방안을 가득 채운 작품을 하나 하나 모두 내게 소개할 태세였다. 더구나 그때 내가 한국에서의 개인전 얘기를 꺼내자 그의 흥분은 한층 고조되는 듯했다. 먼 나라에서까지 자기를 알아준다는 사실이 아마 그의 작가로서 허영심을 한껏 만족시켰던 모양이다.

내가 가지고 간 초청장에 대해 즉석에서 응답장을 써 주고 난 그는 한국전을 미리 축하하는 뜻에서 술을 권해 왔지만 축하 술은 좀 성급했던 것 같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그의 한국전이 나중에 취소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레코와 파치니는 다 같이 현대조각의 거장임에 틀림없지만, 구태여 둘 사이에 우열을 가리자면 파치니 쪽이 보다 무게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다. 학교의 정규교육을 생략한 채 타고난 재질에만 의존했던 그레코와는 달리, 미켈란젤로 이래의 현대조각의 전통을 속속들이 익혀 온 파치니가 보다 저력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자고로 화실 치고 깨끗이 정돈된 화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특히 파치니의 개인화실은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주위의 북새통이 그에겐 아랑곳없는 듯, 내가 찾아갔을 때 밀라노 대성당의 문(門) 조각에만 열중해 있던 그의 모습은 진실된 예술의 사도(使徒)를 느끼게 했다.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좀더 내세우고 싶어 하던 그레코와는 대조적으로 파치니의 초연스런 태도는 한층 대가다운 풍모를 내비치는 듯도 싶었다.

부러웠던 것은 그레코나 파치니나 모두 시(市)에서 생일파티를 주관해 줄 정도로 예술가를 숭앙해 마지않는 그곳 풍토였다. 이처럼 예술가를 키우고 북돋는 풍토가 정착된 곳에서 마리노 마리니, 파치니, 그레코 등의 대가가 속출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듯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파치니도 그레코도 중요하지만 로마까지 온 이상 만나 보지 않을 수 없는 대승이 한 사람 있었다. 바로 미켈란젤로(B. Michelangelo)였다. 그의 걸작을 순례하면서 느낀 것은 '어쩌면 수세기 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면서도 낡았다

는 느낌은 커녕 현대에 와서까지 이토록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만큼 그는 시대를 초월해 있던 천재였고 또 언제까지나 영원한 현대인으로 살아남을 것임을 그의 작품을 접한 뒤 깊이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피렌체 아카데미(Firenze Academy)에 모셔져 있던 <죄수>라는 이름의 미완성 작품이었다. 그 작품은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사람을 형성해낸 것이었는데,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겨 준 것은 그 '기법'이었다. 조각을 하자면 대개 똑같은 템포로 외부에서 내부로 쪼아 들어가며 점차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법인데, 그 작품의 경우엔 한 부분씩 차례로 완성해 나간 듯 여겨졌으니 말이다. 마치 진흙 속에서 사람을 끌어낼 때처럼 미완성 상태로 흙 속에 잠겨진 부분을 빼놓고 밖으로 드러난 인체는 부분부분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 신(神)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납득 못할 일이다.

홍대 시절 친구들

1959년 귀국 이후 내가 홍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 사귄 분으로 1970년에 작고한 이봉상(李鳳商) 선생과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선생이 있다.

소탈이 지나쳐 시골영감한테 양복 입혀 놓은 듯 항상 구깃한 차림이던 이 선생은 무슨 일이든 허둥대는 분으로 유명했다. 남과 얘기할 때도 그랬다. 천천히 해도 될 얘기를 공연히 서두르느라 말을 더듬기 일쑤였고, 그의 급한 성격은 심심치 않게 웃음거리를 주위에 선사하곤 했다. 언젠가 파리를 다녀온 선생의 머리에 갈 때엔 없던 흑이 하나 없혀져 있었다. 알고 보니 이유는 또 그 유명한 성격 때문이었다. 잘 닦은 유리문을 문이 아닌 줄 알고 냅다 뚫고 들어갔더니, 상처가 작은 흑에 그친 것만도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소소한 성격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장점을 따지고 들라면 또한이 없다. 그 중에서도 남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 그의 성격은 주위의 각박해져 가는 인심과 대조되어 나를 감동에 몰아넣곤 했다. 졸업 시즌만 되면 제자들 취직 알선을 도맡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선생이었다.

화단에서는 이봉상 선생 하면 초창기 추상회화에서의 공헌을 먼저 들먹이지

만, 내가 알기로는 본격적인 미술연구소를 처음 시작한 것도 선생이었다.

옆에서 겪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운보 김기창 선생은 고집으로 한몫 하는 사람이다. 남들이 모두 빨강이라고 하고 빨간색이더라도, 그가 검은 색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하면 남들 또한 검정으로 여겨 줄 때까지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생고집인 것이다.

운보의 그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안다. 다양하게 그린다니,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이것저것 집적거린다니 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그러나 내 의견은 좀 다르다. 그의 작품의 다양성은 바로 그 자신의 다재다능의 결과일 뿐이요, 재주 쪽으로 흐르다 보면 대개 무게를 잃기 쉬우나 그의 경우엔 그런 염려도 필요가 없으니 과연 대가로구나 싶다.

우리 집에도 그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지만 얻게 된 사연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매화 그림을 보고 참 좋다고 무심코 한마디 했더니 당장에 나에게 주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고집이 나면 무디지만 마음이 내키면 또 한없이 선선한 사람이 운보 선생인 것이다.

1962년엔 나의 첫 개인전이 있었다. 신문회관(Press Center)이 생기면서 첫 조각전이기도 했던 나의 개인전엔 부산 피난시절 막 걸음마를 떤 무렵의 작품에서부터 미국 유학시절, 홍대 재직시절의 작품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개인전을 앞두고 미국에서 부쳤던 작품을 되찾기까지는 파란도 많았기에 여기 간단히 소개하고 지나갈까 한다. 1961년 우연히 명동 심지 다방에 들렀을 때였다. 그날 따라 킁킁한 다방 한구석에 놓여 있던 목조상(木彫像)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정이 가고 친숙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 작품이었다. 즉시로 다방 주인을 만나 사정을 밝히고는 그 증거로 미국에서 문제의 작품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내보였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부친 물건은 기일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땐 경매에 붙여진다는 것이었고, 내 작품도 이리 저리 떠돌다 고물상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마침 고물상 곁을 지나던 다방 주인의 눈에 띈 작품은 결국 다방까지 진출해 있다 옛 주인과 극적 재회를 이룬

것이다. “이층에도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말에 주인을 따라 올라가 보니 과연 내가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 또 하나가 구석에서 나를 반겨 주는 것이었다.

또 한번은 홍대 한홍택(韓弘澤) 선생의 개인전 카탈로그가 계기가 되었다. 우연히 펼친 카탈로그 속의 한 선생은 거실에 앉아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으로 찍힌 조각품이 아무래도 내 작품 같았다. 한 선생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었고, 확인해 보니 역시 내 작품이었다. 다른 데 간 것보다 아는 분께 가 있는 게 다행스럽기도 해서 굳이 회수해 들이는 대신 개인전 때나 빌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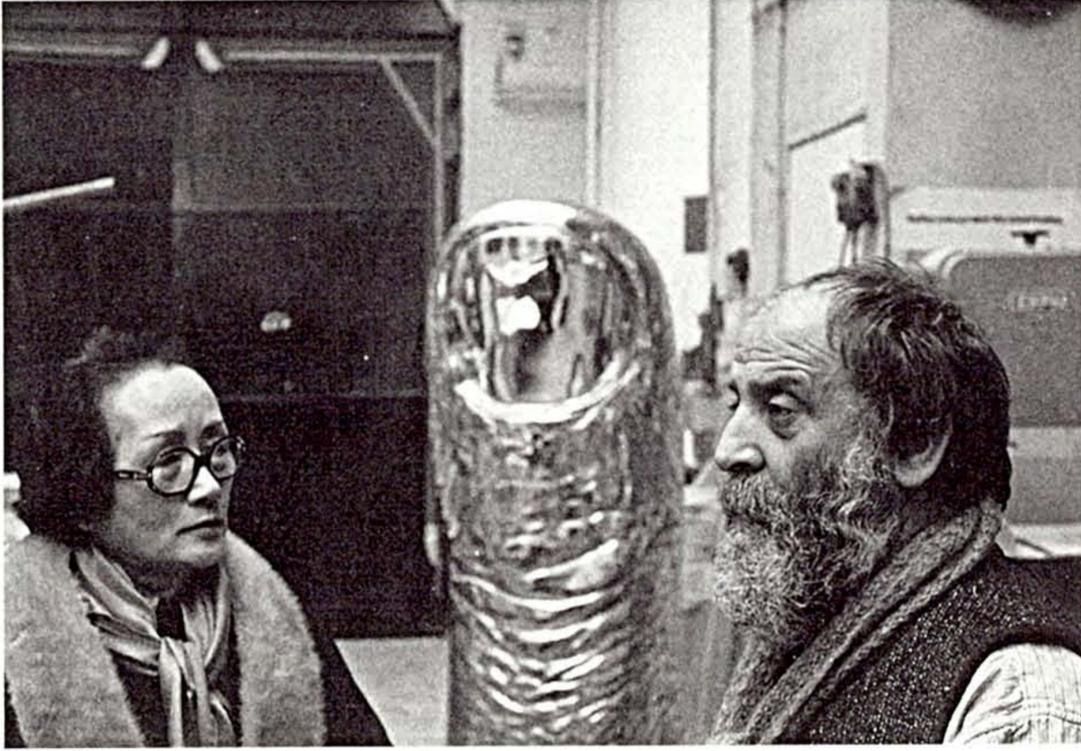
미국에서 부친 네 작품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끝내 찾질 못했다. 나의 첫 테라초 작품인 <새>는 주인을 버려 둔 채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거장 세자르와의 만남

세자르 발닥시니(César Baldaccini) 하면 미술하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조각가이지만,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1967년 「상파울루(São Paulo) 비엔날레」에서였다. 나도 그때 작품을 내놓았었지만, 세자르는 십 년 동안 모아 온 역작(力作)들을 한꺼번에 출품하고는 대상은 으레 자기 것이려니 하고 느긋해 있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세자르뿐 아니라 주변 사람

39.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대표로 참석차 출국 직전에 환송 나온 제자들과 함께.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김경화, 두번째가 최갑수, 네번째가 유영교, (이상 제자) 여섯번째가 김정숙. 1967.





40. 두번째 세자르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1979. 이후 1982년에 세자르는 김정숙을 찾아와 함께 해인사, 가야산 등 한국 여행을 하기도 했다.

들까지도 천하의 세자르를 빼놓고 대상감은 따로 없으려니 확신들을 했으니까.

그러나 예상은 뒤엎어졌다. 대상은 무명의 영국 화가에게 돌아가고 세자르는 부문상인 조각상에 그친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 세계의 대가가 받은 자존심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상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기자들의 인터뷰까지도 일체 사절했으니 말이다.

내가 그와 첫 대면을 가진 것은 유감스럽게도 심사발표가 끝난 직후여서 그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고 있을 때였다. ‘대가’ 라느니 ‘거장’ 이라느니 어마어마한 수식어와 연결시켜서만 세자르라는 인물을 상상해 왔던 나는, 막상 눈앞의 작달막하고 무법자 같은 사내를 대하고는 맥이 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렇게나 걸친 새미 재킷은 그나마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임시로 옷핀으로 꿰어 놓은 상태였고, 앉으라고 내게 자리를 권하는데 그 의자라는 게 다름 아닌 그의 출품작 중 아무 데나 걸터앉으라는 얘기였다.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 웬만한 괴짜에는 익숙해져 있는 터이지만 세자르에겐 손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얘기를 작품세계라는 것에 돌려 볼 것 같으면, 세자르만큼 진지한 작업을 계속해 온 작가도 또 없는 것 같다. ‘새로운 것’ ‘남이 안하는 것’ 을 찾아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실험적인 것에 매달려 왔다.

그 중에서 ‘압축’ 과 ‘팽창’ 기법의 발견은 조각계에서 그의 공로로 알려져 있다. ‘압축’ 은 처음엔 금속압축으로부터 시작, 자동차 찌그러뜨리기 등의 해프닝

도 없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흘러 버리지 않기 위해 재료를 바꿔 가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는 모양이다. ‘압축’에만 십 년, ‘팽창’에만 십 년을 바쳐 온 것만 봐도 작가로서 그의 성실성은 가늠이 되지만, 그와 나는 대화는 나의 그런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압축시대를 거쳐 팽창시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음 번에는 무엇을 보여주겠느냐”고 묻자 “그걸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옛날 것만 자꾸 써먹고 있으니 큰일”이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고, 대가의 솔직한 고백은 신뢰감을 한층 두텁게 했다.

그러나 나는 세자르를 믿는다. 그의 방황이 방황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해프닝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세자르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이렇게 ‘실험’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지나 버린 것 같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만을 하기에다 벽찬 고개턱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가로 남아 있는 한 ‘실험’에 대한 미련은 버릴 수 없는 것임을 잘 안다. 그 미련을 후학도들이 풀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1979년 세자르를 다시 방문했을 때, 이번엔 텃석부리 영감이 되어 나를 맞았다. 프랑스 미술계에서의 그의 비중을 암시라도 하듯 그의 아틀리에에는 마치 큰 공장 같았고, 조수니 비서니 해서 보조원도 많아 차라리 ‘세자르 기업’이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 같았다.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그를 초청해 들인 것은 작년의 일이었다. 한국에 온 세자르는 조각보다는 고건축(古建築)에 관심을 기울이는 듯했다. 특히 해인사(海印寺)를 다녀와서는 단단히 반해 버린 모양이었다. 두고두고 찬사를 되뇌곤 했다. 한국 여행이 유쾌했는지 그는 농담도 곧잘 건네곤 했다. 어느 날인가 그와 동행하느라 챙 넓은 모자에 하늘하늘한 블라우스 차림으로 한껏 멋을 부린 일이 있다. 아래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무어라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통역을 통해 알아보니 “지가 무슨 여왕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아무튼 로댕 이후 마욘(A. Maillol), 부르델(E. A. Bourdelle)을 거쳐 현재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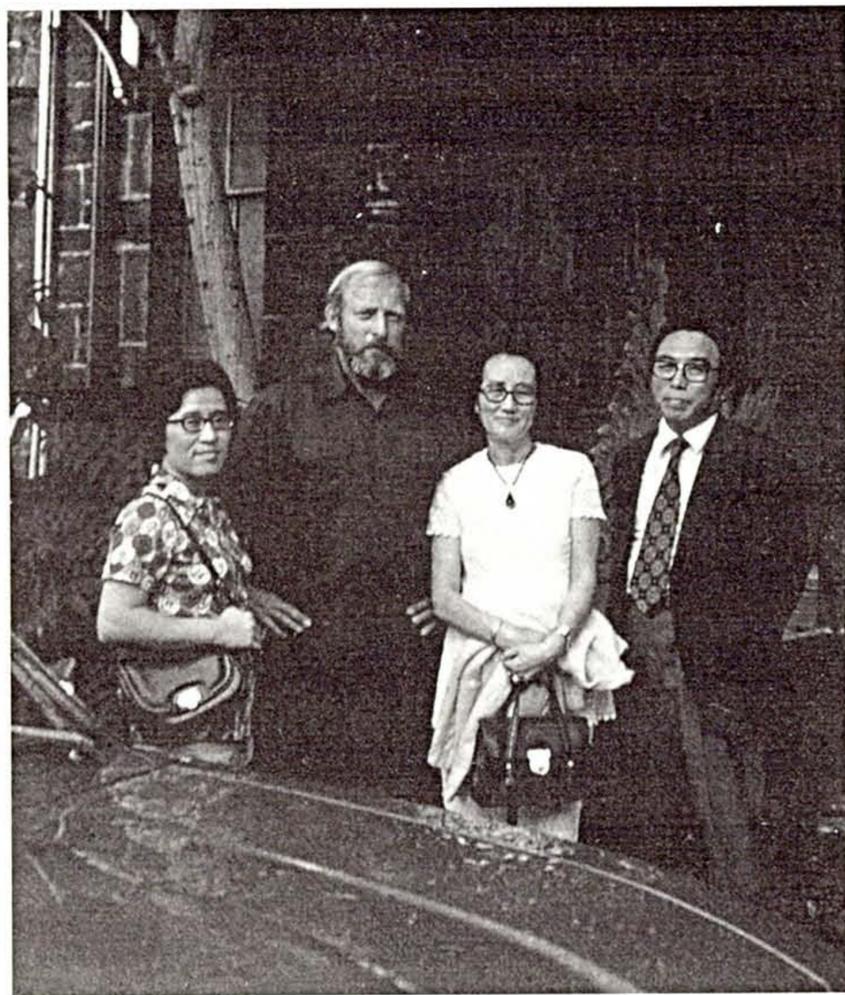
스 제일의 추상작가로 군림하고 있는 세자르의 한국 방문은 이 땅의 젊은 조각도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었을 것으로 믿는다.

세번째 미국 방문

1967년 미 국무성 초청을 받은 나는 세번째로 미국 땅을 밟게 되었다. 지나간 두 번의 방문이 일개 조각도로서 유학이 목적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달랐다. 과거의 유학생은 이제 어엿한 조각가로 자라나 그곳 조각인들과 일대일로 대면하고자 옛 유학지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그때 내가 만난 조각가는 로버트 잉만(Robert Engman), 해리 베르토이아(Harry Bertoia), 시어도어 로샤크(Theodore Roszak), 시모어 립턴(Seymour Lipton) 등으로, 당대에 알려졌다 하는 인물은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다.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출신의 로버트 잉만은 예일(Yale) 대학을 졸업한 정예(精銳)로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의 미술과장으로 있었다. 그의 작업실을 방문해 보고는 그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세밀 주도한 작품군(作品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41. 로버트 잉만의 펜실베이니아 대학 작업실을 방문하고 나서. 오른쪽부터 남편 김은우, 김정숙, 로버트 잉만. 1967.

추상은 추상이로되 스마트한 처리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나 보다. 그의 손에 닿으면 금속도 유리처럼 매끌매끌해지는 것이었다. 그때 작업실에서 그가 내게 보여주던 것 중 무언가 겹겹이 싸고 싼 것이 눈길을 끌었다.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이 용 형겅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는데, 반짝반짝 마광(磨光)을 낸 브론즈(bronze, 청동 제품)였다. 맘에 드는 광이 나올 때까지 일백여 시간을 문질러 댔

다는 그의 얘기를 듣고 “기운도 좋소” 하고 야유하듯 말했지만 내심은 달랐다. 빛(光) 하나에 바쳐진 그 끈기랄까 정열이랄까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그를 만나던 무렵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선가는 「60년대 미국조각」이란 타이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추상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까지 망라돼 있던 그 전시회에 대해서 성실한 작업을 해 오던 작가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었다. 정통파의 한 사람 잉만도 마찬가지였다. “책상 위에 책 몇 개 그냥 늘어놓고 작품이라니, 이런 협잡이 어디 있느냐”며 펄펄 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해리 베르토이아를 만난 것은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던 그의 자택에서였다. 동양인처럼 자그마한 체구에 우선 친근감이 갔지만,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기는커녕 수줍어하는 태도는 방문객인 나의 마음을 한결 놓이게 해주었다.

원래는 이탈리아인으로 젊어서 미국에 건너왔다는 그는, 마침 나와 같은 크랜브룩 대학 출신이어서 얘기의 실마리는 쉽게 풀려 나갈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분수(噴水)’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구리 파이프를 용접해 만든 독특한 그의 분수는 미국 내 이곳저곳에 퍼져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도 마침 새 분수를 제작 중이었다. 분수와 함께 그의 관심은 음악회용 조각에 나뉘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방 하나엔 금속봉(金屬棒)을 한가득 조각으로 세워 놓았고 굵기, 높이, 형태가 각각 다른 그 금속봉을 나무봉으로 건드릴 때면 심포니를 이루듯 묘하고 아름다운 음향이 방안 가득히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조각이면서 동시에 악기였고, 해리 자신도 새 작품으로 음악회를 열 생각이라고 했다. 아무튼 작품의 훌륭하고 못하고는 그만두고라도, 끊임없이 새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의 실험정신에는 같은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감복받지 않을 수 없었다.

헝가리 출신의 시어도어 로샤크와는 사실 구면이긴 했다. 1960년 빈에서 열린 국제조형미술협회 3차 총회 때 잠깐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새로 만났을 때 그는 뉴욕 시청 앞에 세울 조각을 맡아 총지휘 중이었다. 그의 말인즉 이런 작품은 이 년에 한 개쯤 해내면 적당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작품 하나면 이 년 생활비가 빠진다는 얘기였다. 풍요한 나라 팔자 좋은 예술가의 얘기는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그래도 부러운 마음은 속일 수 없었다.

용접조각의 권위 시모어 립턴은 합금을 두들겨 식물을 테마로 한 재미있는 세계를 표현해 온 사람으로, 아마 본토박이 미국인이었던 것 같다. 처음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궤짝 속에 가득했던 철조 모형이었다. 20센티미터 정도의 소품들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왕성하던 창작열도 세월은 당해낼 수 없었는지, 몇 년 전 다시 만났을 때의 립턴은 판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젠 해머질조차 어렵다며 원형을 만드는 작업을 빼놓고 일체의 일은 조수에게 맡긴 채 일선에서 물러나다시피 한 상태였다.

미국인 친구

1967년 도미했을 때는 미국 조각가뿐 아니라 이탈리아 조각가도 한 사람 만났었다. 우연히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미술학원에 시찰차 들렀다가 그곳에 마침 초빙교수로 와 있던 콘사그라(P. Consagra)와 맞부딪쳤던 것이다.

콘사그라는 같은 현대조각의 대가였지만 앞서 얘기했던 파치니나 그레코와는 계열을 달리하는 작가였다. 파치니를 비롯한 이탈리아 현대작가들이 대개 구상(具象)에 치우쳤던 데 비해 이 사람은 완전추상 쪽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대화 중에 그는 뉴욕에 가거든 말보로(Malboro) 화랑에 들러 보라고 했다. 거기서 자신의 전람회가 있다는 것이었고, 작품 모형을 보여줘 가면서까지 친절 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일러 준 화랑에 들르는 걸 잊지 않았다. 용접한 철판을 소재로 가리개처럼 만들어낸 그의 작품은 언뜻 접근이 어려운 완전추상이었지만,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이 숨쉬고 있었고,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나의 시야는 잠시나마 넓어지는 듯했다.

반드시 예술가라야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 미국 시민들과



42. 로스앤젤레스에 들 때마다
숙식을 제공해 주며 친절을 베풀었던
피셔 부인과 함께 그의 집 앞에서.
1972. 10.

1967년 맺었던 친분은 아직 끊이질 않고 있으니 말이다.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때만 해도 시(市)마다 자원(自願) 리셉셔니스트(receptionist)가 따라붙게 되어 있었지만, 한 번의 초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며칠간 숙식을 제공해야 했으므로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자원자로 나서곤 했다. 시카고에서는 두 가정에 신세를 졌다. 그 하나는 철강업을 하는 부호 집이었는데, 저녁이면 예술가를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지곤 해서 나에게 미국의 상류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러나 친구 사이가 되자면 서로 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법. 철강 부호 집에서 호사를 누리긴 했지만 오늘까지 친구로 남아 있는 건 오히려 조출한 대접을 베풀었던 버그(Berg) 부부 쪽이다. 그들은 시카고에서 포목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량한 미국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버그 부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비록 부호는 아니었을망정 힘 자라는 데까지 살뜰한 대접을 아끼지 않던 그들의 마음씨는 내 기억에서 떠나질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생각을 할 때면 '보고 싶은 얼굴'로 버그 부부가 먼저 떠오르곤 한다.

귀국길 로스앤젤레스에 들러 올 때였다. 비행장에 내렸는데 웬 노인 내외가 '미세스 김(Mrs. Kim)'이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들 역시 자원 리셉셔니스트로 나를 마중 나온 참이었고 자신들을 피셔(Fisher) 부부라고 소개했다. 미스터 피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큰 자동차 서비스 스테이션

(service station)을 아들에게 넘겨주고는 은퇴생활에 들어가 있던 노인으로, 남 아도는 부(富)와 시간을 일부나마 활용키 위해 호스트(host) 노릇을 자청해 온 터였다.

그들은 내게 이층의 큰 방을 내주었는데, 카펫이나 침대가 모두 분홍으로 꾸며져 있었고 도배까지 같은 분홍색으로 새로 해 놓아, 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반기는 듯했다. 그후 ‘핑크 룸(pink room)’은 아예 내 방처럼 돼 버려 로스앤젤레스를 지날 때마다 묵어 가는 게 예사로 되어 버렸다. 내 구두까지 손수 닦아 줄 정도로 그때 피셔 노부부가 정도 이상의 친절을 내게 베푼 것은 물론 타고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워낙 쓸쓸하다 보니까 더욱 그렇게 된 것 같다.

아무리 부를 쌓아 놓았더라도 미국 노인의 말년처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 피셔 부부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외아들이 일찍 결혼해 나가고는 그 큰 집에 동그마니 두 노인만 남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세월을 보내는 판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고 혈육에게 못 다한 정을 쏟아 놓았던 것이다. 그래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의지라도 되어 나았겠지만, 1969년 남편 피셔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피셔 할머니에게는 무슨 낙이 남아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어 온다.

인상 깊은 선배들

청전(靑田) 이상범(李象範) 선생은 '60년대에 내가 흥대에 재직하는 동안 존경하는 웃어른으로 모시던 분이였다. 청전 선생의 수묵화(水墨畵)에 대해서야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그 친근 소박한 필치는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좋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솟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만큼 한국인의 가슴에 와 닿도록 산수를 정겹게 펼쳐 나간 분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청전의 인물됨을 얘기하는 것은 표현이 짧은 나로선 힘에 벅찬 일이다. 이렇다 할 특징이나 기벽(奇癖)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림 속에만 묻혀 지낸 분이었으니 쉽게 설명하기가 더욱 어렵다.

당시 선생 댁은 누하동이었다. 한옥 기와집이었는데 한 귀퉁이를 화실로 쓰고 계셨다. 나로서는 선생 댁에 드나들면서 동양화가의 화실은 처음 구경한 셈이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도록 정돈이 잘된 실내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한가운데 한복을 단정히 차려 입고 화폭을 향해 정좌해 계신 선생의 모습은 화가라기 보다는 선승(禪僧)에 가까운 것이었다.

붓을 들었다 하면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 일하시던 모습을 뵈어 온 나는, 일단 완성된 작품에 대해선 그다지 집착을 보이지 않던 선생의 태도에 의아해지곤 했다. 턱없이 싼 값을 부르는 화상(畫商)들을 맞으면서 아예 거저 가져가라고 내주시기 일쑤였고, 도대체 흥정이란 걸 하는 법이 없었다. 유학길에 오를 때마다 유용하게 쓰라며 내게도 선선히 그림을 내주시곤 했다. 그때그때 선물을 하기도 하고 팔아 학비에도 보태다 보니 그 귀한 그림들이 지금 내 수중엔 하나도 남아 있지를 않다. 결국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좇은 셈이 되긴 했지만 이제 와선 아쉬운 마음뿐이다.

선생은 취미로 금계(金鷄)를 치셨고, 연못을 파고 붕어도 기르셨다. 붓을 쉬실 때면 뜰에 나가 금계에 모이도 주고 붕어 노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던 선생은, 자신이 바로 자연을 벗 삼던 동양화 속의 한 사람, 은자(隱者)가 아니었을까.

김경승(金景承) 선생도 '60년대에 홍대에 재직하고 계셨다.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上野美術學校, 오늘의 동경미술학교) 출신이었던 선생은 나이로는 나보다 두서넛 손위였지만 조각으로는 대선배격이었다. 처음에는 '선배는 어디까지나 선배다' 하는 관념적인 생각에 묶여 서로 가까워지지 못했다. 원로로서 우리를 뿐 감히 접근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회적으로 차차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같이 드나들다 보니 선생과의 간격은 차차 좁혀져 갔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선생을 기대지 않고는 못 살 만큼 선생은 나의 후견인 비슷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에 나가시던 김중영(金鍾瑛) 선생과는 서로 학교가 다른 관계로 자주 만나 뵈지는 못했지만, 먼발치로나마 존경의 마음을 바쳐 오고 있다. 대학교수로서, 또 한 사람의 작가로서 그분만큼 의연하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

다. 결코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돈 버는 데 급급하지 않았고,功名심(功名心)에 휩쓸리는 일도 없었다. 따라서 전시회나 그룹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기보다는 작품 자체에만 성실하면 그만이라는 초연한 자세를 지켜 오신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선생 같은 군자가 살기엔 적당치 못한 곳이 돼 버렸나 보다. 선생의 역작 중의 역작으로 꼽히는 '삼일운동 기념비'는 원래 자리였던 파고다공원에서 쫓겨나 지금 삼청공원 한 귀퉁이에서 잊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작품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에야 그런 무법행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선생의 인품과 아울러 그 작품에 대해 평소 두터운 신뢰심을 품고 있는 예술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과는 같이 「국전」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 내 고집도 알아주는 고집이지만 선생의 고집은 불통에 가까울 정도였다. 두 고집이 한자리에 만났으니 쉽게 의견이 좁혀질 리 없었다. 그 대신 두 고집은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니 심사위원으로서는 적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마동 선생

이 달초 재미(在美) 화가 이마동(李馬銅) 선생의 부음을 신문에서 접하고는 '멋쟁이 한 사람이 또 가는구나' 하는 한탄과 함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내쉬어졌다. 이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부산 피난시절의 일이었지만, 워낙 알려진 화가인 데다 숙명학교 다닐 때 사모님이 우리 학교 미술선생으로 계셔서 일찍이 말씀은 많이 듣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단체로 「조선미술전람회」 구경을 가곤 했는데, 아이들이 “저기 윤 선생 있다”고 해서 가까이 가 보면 미인으로 이름났던 우리 미술선생님이 모델로 그림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었고, 그런 이는 다름 아닌 이마동 선생이었다.

숙명 이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웃집 여학생과 그 오빠와 셋이서 명동에 있던 희락관이라는 영화관에 구경 간 일이 있다. 구경 도중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옆을 보니 바로 윤 선생이 앉아 있질 않는가. 학교에서 가지 말라는

영화관에 들어온 것부터 찢리는 데다, 비록 친구 오빠일망정 남성까지 동반한 행위는 여학생의 신분으로선 중죄(重罪)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영화를 보다 말고 뛰어나오긴 했으나 놀란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를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일 때문에 밤새 고민으로 지새운 나는 이튿날 학교에 가자마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윤 선생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다. 그러나 야단을 치는커녕 의외로 선생 자신이 우물쭈물하는 눈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 선생도 그때 이마동 선생과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선생 또한 윤 선생 못지 않게 인물이 흰했던 분으로, 두 사람의 미남 미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애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이 벽에 부딪치자 두 분은 소설이나 나옴직한 도피행각에 뛰어들어 장안의 화제의 초점이 돼 버린 것이다.

부산 시절엔 나도 이 선생을 따라 술집깨나 돌아다녔다. 사모님에게는 밤낮 야단 맞으면서도 술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었던 선생은 “우리 호랑이 마누라가 알면 또 큰일날 텐데” 하시며 연방 걱정을 하면서도 어느새 술잔을 비워 버리는 것이었다. 문제는 술버릇이었다.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면 입었던 옷을 한 가지씩 훌훌 벗어 던지셨으니 말이다. 저고리 벗고 바지도 벗고 다 벗은 다음, 나중에 달랑 남은 팬츠마저 벗으려는 눈치여서 주위 사람들을 당황시키곤 했다.

그렇게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던 분이 남의 땅에 이민 가서 오죽 답답하셨을까. 자식들 따라 미국 들어간 것이 재작년의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삭막한 객지생활이 선생의 명을 재촉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술을 물 쓰듯 쓰다 술로 돌아간 또 한 사람의 풍류객이 있으니, 바로 손응성(孫應星) 선생이시다. 원래 선생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선생 대(代)에 와서 거덜이 났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은 돈 버는 일과는 담쌓은 채로 밤낮 술만 마셔 댔으니...

내가 첫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소포 하나가 내게 전해졌다. 유학시절 다정한 친구였던 제인(Jane)이 부쳐 준 것이었는데, 펼치고 보니 고급 코르텐으로 큼직하게 지어진 헌팅 코트(hunting coat)였다. 내 마음에 들긴 했지만 두툼한

코트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한겨울을 오버코트(overcoat)도 없이 썰렁하게 나곤 하던 손 선생이었다. 혹 무안해 하실까 하여 “이런 것 입으시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더니, 선생은 없어 못 입었다는 듯 당장 그 날부터 입고 다니시는 것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나, 김 여사 아주 건방진 사람으로 봤는데 사귀어 보니 그렇지만도 않더군. 오버 없이 다니는 꼴이 측은했던지 자기 옷을 내주더구만”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새 코트를 자랑하더라는 것이었다.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년에는 그림이 잘 팔려 코트를 몇 벌이라도 사 입으실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형편이 피자 세상을 떠나실 것은 또 뭐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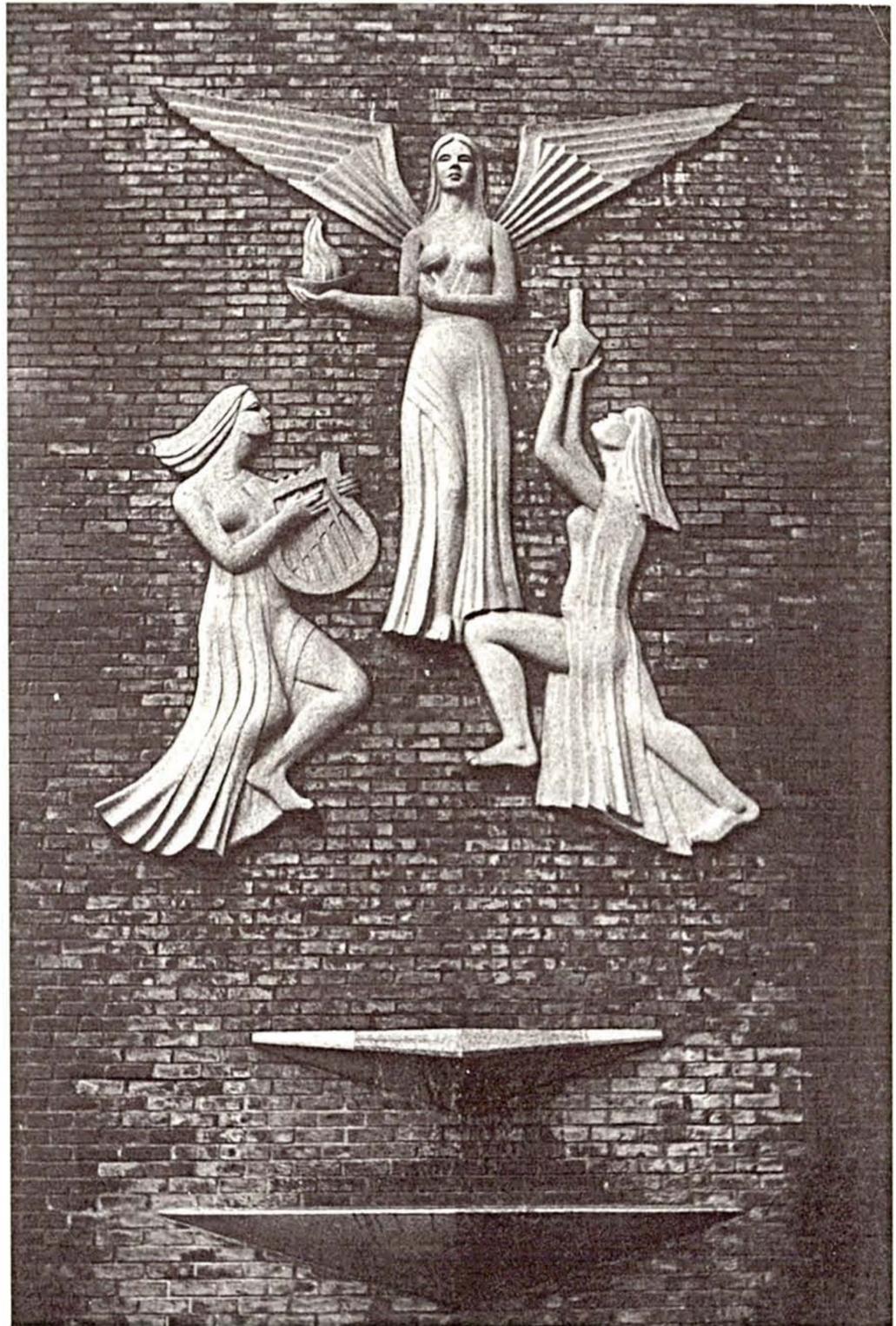
다행히 아드님 한 분이 화가로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싶게 대기(大器)가 될 조짐이 보여 주목받고 있다.

YWCA 벗들

교유록이라고 쓰다 보니 어찌 남자 얘기에 치우친 것 같다. 그렇지만 내게 여류(女流)와의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랜 사귀음을 나누고 있는 임옥인(林玉仁) 선생이 우선 생각난다. 작가로서의 임 선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을 줄 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인간 임 선생 쪽이다.

내 보기에 글재주는 그분이 가진 미덕(美德)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우선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분의 깊은 신앙심엔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쉽지 종교적인 사랑이란 얼마나 광범위하고도 멀고먼 길이겠는가. 임 선생의 일생은 바로 종교적인 사랑에 헌신해 온 하나의 순애보(殉愛譜)가 아닐까 싶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데서 만족을 찾고 남을 위한 자기희생을 오히려 달갑게 여기는 분이다. 여류문인회장, 서울 YWCA 회장 등을 지낸 그의 리더십도 알아줄 만하다. 내가 1963년 YWCA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당시 이사로 있던 선생의 감화(感化)를 입은 때문이다.

어찌다 댁에 놀러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적이 없다. 항상 무얼 주지 못해 애를 쓰시는 선생은 하다 못해 손수 만든 골무나 허리띠라도 쥐어 보내야



43. 박에스더 여사의 제안으로 대한 YWCA 연합회 신축 건물 벽면에 조각한, YWCA를 상징하는 부조. 1968. 이 외에도 김정숙은 1969년에, 기독교 연합회관 현관에 세계 종교를 상징하는, 만인의 구세주상(救世主像)과 그를 향해 나아가는 신도들의 행렬을 부각하기도 했다.

속이 풀리는 성품이었다. 흔히들 함경도 사람은 억세다고 하는데, 어쩌면 임 선생은 그렇게 비단같이 곱기만 하실까.

안타까운 것은 가엾을 정도로 일생을 병치레에 시달려 오시고도 요즘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건강이다. 다행히 부군(夫君) 방기환(方基煥) 선생의 극진한 간호가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방 선생과의 부부애(夫婦愛)는 전부터 유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방 선생을 안 만났더라면 어찌셨을까 싶다. 아무튼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정다감한 옛 모습으로 되돌아오시길 빌 뿐이다.

YWCA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중요한 또 한 분은 박에스더 여사이다. 한국 YWCA의 산 역사(歷史)라고 할 만큼 YWCA 활동에 공헌이 지대했던 그는, 나

에게 YWCA 정신을 새삼 일깨워 주곤 하던 분이다. 내가 국제 친선부 일을 보고 있을 때 그는 고문으로 계셨다. YWCA는 세계적인 것이고 그 속의 국제 친선부는 바로 세계로 통할 수 있는 문으로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여 회원들 사이에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도록 유도하던 그는 과연 뛰어난 리더였다.

YWCA 연합회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그의 숨은 노력이 많았다. 돈을 쌓아 놓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없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 가며 벌여 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정난에 허덕여야 했고, 나중엔 빚 독촉에 몰려 에스더 여사 자신이 캐비닛 속에 숨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내가 그때 회관의 벽면 부조(浮彫) 제작을 맡았던 것도 에스더 여사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었다.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도중에 그는 자포자기하여 중지하자고 한 일까지 있었다. 초창기 YWCA의 가난한 사정은 나 역시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여자들 하는 일이란 이렇다'는 말을 들을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일을 계속해 갔다. 결국 서로서로 부축해 가며 다시 일어서 YWCA 건물은 준공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에스더 여사에겐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지만,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그의 넘치는 활력이다. 칠순에 접어들고도 전연 노인 같지가 않았다. 은퇴 후 하와이로 돌아간 뒤엔 펍 썰썰했나 보다. 친구 좋아하고 봉사 좋아하는 분이 노인만 사는 아파트 속에서 얼마나 갇힌 듯 갑갑했을까. YWCA를 떠난 뒤 한가해진 그는 처



44. 존타(ZONTA) 서울 클럽에서 일선 위문품을 보내기 직전에, 수도여고에서의 기념사진. 왼쪽부터 송수남(숙명여대 무용과 교수), 김정숙, 주월영(수도여고 교장), 양순담(걸스카웃 총재). 1971. 12. 김정숙은 YWCA, 존타 클럽, 정동교회 등에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음으로 내게 노인으로 느껴져 왔다.

현 서울 YWCA 회장 이차례(李次禮) 씨는 이화여전 출신으로 집안으로도 아는 사이여서 '차례 언니' 라고 부르며 따르곤 했다. 항상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옛날식 머리로 고풍(古風)을 느끼게 해주는 언니는, 한 조직의 리더이면서도 고운 가정부인의 태가 한결 질다.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체구에 잡수시는 것도 새처럼 소량이어서 주위에서는 걱정들도 많지만, 외유내강이랄까 은근히 강단이 있다는 평이다.

오랜 기독교 생활을 통해 내면도 겉모습처럼 고요하게 가꿔 온 분으로, 존경스런 선배의 한 사람으로 모시고 있다.

전숙희, 신지식 씨

전숙희(田淑禧) 언니는 몇 사람 몫을 뛰어 온 활동가이다. 또한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걸 보면 누구 못지 않은 수완가임에 틀림없다. 그를 그냥 수필가라고만 소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소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화여전 다닐 때 윗반 상급생 정도로만 기억하던 언니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환도 후부터였다. 알고 보니 우리는 보통학교에서도 선후배간이어서 서로의 '인연' 을 즐겨 화제로 삼곤 했다. 사실 우리는 진작 친해졌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만난 순간부터 그렇게 서로 의기가 상통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환도 후 다방이다 술집이다 해서 같이 몰려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더욱 자주 만나기 위해 계(契)까지 하나 만들었으니 말이다.

언니가 손수 다방을 차린 뒤엔 문화인이란 문화인은 다 그곳으로 모여들다시피 했다. 환도 후 예술이고 뭐고 채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서로 연락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다방 같은 것이 마침 아쉽던 차였다. 언니의 아이디어가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나 할까.

오래 전부터의 일이지만 잡지사 일에도 손대 오고 있는 언니는 월간지 『동서문화(東西文化)』를 오늘까지 끄떡없이 이끌어 오고 있다. 수필집도 여러 권 내면서 틈틈이 아이들 교육도 어찌나 훌륭히 시켜 놓았는지, 모두들 수재(秀才)



45. 신지식 씨의 동화 「황옥공주」와 함께 부산 동백섬에 세울 '인어공주 동상'의 제작 직후, 주물공장에서 제작자 이형우와 함께. 1974.

소리를 듣고 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벌여 오면서도 한편으론 항상 뭔가 뜻있는 일을 찾아 오던 언니는 마침내 그 뭔가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 년 전 안양(安養)에 계원예술고등학교(桂園藝術高等學校)를 세운 것이다. 말 그대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것보다. 학교를 하나 움직인다는 것이 보통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욕(私慾) 없이 하는 학교라서 지금대로만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조각가로 자라난 큰딸 강은엽(姜恩葉)이 어머니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조(一助)하고 있다.

아동문학가 신지식(申智植) 씨와 나를 맺어 준 것은 '인어공주'였다. 1974년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 인어 동상을 하나 세워 달라고 내게 청이 들어왔을 때, 기왕이면 인어를 소재로 한 동화 하나가 곁들여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찾아 부탁했던 것이다. 고맙게도 그는 선뜻 응낙을 해주었고 '황옥공주(黃玉公主)'라는 이름 아래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게 되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살고 있었던 인어공주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 우리나라 해안에 닿았는데, 아름다운 인어공주는 마침 이 나라 왕자 눈에 띄게 되었다. 왕자를 만나자마자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인어의 꼬리는 사라지고 공주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간단한 줄거리였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동화집이 나오자마자 김해(金海) 김씨(金氏) 종친회라나 하는 데서 항의가 빗발치는 거였다. "그래 우리 조상 할머니가 겨우 인어란 말

이나”며 대드는 데는 혼줄이 났지만, 한편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었다. 잠시 동심(童心)에 잠겨 보라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조상까지 들먹여 가며 시비를 거는 어른들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인어 동상’이 제막된 것은 마침 어린이날이었다. 안데르센 동화에 따른 코펜하겐(Copenhagen) 항구의 인어 동상은 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나의 인어는 서 있는 인어다. 얼마 전에 들러 보니 어느덧 길이 반들반들 들고 청동색의 인어는 꼬리 부분이 노랗게 벗겨져 나가 있었다. 신혼부부들이 거기 앉아 사진도 찍고 꼬마들이 한 번씩 안아 보곤 하기 때문이란다.

신지식 씨를 좀더 알게 된 것은 동상 관계 일로 부산에서 같은 호텔에 들었을 때다. 여자 중의 여자라고나 할까, 자상하고 껌싸고 사람 대하는 데 도대체 빈틈이란 게 없다. 내가 손위이기 는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며 내 옷까지 개켜 줄 정도로 마음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 마음 씬스면 어른으로서 능히 어린이 마음까지도 꿰뚫을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좋은 동화도 나오게 되는가 보다.

박서보 씨

미술계의 둘도 없는 일꾼 박서보(朴栖甫) 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한다. 그가 화가로서 추상계열에서 일가(一家)를 이루어 놓은 공도 공이려니와, 지난해 그 아성(牙城)이 무너지기까지 십 년 가까이 미협(美協) 이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뚝심 좋게 많은 일을 해냈다.

한국 화가들이 지금만큼이나 해외에 나가 행세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일찍이 터를 닦아 놓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파리 청년작가전」을 비롯, 여기저기 국제전마다 길을 트고 다닌 것이 바로 그였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는 게 어려운 법인데, 미술계에서 뭔가 시작은 서보 씨가 다 해 놓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자기 작품이나 꾸준히 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예술가들의 사고방식인데, 서보 씨는 기질상 그런 이기적인 타입이 못 되었다.

그들에 가린 신진들을 발굴해내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후진들을 키워내는 데

도 남달리 마음을 많이 썼다. 사실 말이지 젊은 작가들이 빛을 보려면 재주만 갖고는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선배가 이끌어 주지 않고는 소위 출세란 힘든 법인데, 지금 추상계열에 있는 사람치고 서보 씨의 뒷받침을 안 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다.

그러나 일을 하느라 한쪽에선 인심도 잃게 마련인지 서보 씨처럼 남의 미움을 많이 산 인물도 드물 것 같다. 국제전에 출품하거나 할 때 작가 선정이 잘못 되어도 그의 탓이고, 그저 모든 게 그의 탓이었다. 요(要)는 서보 씨가 자기 사람만 내보낸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서보 씨 방식에도 일리는 있는 것 같다. 국제전에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보내 심사위원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6.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열린 국제미술협회 7차 총회 참석차 유럽으로 떠났을 때, 파리에서 서세옥 씨와 함께. 1973.

내가 서보 씨와 가까워진 것은 '70년대에 들어와서지만, 처음 알기는 그가 홍대 학생으로 재학할 때부터였다. 그냥 얼굴이나 아는 사이였는데, 걸핏하면 자기는 군대엔 죽어도 안 간다고 떠벌리는 것이 속으로 아니꼬웠다. 서로 잘 모를 때라 별꼴 다 보겠다 싶었는데 사귀고 보니 그렇게 좋은 사람일 줄이야.

그가 그림 그리는 데 바쳐 온 피나는 노력도 높이 사 주어야 한다. 오랜 세월을 옆치락뒤치락하던 각고 끝에 이제는 자기의 갈 길을 찾은 모양이다. 묘

법(描法)에만 매달려 십여 년을 계속해 오고 있으니 말이다.

박서보 씨 이전에 미협 이사장직을 맡았던 서세옥(徐世鈺) 씨에 대해서는 같이 여행을 해 보기 전까지는 밍살스럽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었다. 젊은 사람답지 않게 점잔빼다고나 할까. 외모도 그렇지만 성품도 너무 깔끔해서 그런지 뻗뻗한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다. 팔자 걸음에 말도 느릿느릿 해 가며 군자(君子) 연하는 것이, 내놓고 말해 내 마음엔 들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불가리아의 바르나(Varna)에서 열린 국제미술협회 7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여행하는 동안 그에 대한 나쁜 선입견은 많이 씻어졌다. 공산국인 불가리아 입국이 좌절돼 파리에서만 머무르게 됐지만, 서세옥 씨가 일면 소탈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여행 가는 데 칫솔만 있으면 되지 뭐” 하더니 진짜 칫솔 하나만 달랑 가지고 오질 않겠는가. 큰 가방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 속엔 웬 커다란 함지박 하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물할 데가 있어 가져왔다는 얘기였다.

서울대 회화과 1회 졸업생인 서세옥 씨와 조소과 1회 졸업생인 김세중(金世中) 씨는 동기동창이다. 해방 후 서울대와 홍익대 미술대학에 동시에 조각과가 생기면서 일회 졸업생으로 홍익대에서는 나 하나가 나왔고, 서울대 쪽에서는 김세중 씨가 나왔던 것이다.

김세중 씨는 서세옥 씨와는 또 다른 뚜렷한 개성의 소유자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대로 남자다운 사람이요, 호걸이다. 폭이 넓고 웅졸하지 않다. 그런 인품은 그에게 서울대 미대 학장까지 지내게 했고,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다. 작품경향은 추상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상이 대부분이다. 조각가로서 투시도에 능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아무튼 그는 조각계에 우뚝 솟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홍대의 기인들

홍대 식구 중엔 기인(奇人)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묵(韓默) 선생과 나상기(羅相紀) 선생은 빼지 못할 사람들이다. 금강산 근처에 살다 월남했다는 한

선생은, 눈만 조금 컸더라면 넓적한 얼굴에 단발을 늘어뜨린 모습이 꼭 '베토벤'이었다.

이상주의자여서 그랬는지 신이 넘어서야 늦장가를 갔던 선생은 회화에도 실력이 있지만, 과묵하고 믿음직하고 인간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분이어서 오라버니처럼 따르곤 했다. 도대체 사치란 것을 모르고 허례허식이란 게 없어, 대하고 보면 그렇게 편안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파리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요즘 주로 판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작품에서 그의 성품은 그대로 드러난다. 추상이지만 둥근 선으로 자꾸만 돌려 나가는 가운데 착 가라앉은 안정된 분위기가 배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점잖은 분이 1959년 같이 법주사(法住寺)에 갔을 때는 어떻게나 밤새도록 방귀만 뀌어 대던지, 웬 방귀냐고 했더니 그 대답이 또 걸작이었다. 상한 돼지고기를 먹은 탓인데, 돼지고기라는 게 원래 막 상하려고 할 때가 제일 맛이 있구나.

그때 법주사 여행엔 괴짜들의 기행(奇行)이 속출해서, 나상기 선생은 또 밤이면 밤마다 우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장가 안 보내 준다는 것이었는데, 애교스럽기도 했지만 독신은 독신으로 아이들이 딸린 몸이었으니 선뜻 도와주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서로 알기는 나 선생이 아직 꿈 많은 청년이던 '50년대 무렵부터였다. 지금은 건축과가 공대(工大) 안에 있지만 그때는 같은 미술부 소속이어서 건축선생이던 나 선생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많았다. 교수들의 사무실도 하나뿐이었던 당시엔 모두들 한 식구처럼 오붓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특히 나 선생과는 친오누이 이상으로 가까웠다.

나 선생을 처음 보는 사람은 오해를 품기 쉽다. 언뜻 허황된 듯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 도중 과장이 섞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거짓말은 아닌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허풍 중에도 신의랄까 의리랄까는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선생의 진면목인 것이다.

소원하던 부인도 맞아들이고 요즘은 홍대 환경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선생은 또

남달리 동료 생각을 많이 해주는 분으로도 유명하다. 발이 넓은 탓도 있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곤 한다. 내가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인어 동상을 맡게 된 것도 바로 선생이 다리를 놓아 주신 덕이었다.

작고하셨지만 또 한 분의 가까웠던 건축가로는 정인국(鄭寅國) 선생을 들 수 있다. 환도 직후인 1954년 홍대 내에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과장으로 모셔 온 분이다.

선생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미안한 일이 있다. 다름 아니라 1955년 한미재단에서 미국 유학 보낼 사람으로 원래 뽑아 놓은 것이 바로 정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학생은 순수미술 전공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대신 내가 가기로 되었던 것이다.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나로서는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싫은 내색 한 번 없으셨다. 그렇게나 신사였던 것이다. 과묵한 중에 사귄수록 신뢰가 가던 선생은 그 뒤로 나의 카운셀러의 한 분이 되어 주셨다.

건축계에서의 선생의 공헌은 굳이 내 입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즘 웬만한 건축가들은 대개가 그분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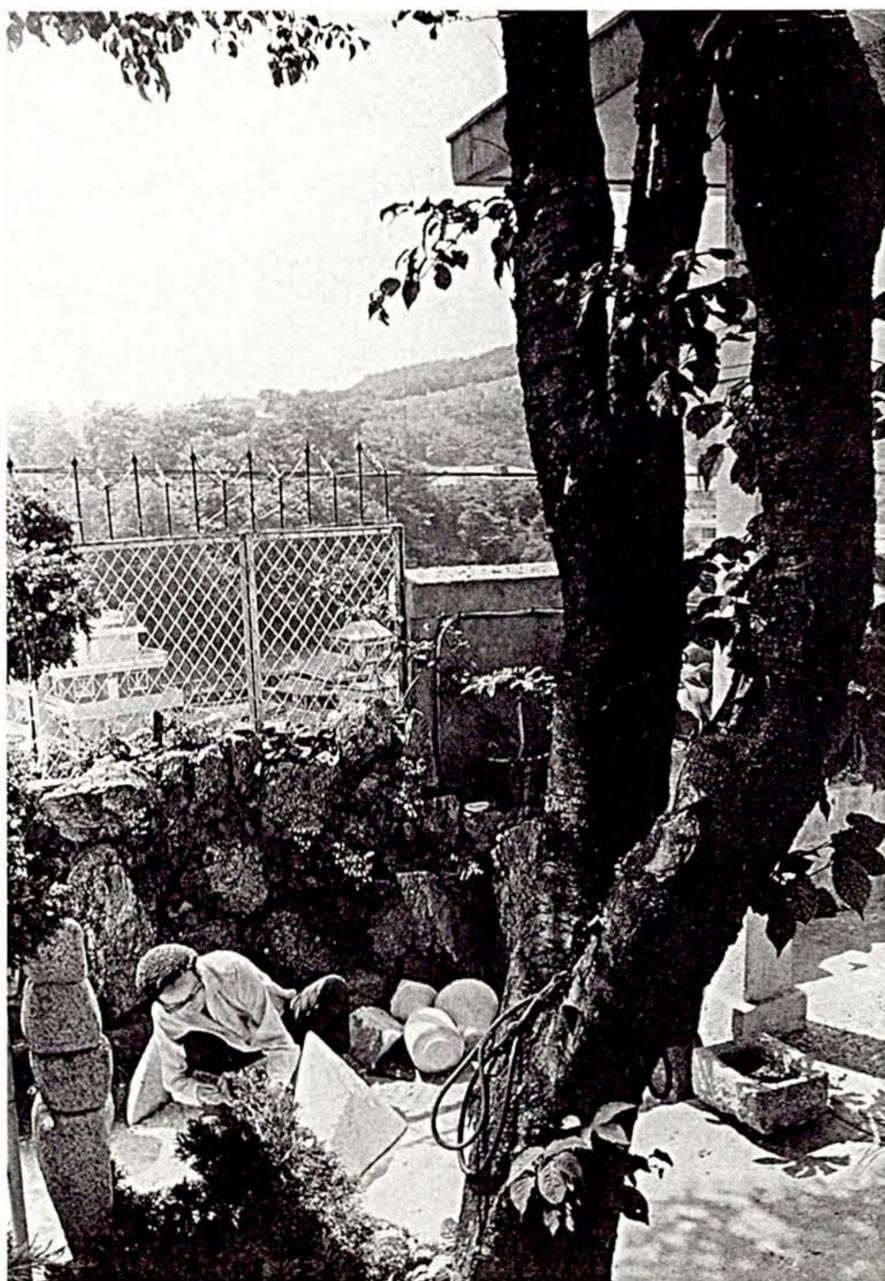
학생 때 내게 미술해부학을 가르치셨던 김원(金原) 선생과는 이십여 년을 한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동료처럼 스스럼없이 돼 버렸다. 지금은 칠순에 접어들어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여전히 학교에 나와 강의를 하고 있다. 명예교수로서 퇴직 후에까지 강의를 맡은 것은 선생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한다. 예나 지금이나 그 정력엔 부러움을 금할 길 없다. 젊은 시절엔 모양깨나 내시더니 요즘엔 그런 데 쏟을 정력까지는 없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칠순에 그만한 건강을 향유하시는 건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마도 술병 근처에도 안 가는 평소의 건강관리 탓인가 싶다. 작품 제작을 위해 지방은 물론 외국에까지 나가시는 걸 보면 확실히 선생은 나이를 잊고 사는 분이다. 작품에는 풍경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설경(雪景)을 즐겨 그리곤 한다.

생각나는 대가들

이제 나의 교유록(交遊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글은 역시 조각가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장식하고 싶다. 책으로, 작품으로 익히 알아 오기는 했지만 일본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와 대면을 한 것은 지난해였다.

뉴욕에 있는 그의 제작실로 찾아갔었는데, 그의 첫인상은 로마에서 만났던 그레코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대머리가 벗겨진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생김새 김도 그러했지만, 자기과시를 하려는 품이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부지런하고 활달한 사람이어서 행동으로 보면 노인이랄 수 없었다. 방 가득히 작품이 들어 차 있었는데, 소개라기보다는 자랑이라도 하듯 하나하나 나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전기를 읽고 나는 그를 얼마간 가련하게 생



47. 삼청동 집 마당에서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1972. 6.

각했었다. 일본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로 알려졌었기 때문에 애수(哀愁)에 묻힌 사람이겠거니 상상했던 것이다. 게다가 여배우 출신의 부인과의 갈라서야 했던 그는 가정적으로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얼룩진 과거에 매달리기엔 너무 바쁜 몸이 돼 버렸기 때문일까. 그에게서 무언가 ‘그늘’을 읽으려던 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야 했다.

오시프 자드킨(Ossip Zadkine)을 만난 것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조형미술협회 총

회 참가차 유럽에 갔다가 대가(大家) 자드킨을 만나고 싶은 욕심에 파리로 그의 자택을 방문했던 것이다.

자드킨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그의 대표작 〈오, 로테르담(*Oh, Rotterdam*)〉이다. 일명 ‘심장 없는 사나이’로도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위촉으로 제작된 것이다. 제이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로테르담을 상징하듯 가슴이 패어 나가고 없는 인체(人體) 입상은, 시 한가운데 우뚝 서서 이차대전 종전으로부터 삼십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해 오고 있다.

원래는 소련인으로 파리에 와서 일생을 보냈던 자드킨은 국제적인 작가답게 아틀리에만도 둘이나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거기엔 전용공장까지 딸려 있는 것이었다. 키도 조그만 노인네가 꽤나 정력적이더니 이제는 고인이 돼 버렸다.

파리까지 온 길에 부르델 미술관에 들렀을 때는 유명한 조각가 에밀 앙투안 부르델(Emil Antoine Bourdelle)의 미망인과 마주칠 수 있었다. 아직까지 까만 옷에 까만 베일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지만, 처음 만났는데도 몇 년 사귀 지기(知己)처럼 다정하고 친근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생전의 부르델이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 하루 두 차례씩 미술관에 들르는 것이 그의 일과라고 했다. 마담 부르델에 따르면 미술관은 원래 부르델의 제작실 겸 살롱이었다고 하는데, 술과 커피잔을 앞에 놓고 당대의 예술가들이 담화를 즐기는 한옆에서 부르델은 작품에 열중했었다는 것이다.

부르델 사후(死後)엔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부자 친구 하나가 살롱을 아주 사서 부르델 부인에게 주었지만, 부인은 국가에 그 관리를 넘겨 현재까지 미술관은 파리 시 소유가 되어 있다. 미술관이 자리잡은 거리까지 앙투안 부르델 가(街)로 명명돼 오가는 사람의 가슴에 옛 예술가를 추억시키려는 배려는 멀리서 온 나그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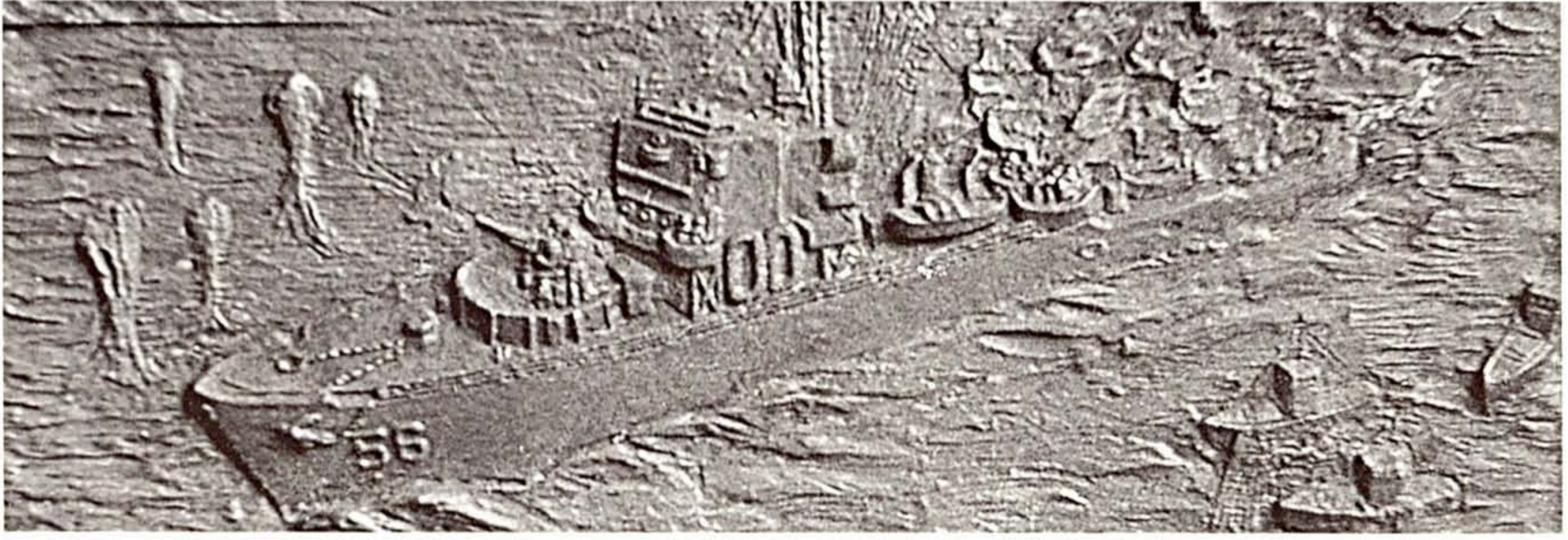
마당에는 마로니에 잎사귀가 수북이 쌓여 있었으나, 부인은 낙엽을 밟는 소리가 좋아 쓸지 않고 둔다고 했다. 내가 그의 남편 얘기를 꺼냈더니 어찌나 반가

위하던지, 자신은 비록 예술인은 아니었을망정 남편의 예술을 후대(後代)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듯했다. 딸 하나도 미술관 일에 관계하고 있었으며, 사위도 평론가로서 장인에 대한 책을 발간하는 등 부르텔 기념사업을 위해 일가가 총동원되다시피 애쓰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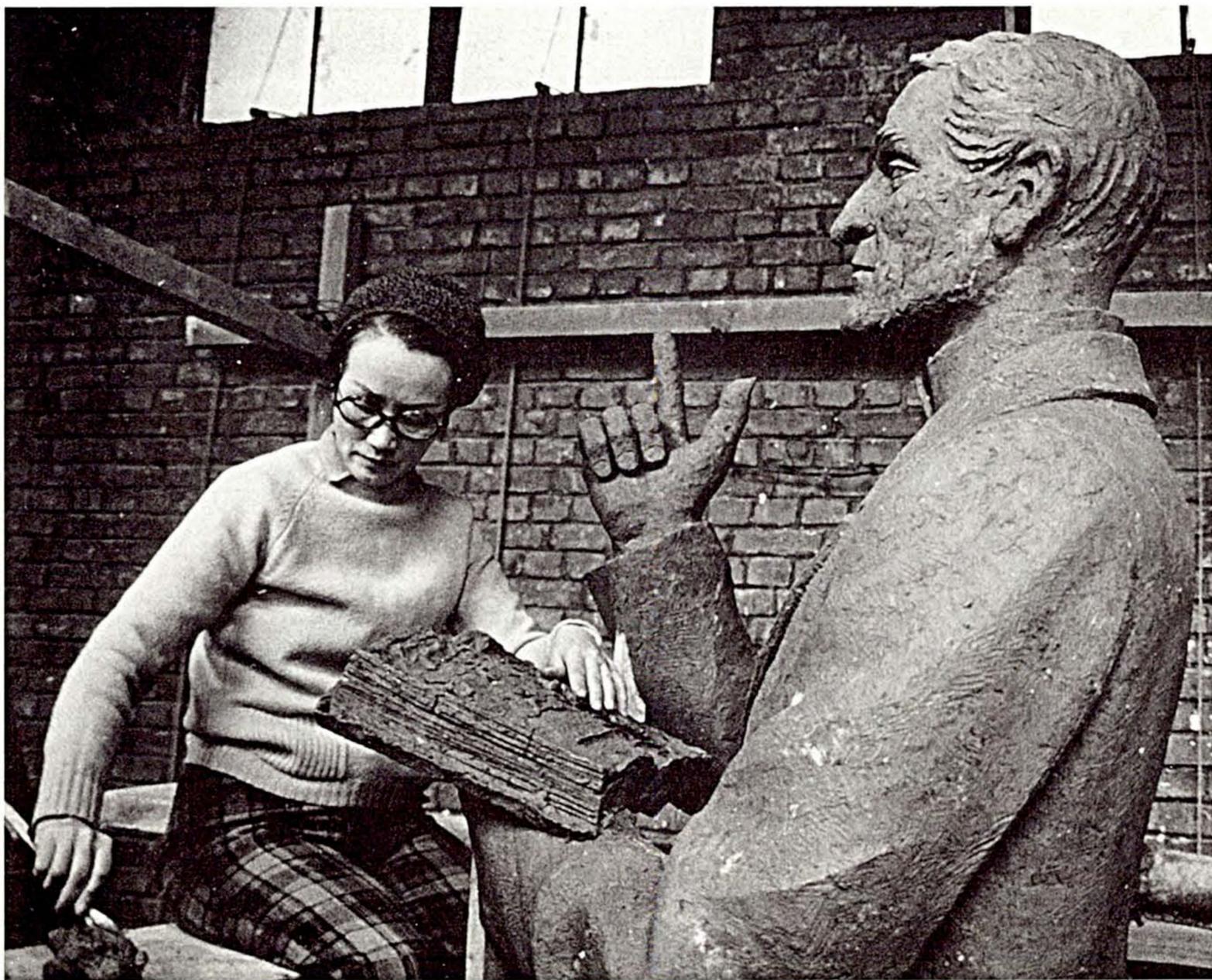
그렇게 우연히 만났던 인연을 잊지 않고 내가 귀국한 뒤에도 미술관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마담 부르텔로부터 통지가 날아들곤 했다. 배편으로 오느라 시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것이 유감이었지만.

1962년인가 부르텔 백년제(百年祭) 오픈에도 어김없이 초청장은 날아들었고, 그러는 사이 내 마음속에 어느덧 한 사람의 친구로 자리잡아 가던 부르텔 부인은 1973년에 다시 방문해 보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가을도 다 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섰다. 내 삶도 새로운 빛이 늘어나기보다는 소중한 빛들의 수가 줄어드는 계절에 접어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만남과 교유는 작은 기적(奇蹟)과도 같은 것.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마음을 열고 만남의 기적을 기다리련다.



48. 56함(艦) 기념
동조각 부조, 1968. 7.
49. YMCA
서울중앙회관에 새긴,
영지체(靈知體)를
상징하는 '힘의 군상'
부조, 1964.
50. 남산시립공원에 세운
'소월(素月) 시비', 1968.



51. '지덕칠(池德七) 중사 동상'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1967. 5.

52. '이인호(李仁浩) 소령 동상' 제작에 한창인 김정숙. 1967. 2.

53.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 동상' 제작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1970. 3.

54. 인하대에 세운 '이승만(李承晩) 박사 동상' 앞에서 유가족과 함께. 왼쪽부터 이인수 교수(이 박사의 양아들), 프란체스카 여사, 이 교수의 부인 조혜자 씨, 김정숙. 1979.

55. 인덕전문대에 세울 '박인덕(朴仁德) 여사 동상' 원형을 완성하고. 1982.





56. 삼청동 집에서 남편 김은우 교수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1960년대초.

57. 남편 김은우의 연세대 재상봉 행사(졸업 후 이십오 년 만에 동문들이 모교에 모이는 행사)에 참가했다가 언더우드 연희전문 설립자 동상 앞에서.(아들 인회가 찍은 사진) 1963. 5.

58. 시부모님 묘소 성묘 후, 귀가 도중 연세대 교정 용재관 앞에서 남편 김은우와 함께.(아들 인회가 찍은 사진) 1982. 4. 5.



59.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방문 후 칼 밀레스(Carl Milles)의 작품 앞에서 남편 김은우와 함께.
(제자 박종배가 찍은 사진) 1972년 가을.



60. 문교부 예술원이 주관하는 '오월문화상' 시상식장에서 수상 후 제자들과 함께. 가운데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김정숙. 1963.

61. 동경(東京) 전국 대학연합 원리연구회(原理研究會)에서 열어 준 '김정숙 선생 환영회'에서.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정숙. 1976. 2.

62. 신문회관 화랑에서 열린 제2회 「김정숙 조각전」 오픈 테이프 커팅 장면. 1971. 10.



63. 서울 현대화랑에서 열린 제5회 「김정숙 조각전」에서 목조작품 <뒤틀림>을 앞에 두고 앙드레김과 함께. 1978. 6.



64. 5회 개인전이 열리던 현대화랑 앞에서 축하객들과 함께. 오른쪽부터 제자 박영희(朴永姬), 미 공보원 상임고문 이연숙(李燕淑) 씨, 김정숙, 서예가 이철경(李喆卿) 씨, 1978. 6.

65. 이십칠 년간의 홍익대 교수생활을 정리하는 정년퇴임식 장면. 1983.



66. '중앙문화대상' 예술상 수상 후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정숙, 서정주(徐廷柱) 선생, 남편 김은우. 1984.



67-72. 서울 미화랑에서 열린 제8회 「김정숙 조각전」에서. 1985. 11.

67. 모운숙(毛允淑) 선생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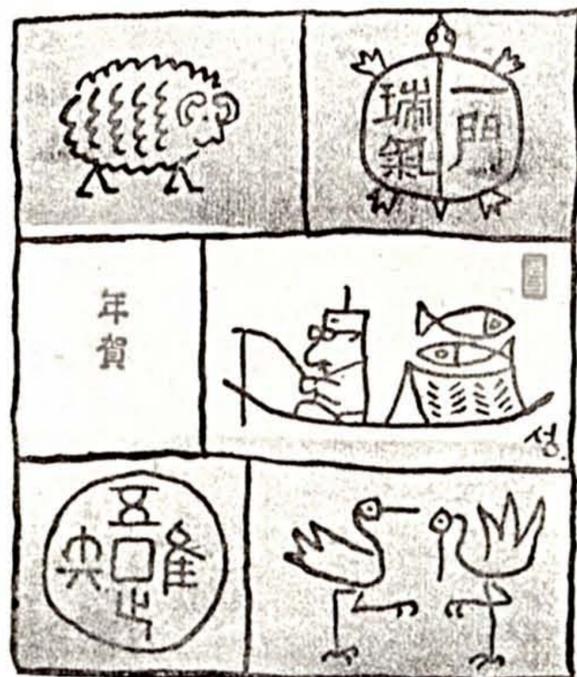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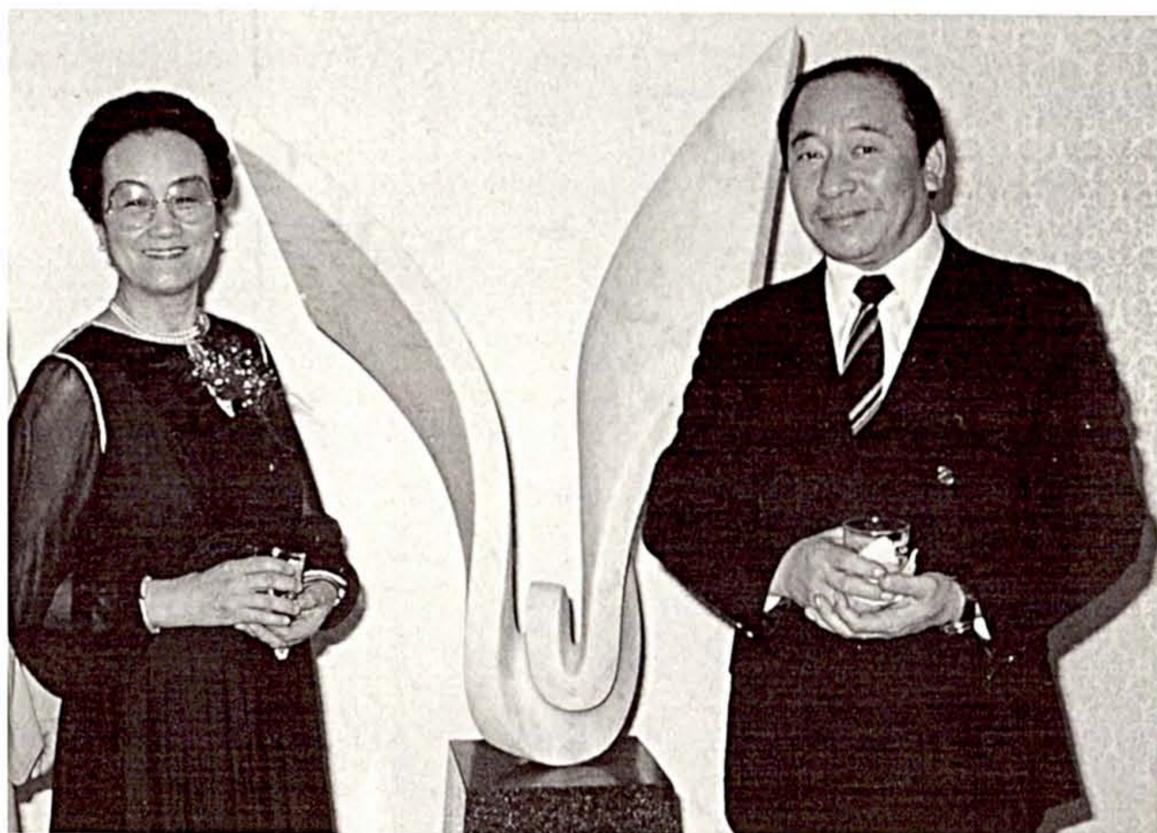
68. 김흥수(金興洙) 화백과 함께.

69. 미술평론가

이일(李逸) 씨(맨 오른쪽),

홍익대 김원(金原) 교수(가운데)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70. 조각가 김세중(金世中) 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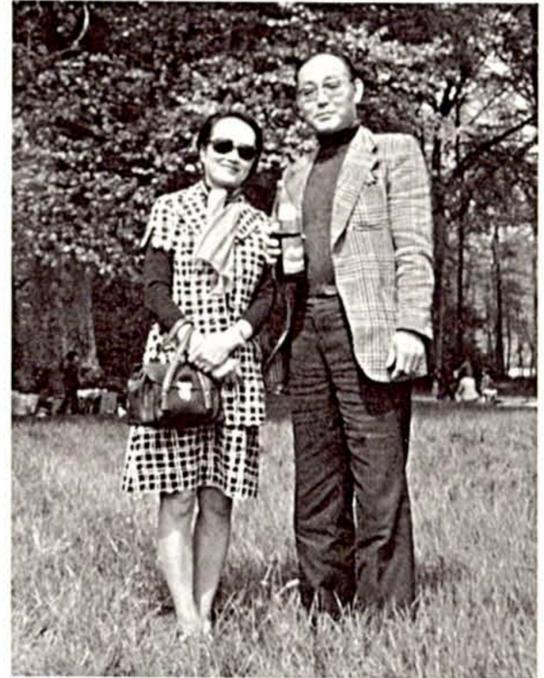
71.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박서보(朴栖甫) 씨와 함께.
72. 고바우 김성환(金星煥) 선생과 함께.
73-74. 김성환 선생이 1984년 12월 24일과 1990년 11월에 보내 준 만화 연하장.



75. 이탈리아 카라라(Carara)의 대리석 채석장에서,
왼쪽부터 제자 이형우·유영교, 김정숙,
남편 김은우, 1982. 1.

76. 멕시코 유카탄(Yucatan) 반도의
마야(Maya) 유적지에서, 1970.

77.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치첸이차(Chichen Itza)의
'희생의 연못' 앞에서 일 년 열두 달 오렌지만 팔고
있는 여인(맨 오른쪽)과 함께, 1970.



78. 파리에서
이어령(李御寧) 씨와
함께, 1973. 5.
79. 파리에서
김중업(金重業) 선생과
함께, 1973. 5.
80. 워싱턴
국립현대미술관의
헨리 무어 작품 앞에서
신상옥(申相玉, 왼쪽),
최은희(崔銀姬, 오른쪽)
부부와 함께, 1985.
81. 속리산 에밀레
박물관에서
조자용(趙子庸) 선생과
함께, 1985. 8.



나의 유학시절

삼남매 남겨 두고 도미(渡美)

내가 미국 유학길에 처음 오른 것은 1955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미처 복구되지 않은 어수선한 시절 한미재단(韓美財團)이 예술하는 사람 세 사람을 미국 유학시키겠다고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에 각각 한 명씩 추천의뢰를 했다. 졸업생이거나 교직에 있는 사람으로 석사과정을 밟을 사람이어야 했다.

그때 홍익대에서는 건축분야에서 한 사람 보내려 했으나, 순수예술이어야 한다는 바람에 조각과 1회 졸업생으로 숙명여고에서 재직 중이던 내가 선택됐다. 졸업 후 일 년 만의 유학이었으나 그때 이미 내겐 삼남매가 있었다. 나의 남편 김은우(金恩雨) 교수는 그때 콜롬비아(Columbia) 대학에 유학 중이었고, 맏아이가 열다섯 살, 국민학교 다니는 막내까지를 맡겨 둘 곳이 없었다. 시집에서는 내 유학을 막기 위해 애들을 맡아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이화여전 가사과를 나와 결혼한 후 삼남매를 낳고 뒤늦게 시작한 조각 공부였다. 한미재단이 예술하는 이들을 미국 유학 보내는 것도 이 기회 단 한 번뿐이라고 했다. 일생일대의 이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삼남매는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맡긴 채.

한미재단이 학교 추천을 받아 보내는 것이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문교부와 미 대사관의 시험을 거쳤다. 한미재단에서는 작품사진을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져가 마땅한 선생이 있는 학교를 물색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에서 망명한 유명한 추상조각가 레오 스테파트(Leo Steppat)가 있던 남부의 미시시피(Mississippi) 주립대학으로 유학이 확정됐다. 내가 선택한 곳은 아니었지만 미시시피 대학에서 나는 레오 스테파트 선생으로부터 개인교습을 받듯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아무튼 국내에선 미술하는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한다고 내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지만, 그때까지 조각가로 미국 유학을 했던 사람은 전혀 없었다. 또한 여자가 조각을 하는 이도 없었다. 따라서 조각 공부를 위해 유학을 떠나는 내 사명감은 크고도 무거웠다.

그때 이화여대에서는 나혜석(羅蕙錫) 씨의 조각로 회화를 하던 나혜균이, 서울대에서는 음악을 하는 이정희가 각각 선발됐었다. 유학을 떠날 때는 공부하고 돌아와 국내 예술계를 위해 봉사하도록 약속된 것이었으나, 우리 중 나혜균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머물다 거기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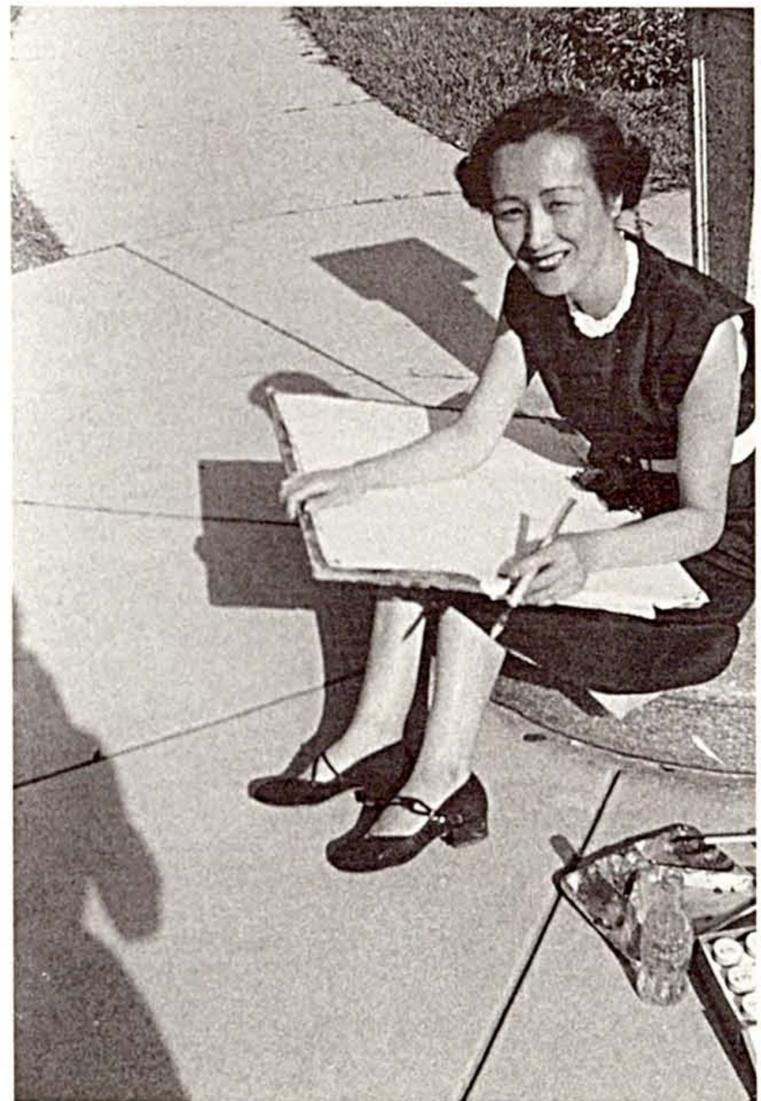
선발은 세 사람이 됐으나 막상 떠날 때는 각각 떠났다. 그때는 부산까지 가서 배편으로 가야만 했을 때다. 혼자 아이들만 남겨둔 채 떠나는 마음은 아무리 비장한 결심을 하고 가는 길일지라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부산 가는 기차 속에서 내내 울며 갔다. 부산에서 며칠 배를 기다리면서도 애들 생각에 많이 울었으나, 막상 배를 타고부터는 심한 배멀미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미재단이 물자를 실어 나르던 그 배는 여객선과 달리 객실이 따로 없었으므로, 식사 등 모든 것은 선장과 함께 할 만큼 호강하며 갔다.

일단 미시시피 대학에 가서는 집념으로 공부에만 매달렸다.

스테파트 교수는 여러 면에서 배울 것이 많은 선생이었다. 우선 그는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달랐다.

꿈만 같았던 뉴욕 생활

레오 스테파트 교수는 내게 먼저 한국인의 얼굴을 크게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기기묘묘한 모양의 바둑돌들을 양손에 들어 보여주며 그 하나하나의 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했다.



82. 미시시피 주립대학 유학시절, 회화시간에 학교 정원에서 야외 실기를 하고 있는 모습. 1955년 여름.

각각의 돌들이 어떻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무슨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 보게 했고 평을 해 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며 공부하게 했다. 그후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조작해 보라고 지시했다. 추상조각을 위한 이미지를 그렇게 구하는 방법만 보여준 채, 나 스스로 추상조각의 첫 걸음마를 시작하게 한 것이다.

그때 교수의 지시로 만든 것이 나의 첫번째 추상조각작품이다. 그것은 지금도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크게 테라초(terrazzo, 대리석 가루와 시멘트 가루를 섞어 만든 인조대리석) 작품을 만들도록 교수는 내게 권했었다. 레오 스테파트 교수와 공부하던 그 무렵에 얻은 아이디어 작품은 그후 귀국하면서 몇 개 갖고 들어왔다.

잡념 없이 공부에만 몰두한 채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자 스테파트 교수는 뉴욕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방학 중에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선생을 따라 뉴욕으로 가 여름방학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



83. 미시시피 시절, 레오 스테파트 교수의 교수법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두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 1955.

출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선생을 따라 뉴욕으로 가 여름방학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

원래 한미재단에서는 학비를 학교나 혹은 제삼의 재정 후원자에게 부담시키고 매달 생활비만 보내 주었는데, 방학 중에는 각자가 일해서 벌어들여 쓰라고 생활비를 보내 주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내가 방학 중 교수연구실에 드나들며 개인교습을 받으려면 생활비 외에 교습비가 더 필요했다. 나는 한미재단에 가서 내 계획을 얘기하고 특별선처를 부탁했더니 내게 예외적인 대우를 해줘 방학



84. 유학시절, 방학을 맞아 남편과 삼 개월을 함께 보내고 뉴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메모와 함께 남편에게 부친 사진. 1955.

“뉴욕을 떠나던 날 5월 12일, 뉴욕 비행장에서 U.A.L. 네시발이 다섯시 반이 되었다, 여섯시 반이 되었다, 일곱시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행장 식당이 어찌 고급인지(뉴욕서도 최고급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였는데, 비행기가 연발이라고 저녁 쿠폰으로 주고 무엇이든지 술 외에는 맘대로 먹으라고 하여 육 불이 넘는 스테이크를 먹었지요. 이것은 에피타이저로 먹은 ‘그레이프 프룻’인데 얼음 위에다 담고 꿀을 치고 또 이상한 것을 올려 놓고 빨간 체리도 놓고 참 보기도 하도 멋있어 사진을 백했어요. 당신의 앤(Ann)이 ‘냠냠’ 하면서.”

중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아마 아이들까지 떼어놓고 유학 온 여성이며 돌아가 배운 것을 가르칠 교수요원이라는 것이 예외를 인정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나는 뉴욕에서 삼 개월 가까운 여름방학을 지내게 되었다. 그때 남편도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로소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남편과 나는 일 년간을 함께 미국에서 유학했다. 남편은 1954년부터 1955년까지 있었고, 나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미국



85. 미시시피 시절,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메모와 함께 부친 사진. 1955.

“엄마가 미시시피에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나오는 길에 예배당 문 앞에서 찍은 것이란다. 이곳에서는, 예배당에 갈 때 여자는 누구나 이런 모자를 쓴단다. 엄마도 이 모자를 생전 처음으로 썼는데 미국 시골뜨기 같지? 그래도 꽤 멋쟁이지 뭐!”



86. 방학을 맞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뉴욕에서의 한때, 1955.

땅에서도 부부가 함께 지낸 시간은 그 여름방학의 삼 개월뿐이었다.

나는 방학 중에도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다섯시까지 교수와 함께 매디슨(Madison) 가(街)의 유명한 갤러리 스튜디오에서 연구하고 작업을 했으나, 남편은 방학 중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자취를 하고 있던 남편은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오는 나를 위해 저녁상을 차려 놓고 기다려 주곤 했다.

그 동안은 결혼 십오 년 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신혼 기간인 셈이었다. 결혼

하고 못 가 본 신혼여행을 대신해 그때 이박삼일로 나이아가라(Niagara) 폭포를 구경하기도 했다.

방학이 끝나 갈 무렵 남편과 나는 미시간(Michigan) 주에 살고 있던 이모뻘 되는 친척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고, 거기서 처음으로 크랜브룩(Cranbrook) 미술학교에 관해 얘길 들었다. 아주머니는 기왕 미술 공부를 하려면 크랜브룩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 부부에게 그 학교를 안내해 줬다.

크랜브룩은 학교 분위기부터 달랐다. 학생마다 따로 방 하나씩을 갖고 자기 방에 출석표를 걸어 놓았다. 교수들이 방을 순회하며 출석표를 체크하고 또 지도를 했다.

영국에서 이민 온 전직 언론인 조지 부스(George G. Booth) 씨가 설립한 크랜브룩 재단 안에는 여러 개의 학교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미술학교가 유명했었다. 그것은 유명한 교수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다.

크랜브룩 미술학교로

크랜브룩 미술학교가 자랑할 만한 교수로는 건축부문에서 세계 최초의 올림

픽 스타디움인 헬싱키(Helsinki) 올림픽 스타디움을 설계했던 에로 사리넨(Eero Saarinen, 1910-1961), 조각 부문에서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칼 밀레스(Carl Milles, 1875-1955) 등이 있었다. 칼 밀레스는 지금도 스톡홀름(Stockholm)의 그가 살던 집이 조각공원으로 꾸며져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내가 크랜브룩으로 간 이듬해 작고했고, 나는 그에게서 직접 사사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무튼 나는 학교를 돌아보면서 '이런 곳에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 무렵 스테파트 교수는 미시시피에서 위스콘신(Wisconsin)으로 학교를 옮기게 돼 나를 그리로 데려가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장학금도 얻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왕 공부하려고 어려운 결심으로 어려운 유학길에 오른 만큼 고생이 되더라도 분위기 좋은 크랜브룩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일 년간은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입학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에선 이미 방이 다 찬 상태여서 새로 학생을 받을 형편이 아니기도 했다.

그러나 레오 스테파트 교수는 나를 위해 추천서를 잘 써 주었고, 그 덕분에 크랜브룩에선 새로 방 하나를 더 만들어 나를 받아 주었다.

그 전에 방학 중 생활비를 한미재단으로부터 받을 때도 역시 스테파트 교수의 추천서가 큰 도움이 됐다. 스테파트 교수에게서는 불과 한 학기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후의 내 작품활동에 스테파트 교수의 영향이 깊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크랜브룩으로 옮겨 간 나는 지독스럽다는 평을 들을 만큼 열심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 일을 걱정하던 남편은 박사과정을 거의 다 마쳐 가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먼저 귀국하느라 학위를 포기했다. 남편은 지금도 그때의 내가 놀랄 정도로 지독히, 열심히 공부했었다고 기억해내곤 한다.

그만큼 나는 크랜브룩의 가족적이고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얻었고, 그후로 한국민의 줄 잇는 크랜브룩 유학에 길을 터놓을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내 뒤를 이어 현재 아이오와(Iowa) 주립대 교수로 있는 주정희(이화대에선 동양화를 했으나 크랜브룩에 가서 금속공예와 직

물을 했다), 조각으로 「국전」에서 처음 대통령상을 받았던 박종배(朴鍾培), 현미협 이사장인 조각가 정관모(鄭官謨) 등이 크랜브룩에서 공부했다.

내가 공부를 지독하다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한 것은 뒤늦게 시작했고 세 아이들을 떼어놓고까지 결심한 유학길이었다는 내 개인적 사정도 한 이유가 됐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지킬 약속이 있어서 더 열심히 수밖에 없었다.

난 돌아가면 거의 맥이 끊겨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조각계를 일으키기 위해 후진을 양성할 의무가 있었다. 고작해야 테라코타밖에 못 쓰던 가난한 조국의 조각계에,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새 기법들을 보다 많이 익혀 배워 갖고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에선 용접조각(welding sculpture) 기법이 쓰인 지 십 년이나 됐지만, 국내에는 소개조차 안 된 상태였다. 결국 이 기법은 내가 배워 와 국내에 처음 전한 셈이 됐다. 후일담이지만 용접조각을 처음 국내에 선보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신문에 글도 많이 썼다.

물론 이런 신기법 도입을 위해서는 홍익대학교에서 제반 여건을 만드는 등 많은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혀 둔다.

창작 존중받는 캠퍼스

크랜브룩의 강점은 유서 깊고 전통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학교라는 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름난 선생님들에게서 간섭을 받는다거나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었다. 오직 학구적인 학교 분위기, 그 전통이 공부하고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지금도 나는 정말 대학은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도 그런 전통을 간직한 대학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듣고 있지만, 대학이 지켜 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난 크랜브룩에서 보고 배웠다.

크랜브룩에서의 일 년 동안은 정말 철저히 공부한 기간이었다. 먹고 자는 시간 외엔 내 방에 매달려 작업에 몰두했으므로 바깥의 다른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 그같은 무리한 공부로 해서 난 미시시피에서 한 차례 입원 소동을 벌였지

만, 크랜브룩에서도 역시 과로로 한 차례 쓰러져 입원하는 사태를 빚었다.

그렇듯 학교에만 매달려 지낸 내게 조금은 숨통이 트일 여유가 있었다면, 그 건 같은 학교의 딸같이 어린 친구 루스 캐스웰(Ruth Caswell)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형제라고는 로즈마리(Rosemary)라는 언니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그의 부모들은 딸들에게 끔찍하게도 잘해 주어, 루스는 아침이면 아버지가 차로 학교에 데려다주었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손수 차를 몰고 와 태워 가곤 했었다.

내가 루스를 만난 몇 년 후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는데, 루스와 로즈마리는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셋이 살아가며 몇 년 전까지도 나와 연락을 주고받는 우정을 지속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찌어찌해 연락이 끊겨 더 이상 그녀들의 소식을 모르며 지내고 있다.

크랜브룩에서는 조각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부전공으로 금속공예를 공부했다. 금속공예 공부는 내가 하는 조각 작업에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었다.

당초 한미재단에서는 일 년 과정으로 보낸 것이었으나, 나는 배우던 기법을 마저 마스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재단측의 양해 아래 반년을 더 머물며 공부했다. 일 년 반 동안 우리에게 낯설고 새롭기만 하던 여러 기법들을 기를 쓰고 배워 조국에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며 봉사해야 한다는 나의 결심은 잠시도 허물어진 적이 없었다. 그 일 년 반의 공부를 마치고 역시 한미재단이 마련해 준 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한국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기를 쓰고 공부하던 동안은 긴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질 수 없다는 오기였을까, 집 생각마저 자주 잊고 공부에만 매달렸었다.

그러나 귀국길엔 한 배에 윤창덕 목사와 이화여대에서 아직은 법학을 강의 중인 서희원(徐希源) 교수 등 한국인이 타고 있었고, 그들을 보는 순간 집 생각이 더욱 짙게 밀려왔다. 아이들 얼굴도 떠올랐다. 금방이라도 날아가 와락 끌어안고 싶은 내 아들, 딸들. 떠날 때보다 마음은 더 들떴고 뱃길은 더디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돌아와 나는 약속대로 모교인 홍익대에 나갔다. 내가 새로 배워 온 기

법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기엔 여러 면에서 당시 우리의 형편이 너무 부족했다. 여러 재료를 응용해 가며 기법 터득을 시켜 가는 열성이 그때는 있었다. 그 길이 내가 갈 오로지 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돌아온 지 일 년 만에 또다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다.

일 년에 한 번씩 입원

내가 두번째로 미국 유학을 떠난 것은 엉뚱하게 도공예(陶工藝) 분야였다.

1957년부터 국제협조처(ICA) 기술원조계획에 의해 기술지원단이 한국에 와 있었고, 그들은 상공부를 통해 서울대와 홍익대에 각각 한 명씩 공예 방면의 발전을 위해 연수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 왔다.

홍익대에서는 마침 그때 공예과를 신설하려던 참이었으나 갑자기 추천할 만큼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공예과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갑자기 추천을 받게 됐다.

추천을 받은 후 나는 그들 국제협조처 기술지원단과 함께 남한 전역을 제주도 까지 안내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때 서울대에서는 민철홍(閔哲弘) 씨가 추천이 됐었고, 우리가 다녀온 뒤에 배만실(裴滿實) 씨와 권순형(權純亨) 씨가 국제협조처 기술원조계획에 의해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87. 두번째 유학을 간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금속공예 실습실에서. 1958-1959년경.



88. 클리블랜드 시절,
클래스메이트와 함께.
1958-1959년경.

우리가 입학한 곳은 클리블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Cleveland Institute of Art)였다. 거기서 나는 산업디자인을 일 년간 공부했다. 국내에서는 전혀 안 하던 생소한 분야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 고생이란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것도 나이 마흔을 바라보면서 뒤늦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었으니 그 어려움은 참 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배우는 입장이 되면 집요한 내 성격에 대강 넘겨 버릴 수 없어 앞서의 유학 때 못지 않게 열심히 매달려 공부했다. 그러느라 또 한 차례 입원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덕분에 나는 가는 곳마다 한 차례씩은 졸도하고 입원하는 이력을 늘려 간 셈이다.

클리블랜드에서는 전공인 산업디자인과 함께 칠보공예(七寶工藝)의 일종인 에나멜링(enamelling)을 부전공으로 택했다. 덕분에 에나멜링 기법도 귀국 후 내가 처음 국내에서 강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1958년 8월에 가서 만 일 년간 공부하고 온 나는, 또 역시 그 값을 치르느라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삼 년간 공예과에서 에나멜링 강의를 했다. 물론 적은 조각과에 두고 조각 강의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 번의 유학이 다 모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처음 떠날 때는 어린 삼남매만 달랑 일하는 아주머니인 남에게 맡기고 떠난 것

이였으니, 아무리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였다 해도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곤 한다. 두번째는 그래도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떠나는 것이라 걱정은 덜 될 듯 싶었으나, 고등학생, 중학생 총총히 엄마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사춘기 아이들이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그렇게 자신의 일에 빠져드는 엄마에게 반항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또 크게 말썽 일으킨 일도 없이 순조롭게 자라 모두 저대로 선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 고맙기만 하다. 큰아들 인회(仁會)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교육철학을 공부해 연세대에서 강의하며 아버지 못지 않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 가고, 딸 혜영(惠英)은 생물학을 공부해 동국대 강단에 서 있으며, 막내 철회(哲會)는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와 사진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듯 자식들이 별 탈 없이 잘 자라 준 데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엄마를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며 도와준 남편의 공이 큼을 잘 안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모험이긴 했으나 분명 잘한 일이었다고 확신한다. 인생에 같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 것. 그때 내가 갈등을 못 이겨 주저앉았다면 과연 오늘의 김정숙이 있었을까를 반문해 보는 것이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 온 한국 조각계에 새로운 기법, 추상조각을 과감히 도입한 파이어니어로서의 내 역할은 금년 봄 정년퇴직으로 일단 마무리된 셈이고, 이젠 내 작업의 남은 부피만 재어 가고 있다.